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KiRi 보험연구원

목 차

[1] 2027년 보험산업 전망

Ⅰ. 경제·금융 환경

Ⅱ. 보험산업 동향

Ⅲ. 성장 제약요인

Ⅳ. 2027년 보험산업 전망

목 차

[2] 2027년 보험산업 과제

Ⅰ. 2027 목표

Ⅱ. 2027 과제

[1] 2027년 보험산업 전망

금융시장분석실

KiRi 보험연구원

Ⅰ

경제·금융 환경

1. 대외 환경
2. 대내 여건

1. 대외 환경: 세계경제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6년 둔화한 뒤 2027년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성장률 전망은 2025년 3.5%, 2026년 3.0%, 2027년 3.2%로, 2027년에도 2025년 수준을 하회함
-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25년 급등한 뒤 하락하였으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6년 초 일시 반등한 지수는 최근 하락했으나, 2025년 급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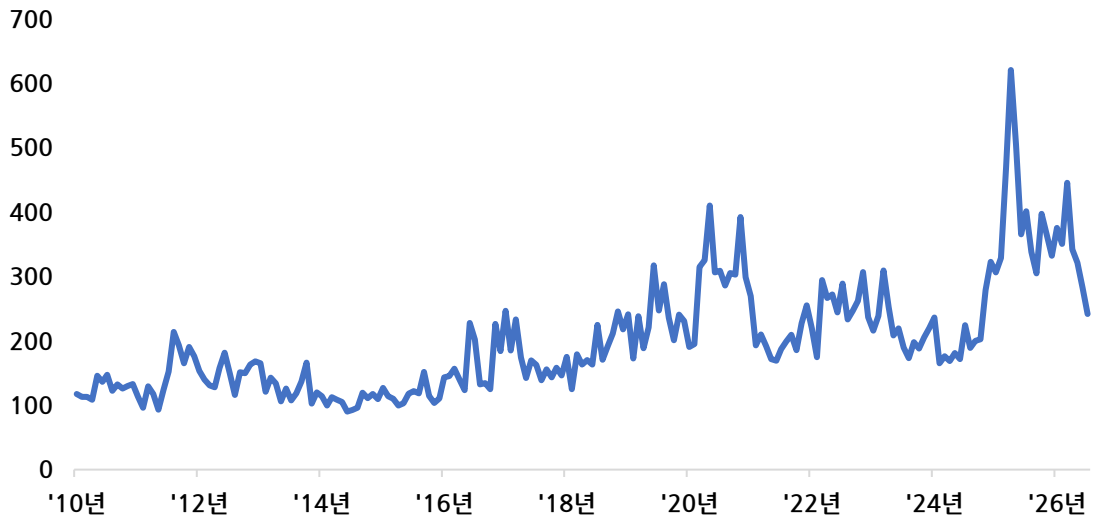
세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5	2026(E)	2027(E)
세계	3.5	3.0	3.2
미국	2.1	2.2	2.1
유로지역	1.2	0.8	1.2
중국	5.0	4.5	4.3
일본	1.2	0.7	0.8

자료: 한국은행(2026. 8.), 『경제전망보고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E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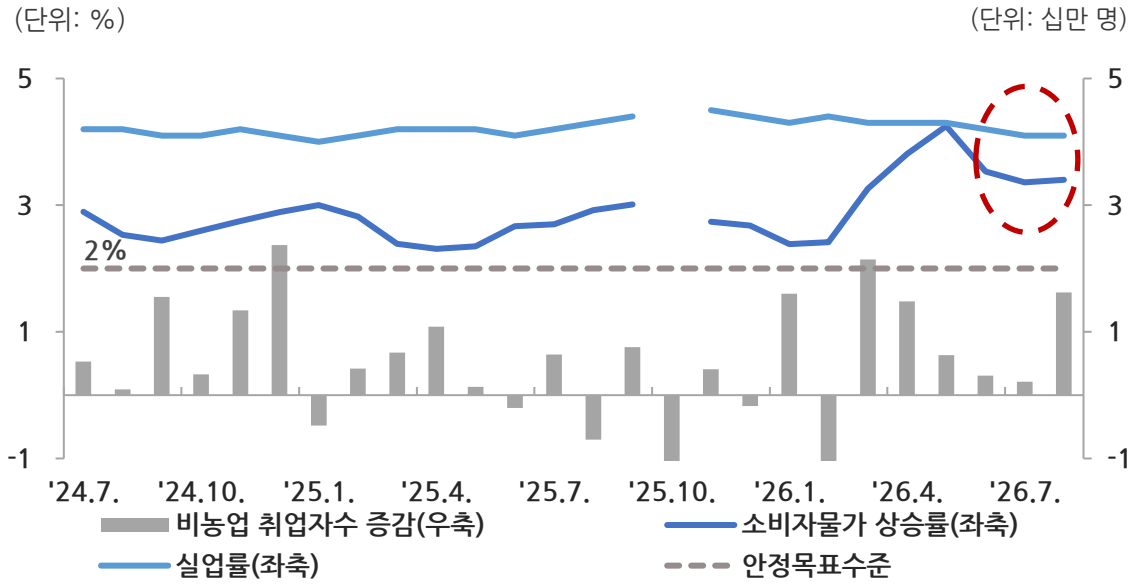


자료: FRED

1. 대외 환경: 미국 물가 및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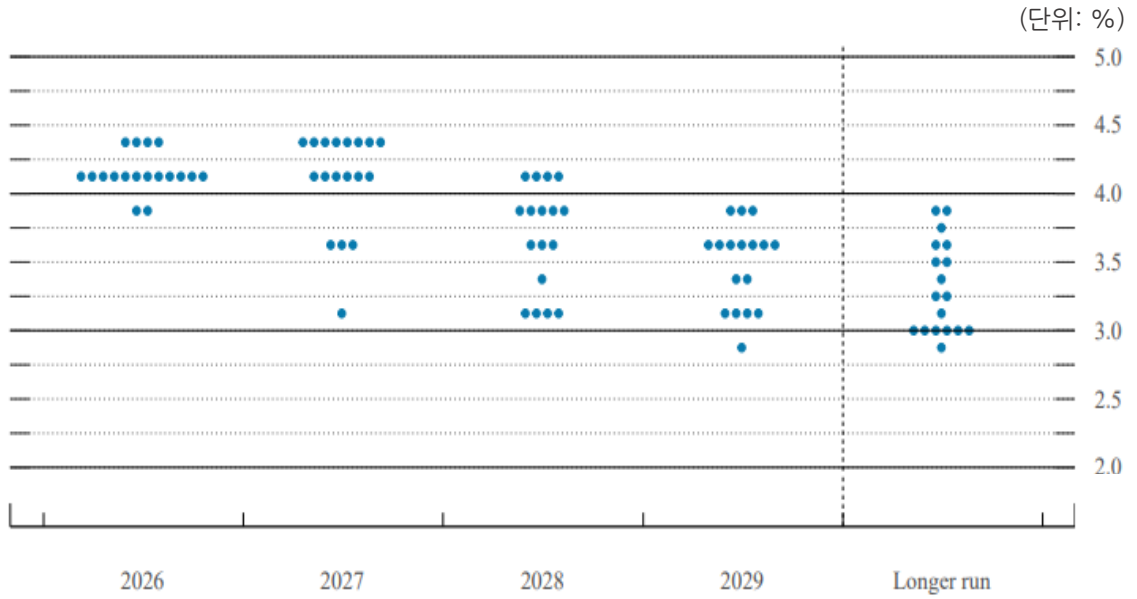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고점 이후 낮아졌으나 물가목표 2%를 상회함**
  - 8월 물가 상승률은 3.4%, 실업률은 4.1%이며, 비농업 취업자는 전월보다 16.2만 명 증가함
- **9월 점도표는 향후 연도의 금리 전망이 대체로 낮아지는 가운데 위원별 전망 차이를 보여줌**
  - 2028~2029년 금리 전망은 2026년보다 낮은 쪽에 분포하나, 같은 연도에도 위원별 차이가 나타남

미국 물가 및 고용 관련 지표



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25년 10월 일부 결측
자료: OECD; FRED

정책금리에 대한 Fed 전망: 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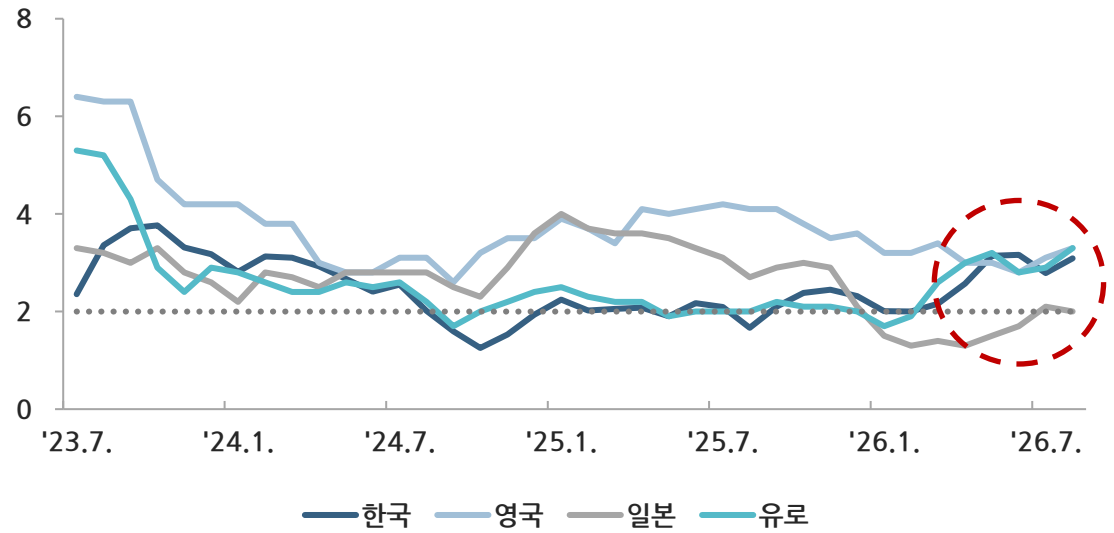
주: 2026년 9월 기준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1. 대외 환경: 미국 이외 주요국 물가 및 금리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가별로 흐름과 수준이 모두 상이함**
  - 8월 물가 상승률은 영국·유로지역 각각 3.3%, 일본 2.0%로, 국가별 차이는 최대 1.3%p임
- **시장에서는 한국·일본의 정책금리 상승, 영국의 하락, 유로지역의 유지를 예상함**
  - 2027년 4/4분기 전망은 한국 3.25%, 일본 1.75%, 영국 3.50%이며 유로지역은 2.65%를 유지함

미국 이외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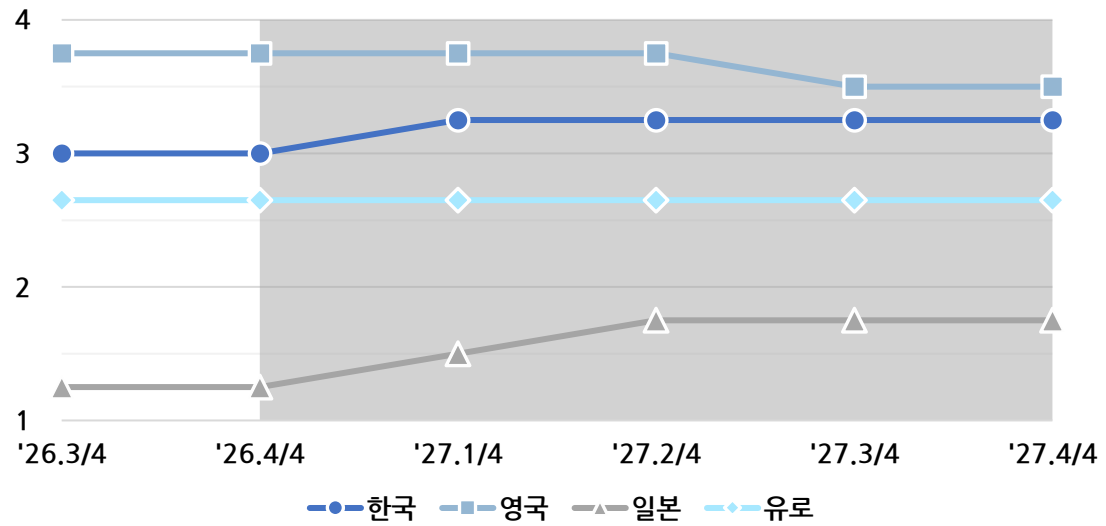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OECD; 일본 통계청

주요국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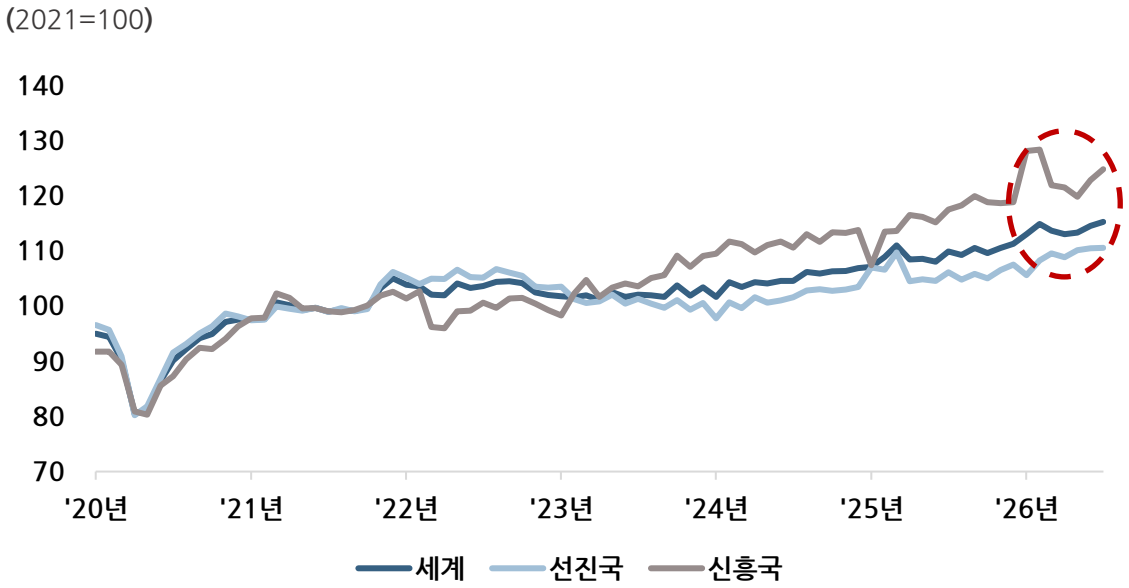


주: Reuters Poll(2026. 10. 6.) 기준
자료: LSEG

1. 대외 환경: 세계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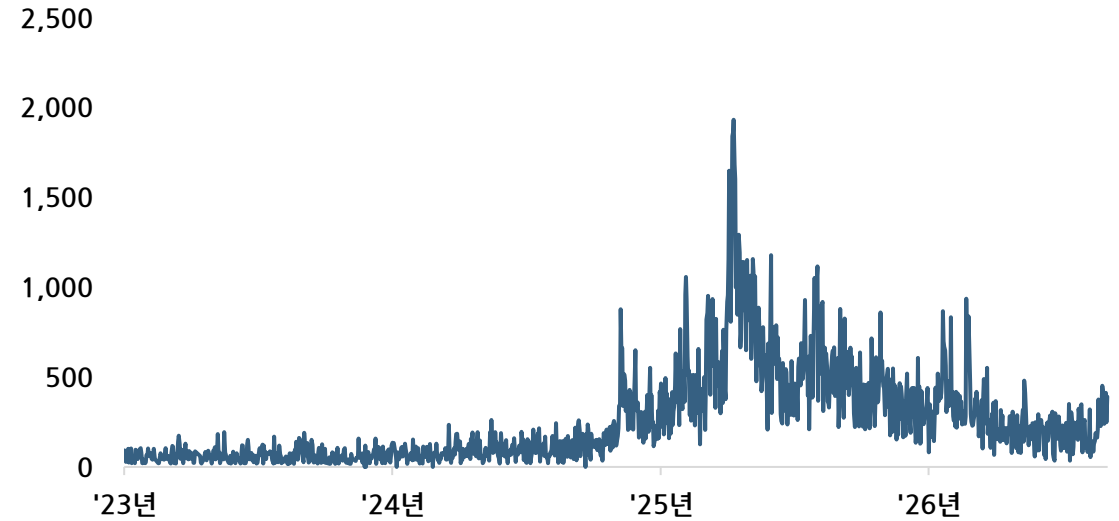
- **세계 상품교역량은 2020년 급감 이후 증가하였으며 신흥국의 회복 폭이 선진국보다 크게 나타남**
  - 2026년 7월 지수는 세계 115.2, 선진국 110.5, 신흥국 124.7로 모두 2021년 평균(100)을 상회함
-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2025년 급등한 뒤 낮아졌으나 2023~2024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최근 지수는 2025년 고점을 크게 밑돌지만 단기 등락이 이어지고 있음

세계교역량



주: 상품수입물량 계절조정 기준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



자료: Matteo Iacoviello's Homepage

2. 대내 여건: 경제성장률

- **주요 기관은 2026년 국내 성장률이 2025년보다 높아지되 2027년에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2026년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 3.3%, KDI 3.2%, OECD·IMF 2.6%로 기관 간 차이는 최대 0.7%p임
-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5년 중 기준선 100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감**
  - 2026년 8월 지수는 102.9로 기준선을 웃돌며, 2022~2023년의 하락 국면과 대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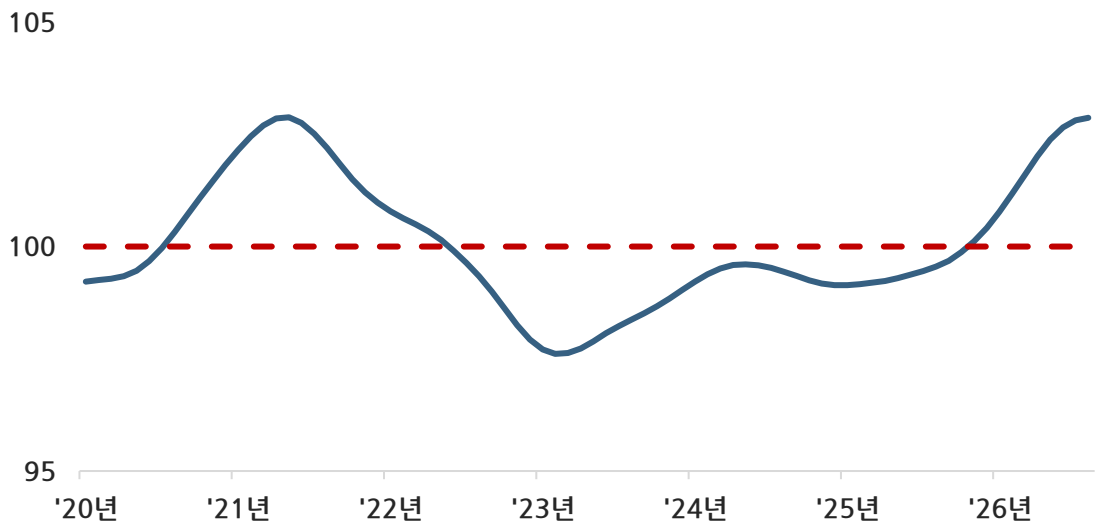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5	2026(E)				2027(E)			
		한은	KDI	OECD	IMF	한은	KDI	OECD	IMF
국내총생산	1.1	3.3	3.2	2.6	2.6	2.9	2.2	1.9	2.5
민간소비	1.5	2.1	2.3	2.2	-	2.3	2.0	2.1	-
설비투자	1.5	6.8	7.9	-	-	4.7	7.0	-	-
건설투자	-9.7	0.2	0.1	-	-	1.9	2.7	-	-
상품수출	3.3	9.7	8.6	-	-	4.6	4.9	-	-
상품수입	1.9	9.8	9.2	-	-	4.6	6.7	-	-

자료: 한국은행(2026. 8.); KDI(2026. 8.); OECD(2026. 6.); IMF(2026. 7.)

OECD 경기선행지수: 대한민국



자료: OECD

2. 대내 여건: 물가

- **주요 기관은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5년보다 높아진 뒤 2027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2026년 전망은 한국은행·KDI 2.7%, OECD 2.6%, IMF 2.5%이며, 2027년에는 1.9~2.3%로 낮아짐
- **농산물·석유 제외 근원물가는 최근 상승한 반면, 기대인플레이션 장기전망은 유지됨**
  - 8월 근원물가는 전월 2.5%에서 3.1%로 상승했고, 1년 기대는 2.6%, 5년 기대는 1.9%를 유지함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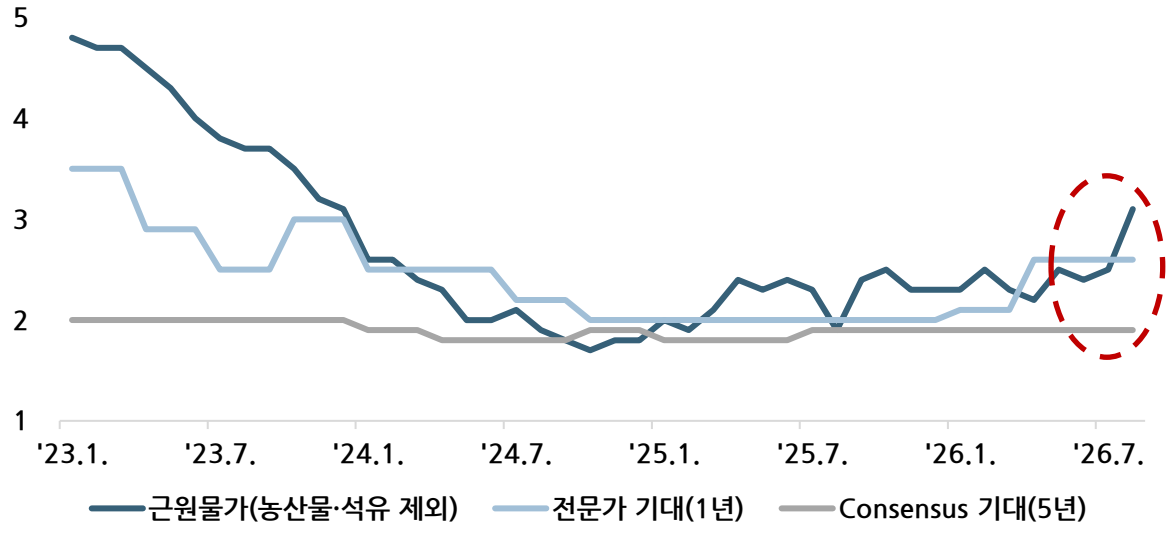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5	2026(E)	2027(E)
한국은행	2.1	2.7	2.3
KDI	2.1	2.7	2.2
OECD	2.1	2.6	2.2
IMF	2.1	2.5	1.9

자료: 한국은행(2026. 8.); KDI(2026. 8.); OECD(2026. 6.); IMF(2026. 4.)

근원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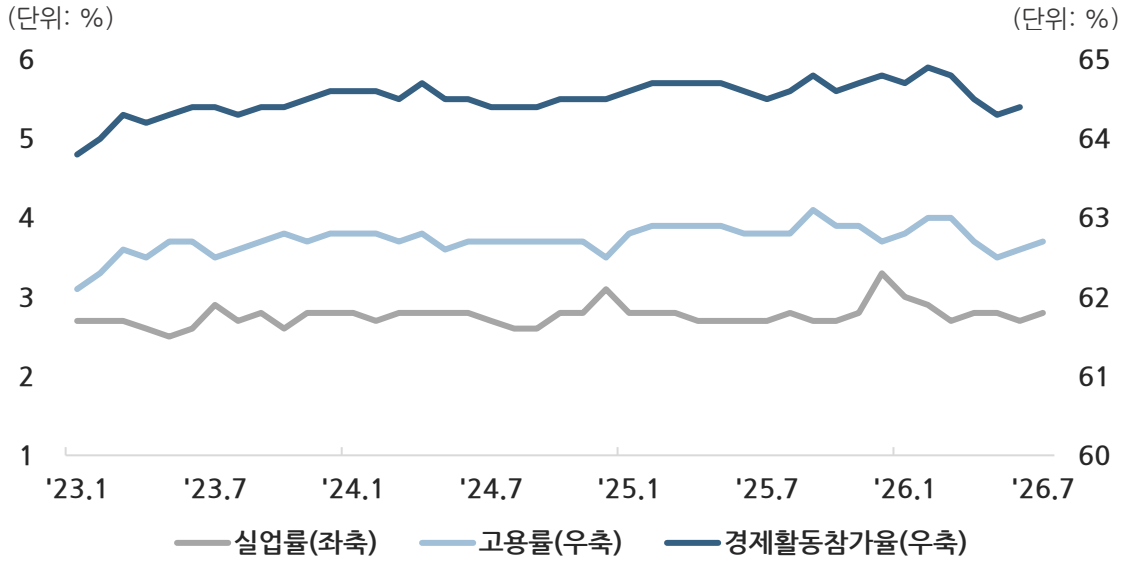


주: 근원물가는 농산물·석유 제외, 기대는 전문가 전망
자료: 한국은행; Consensus Economics

2. 대내 여건: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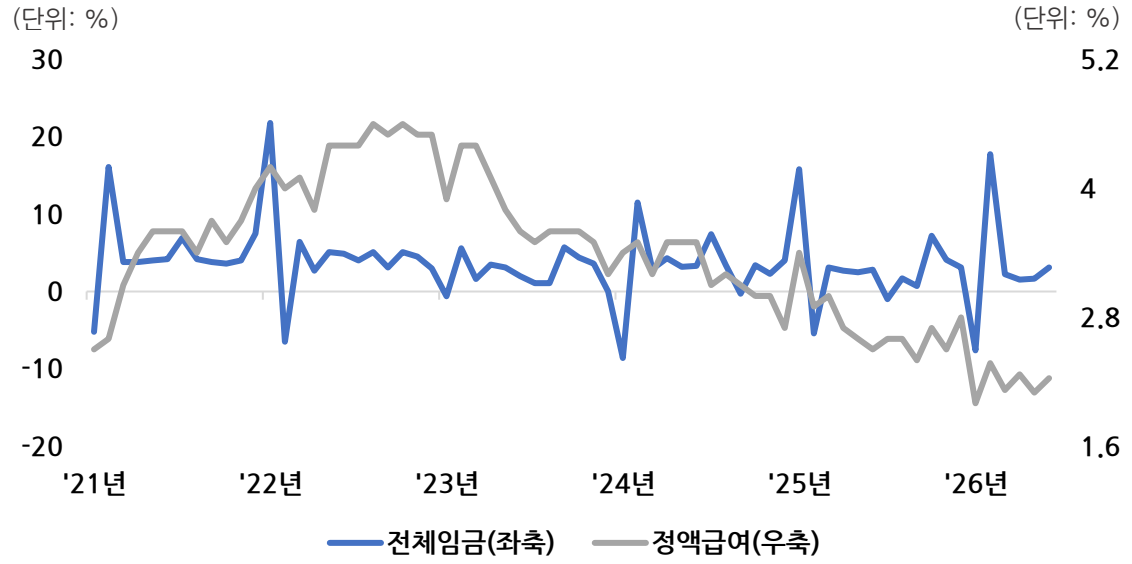
- **고용률은 5월 저점 이후 소폭 높아졌으며 실업률은 최근 2%대 후반에서 등락함**
  - 고용률은 5월 62.5%에서 7월 62.7%로 상승했으며, 7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높은 2.8%임
- **전체임금 상승률은 월별 변동이 큰 반면, 정액급여 상승률은 2026년 들어 2%대 초반을 유지함**
  - 전체임금 상승률은 2월 17.8%에서 6월 3.1%로 낮아졌으며, 6월 정액급여 상승률은 2.2%임

주요 고용지표



주: 계절조정계열, 고용·실업 7월/참가율 6월까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명목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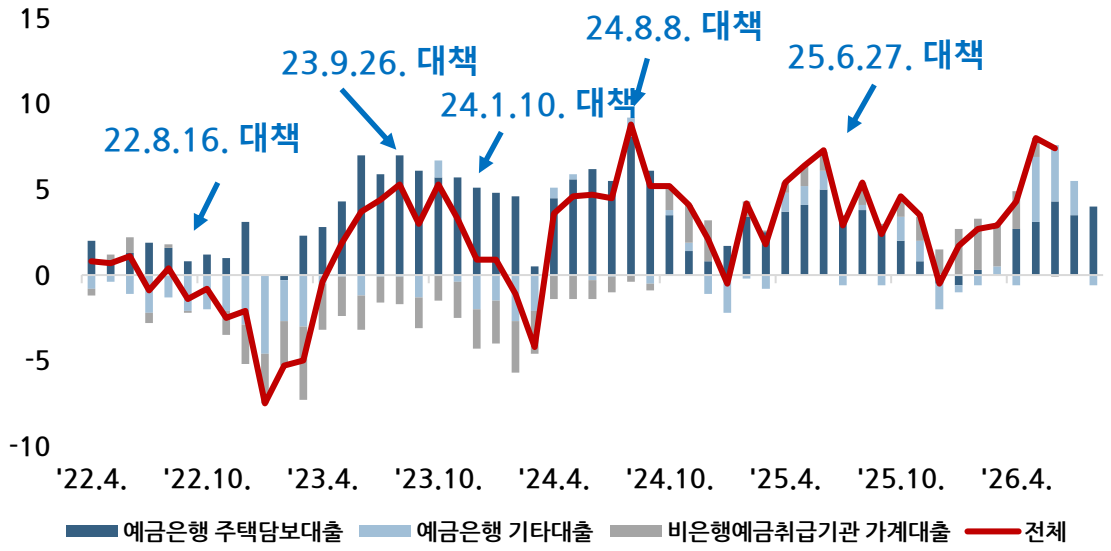
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대내 여건: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2/4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6월에는 전월보다 소폭 줄어듦**
  -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 4.3조 원, 5월 8.0조 원, 6월 7.4조 원으로 5월에 가장 크게 늘어남
-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에서 높아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0% 안팎에 머물러 격차가 확대됨**
  - 7월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0.35%, 수도권 0.72%, 비수도권 0.01%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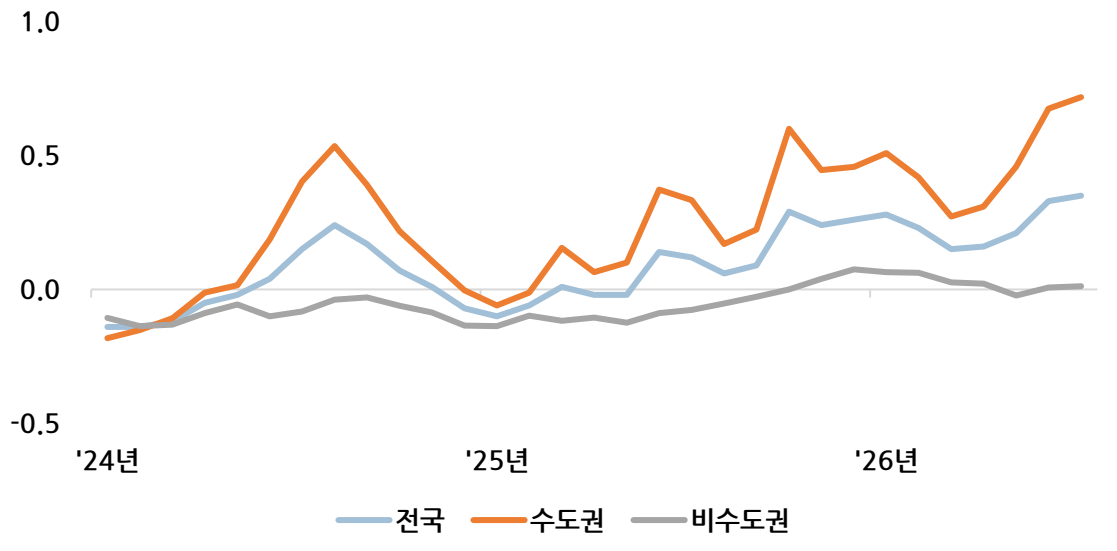
(단위: 전월대비, 조 원)



주: 전체는 6월, 은행은 8월까지(7·8월 잠정)
자료: 한국은행(2026.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단위: 전월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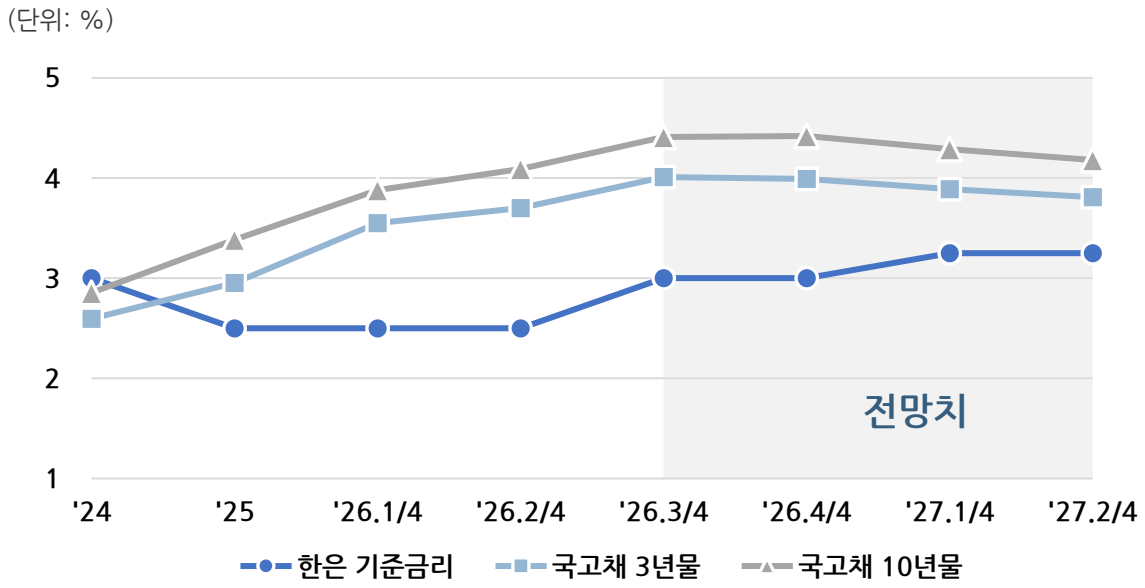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2. 대내 여건: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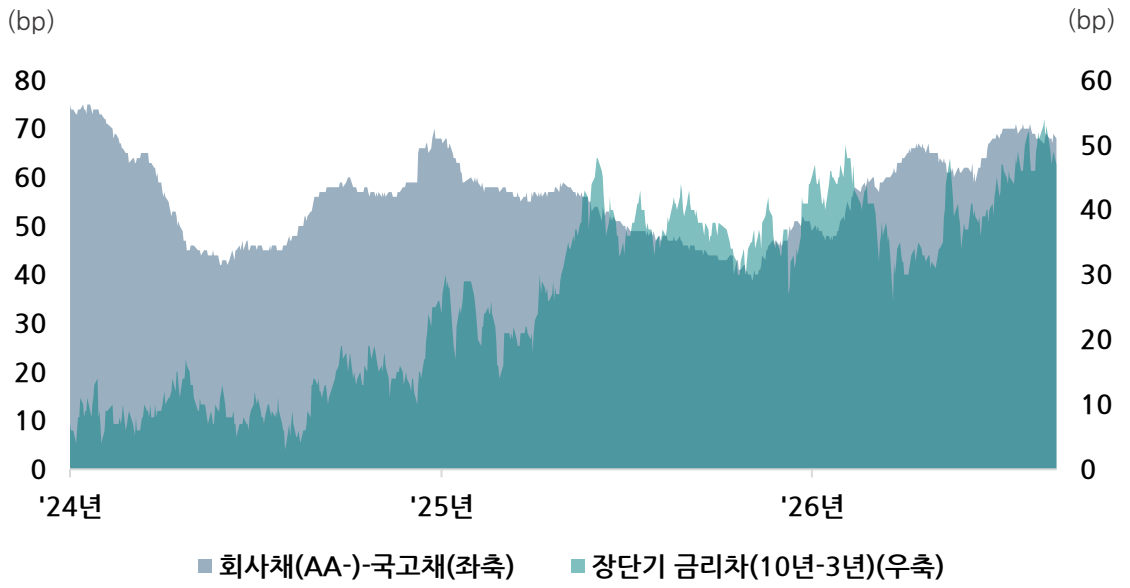
- **8월 조사에서 국고채금리는 2026년 하반기 고점을 형성한 뒤 2027년 상반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27년 2/4분기 국고채금리 전망은 3년물 3.81%, 10년물 4.18%로, 2026년 하반기 전망보다 낮음
-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와 장단기 금리차는 2024년 이후 등락을 거쳐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8월 말 회사채(AA-)·국고채 스프레드는 68bp, 국고채 10년물·3년물 금리차는 47bp임

금리 컨센서스



주: 2026년 8월 조사, 3/4분기부터 전망치(중간값)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인포맥스

장단기 금리차 및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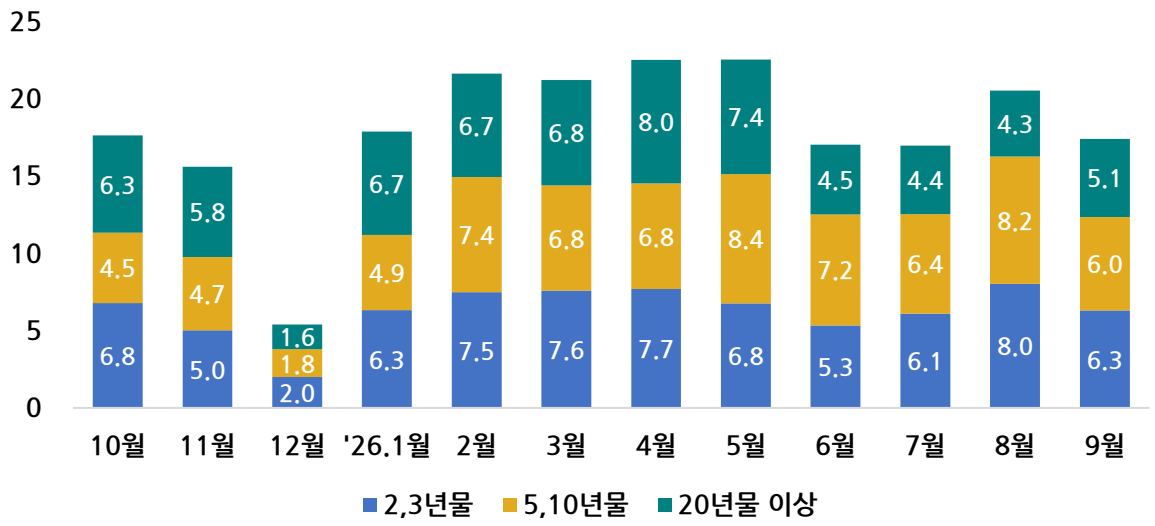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26.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 대내 여건: 국고채

- **최근 국고채 발행에서 장기물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투자자별 장기물 순매수 흐름에도 차이가 나타남**
  - 20년물 이상 발행 비중은 2025년 10월 35.8%에서 2026년 9월 29.3%로 낮아졌으며, 월별 변동이 큰 편임
  - 정부는 2026년 장기물(20, 30, 50년) 발행 목표를 35±5%로 제시하여 2025년 실적(38.6%)보다 낮게 설정함
- **한편, 보험회사의 국채 투자는 듀레이션 매칭 진전, 금리수준 변화 등에 따라 만기 구간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월별 국고채 발행규모 및 만기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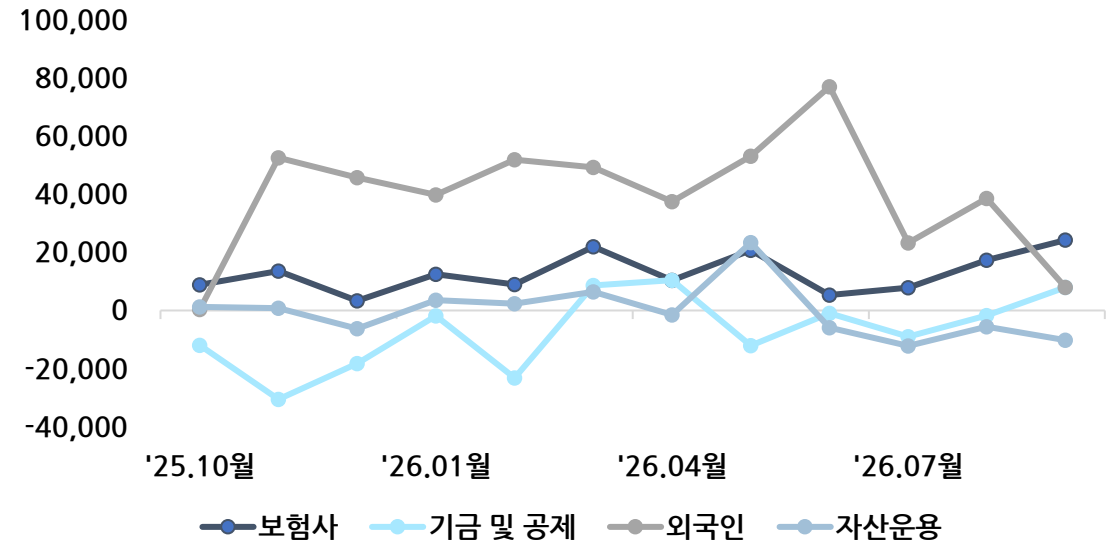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주요 투자자 국고채 장기물 순매수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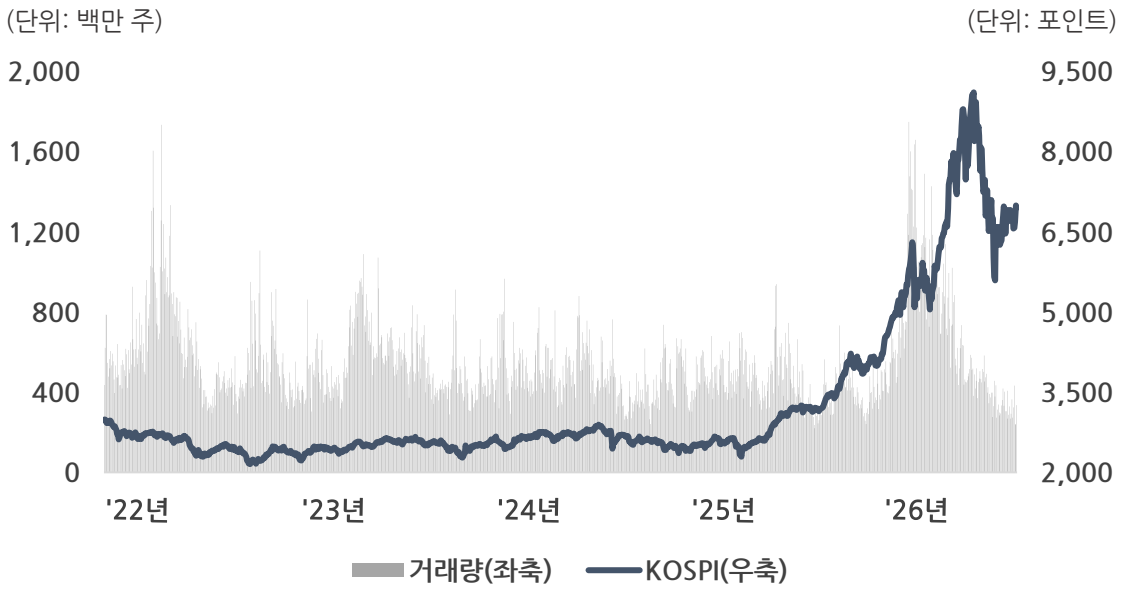


주: 장외시장, 잔존만기 10년 이상 국고채 순매수
자료: 연합인포맥스

2. 대내 여건: 주가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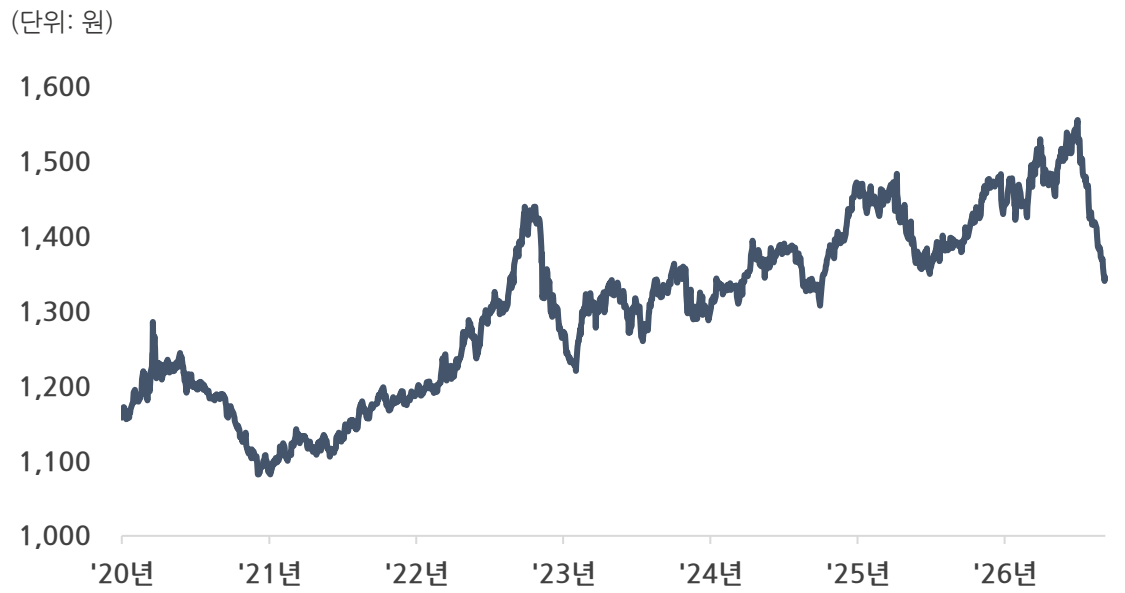
- **KOSPI는 2026년 상반기 고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조정폭이 확대됨**
  - 6월 고점 이후 하락과 반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원/달러 환율은 2026년 상반기 상승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근 연중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주가 하락과 환율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통상적인 동조 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임

KOSPI 지수 및 거래량



주: 2026년 9월 8일까지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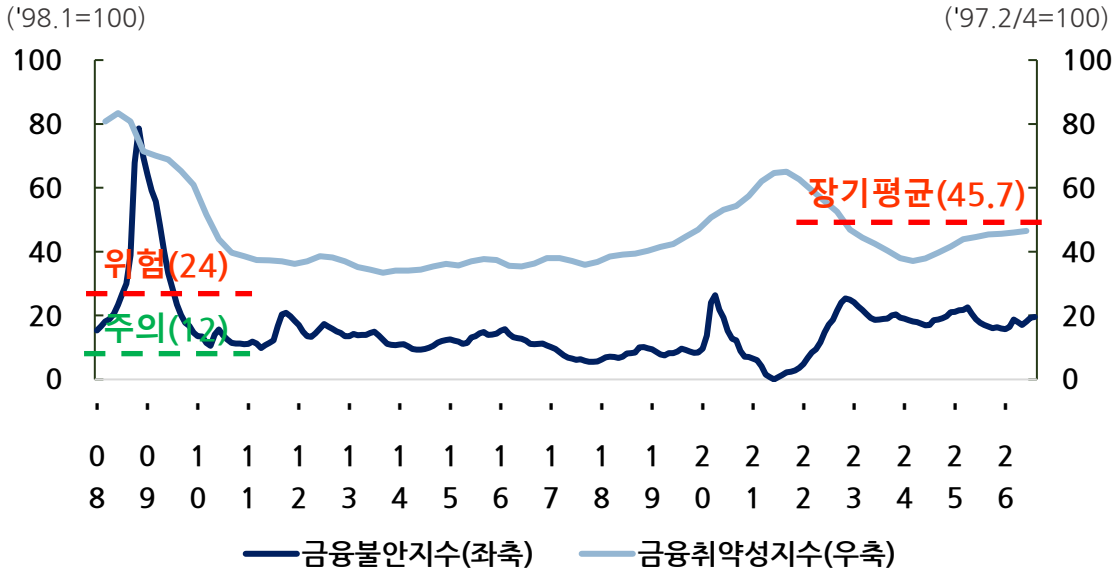


주: 2026년 9월 8일까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대내 여건: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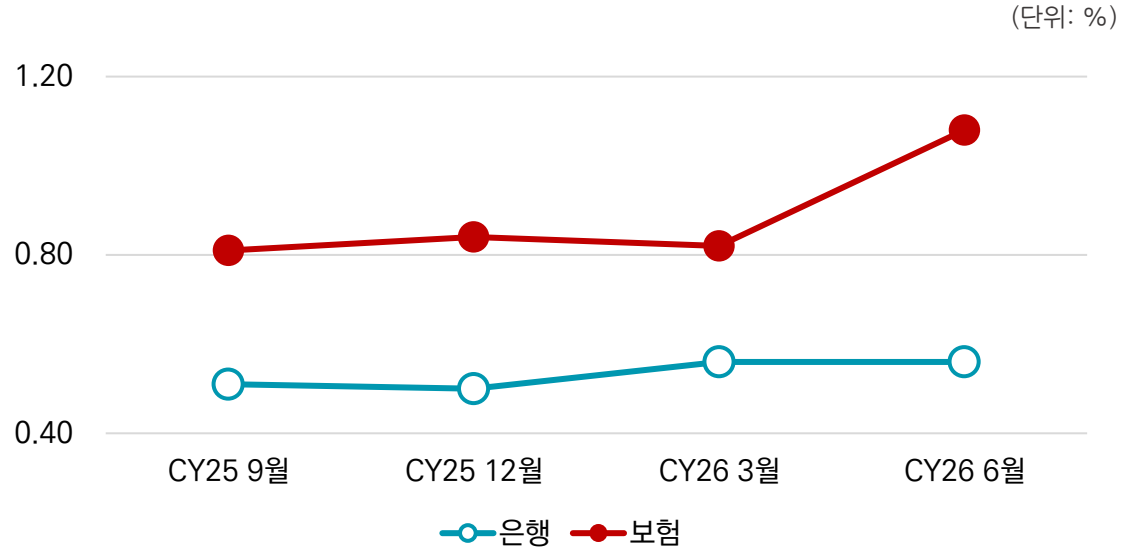
- **금융불안지수는 주의단계에 머물고 금융취약성지수는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임**
  - 8월 FSI는 19.5로 주의(12)·위험(24) 기준 사이이며, 2/4분기 FVI는 46.5로 장기평균(45.7)을 상회함
- **대출 연체율은 가계보다 기업에서, 은행보다 보험에서 상승세가 뚜렷함**

금융불안지수(FSI) 및 금융취약성지수(FVI)



주: FSI는 8월, FVI는 2/4분기까지
자료: 한국은행; 제공 엑셀

업권별 연체율 현황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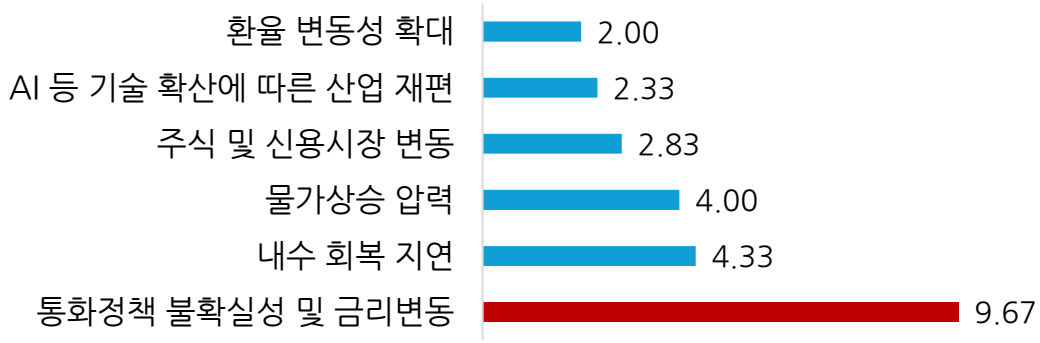
3. 요약 및 잠재 위험요인

경제·금융 환경 전망

구분	2025	2026(E)	2027(E)
경제성장률	↓↓	↑↑	↓
물가상승률	↓	↑	↓
시장금리	↑	↑↑	↓
주가	↑↑	↑↑	↑
환율	↑	–	↓

국내 보험회사 CEO의 2027년 경영 위협요인 평가

(단위: 점)



주: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산업전망과 자사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임(N=29)

대외적 위험요인

-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 및 물가압력 지속
- AI 투자 조정과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약화
- 미국 통상압력 확대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내적 위험요인

- 반도체 중심 성장의 소득·소비 파급 지연 및 업종 간 회복 격차 심화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 금리·생활비 부담 지속에 따른 취약가계·자영업자의 상환여력 약화

Ⅱ

보험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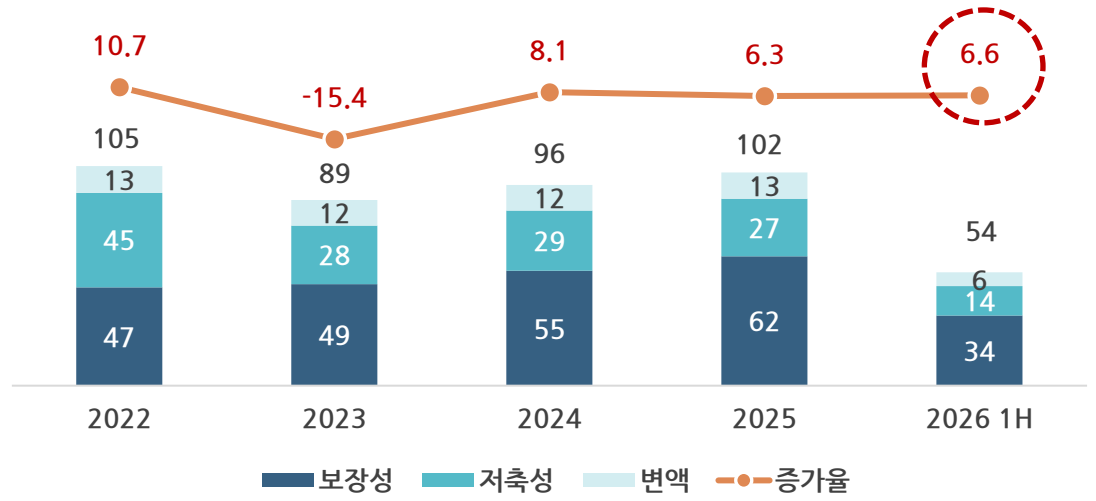
1. 성장성
2. 수익성
3. 건전성

1. 성장성 ① 생명보험: 전체(퇴직연금 제외)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5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함**
  - 보장성보험(+10.8%)과 변액보험(+3.9%)은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1.3%)은 소폭 감소함
- **신규 판매 지표인 연납화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함**
  - 변액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는 24.7% 증가했으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은 각각 14.9%, 5.0% 감소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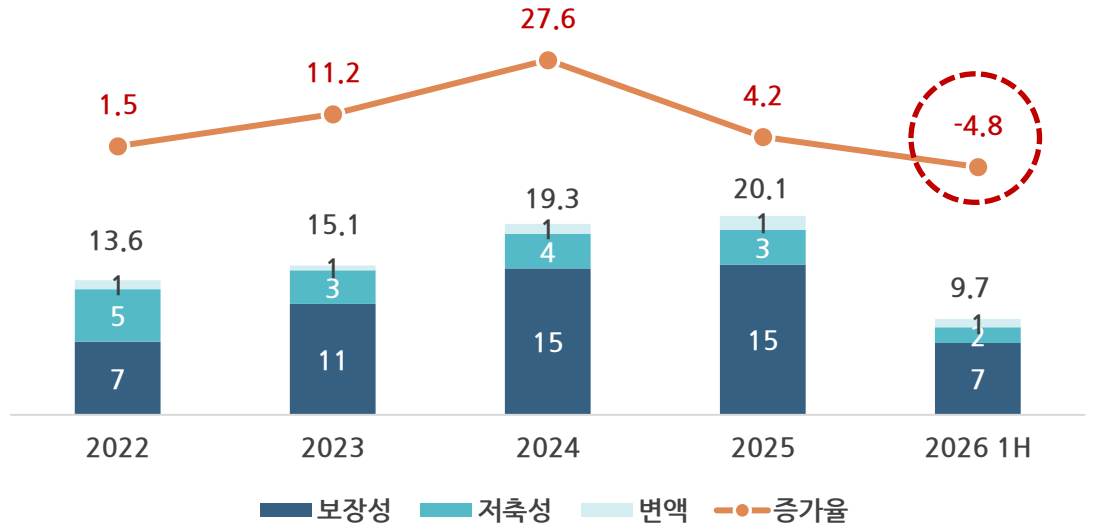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퇴직연금 제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

(단위: 조 원, %)



주: 퇴직연금 제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성장성 ①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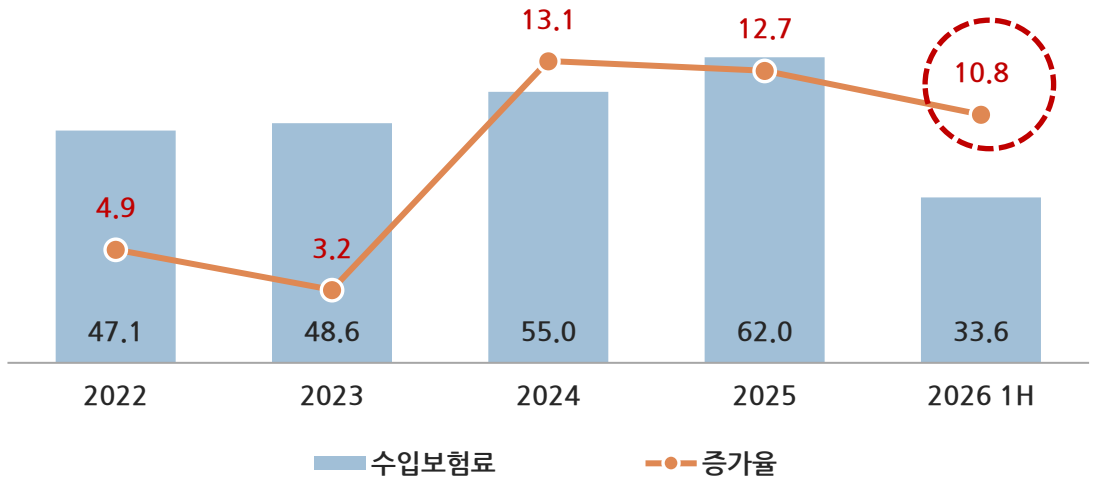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3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함

– 2025년 건강보험 중심 신계약 확대와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가 계속보험료 증가를 견인함

– 다만 전년 동기 건강보험 판매 급증의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 유입은 크게 둔화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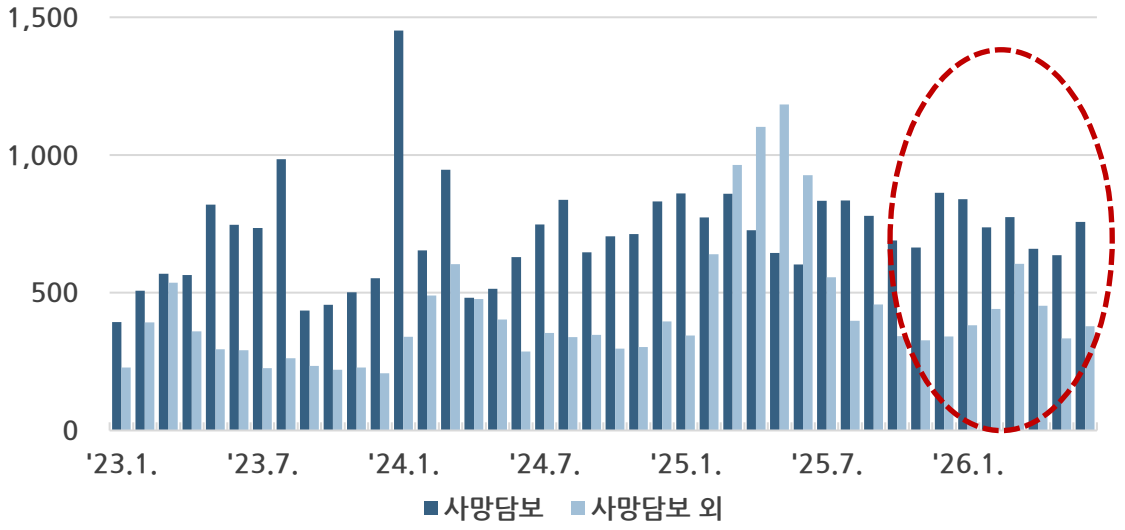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보장성보험 담보별 초회보험료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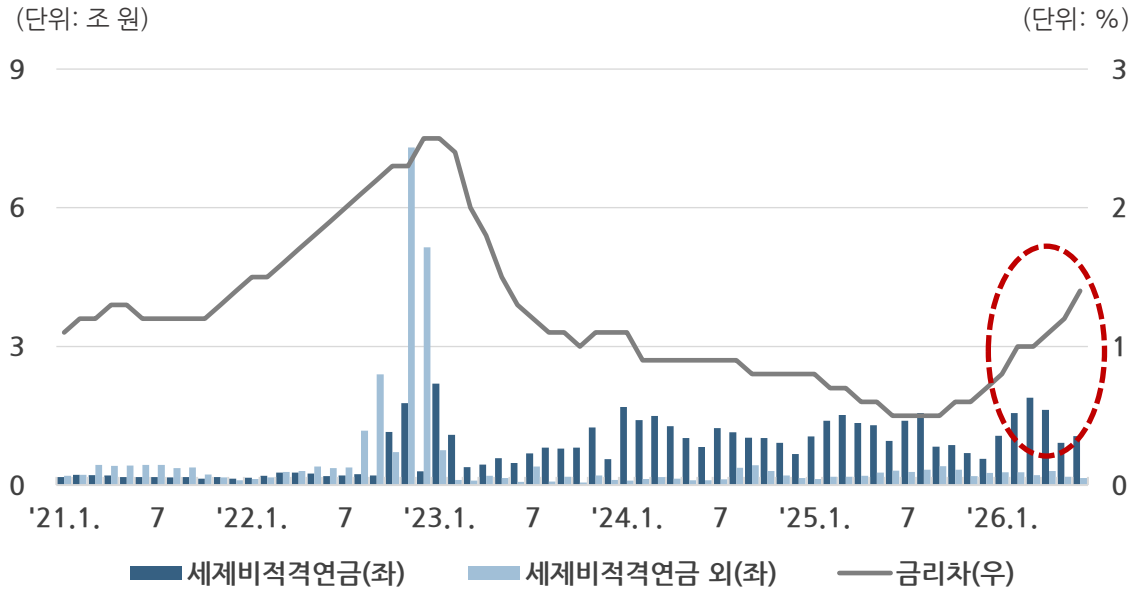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성장성 ① 생명보험: 저축성 및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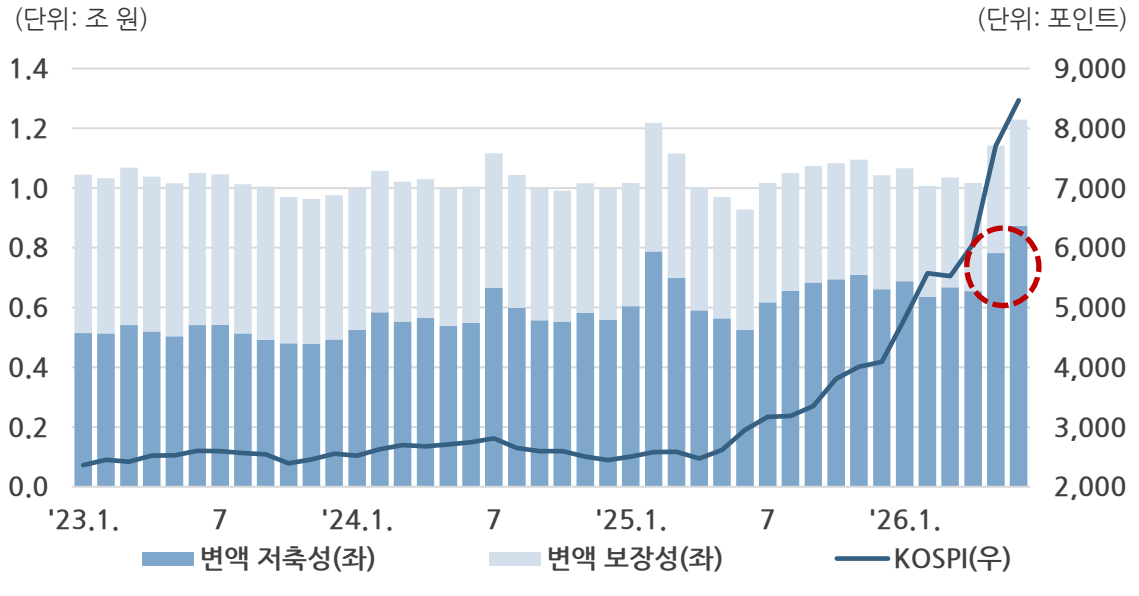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침**
  - 초회보험료는 7.5% 증가했으나 증시 호조 속에 2/4분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계속보험료가 14% 감소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증시 호조에 따른 신계약 및 추가납입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특히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함

저축성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및 금리차



주: 금리차는 정기예금 연평균 이율과 공시기준이율의 차이로 산출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보험개발원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및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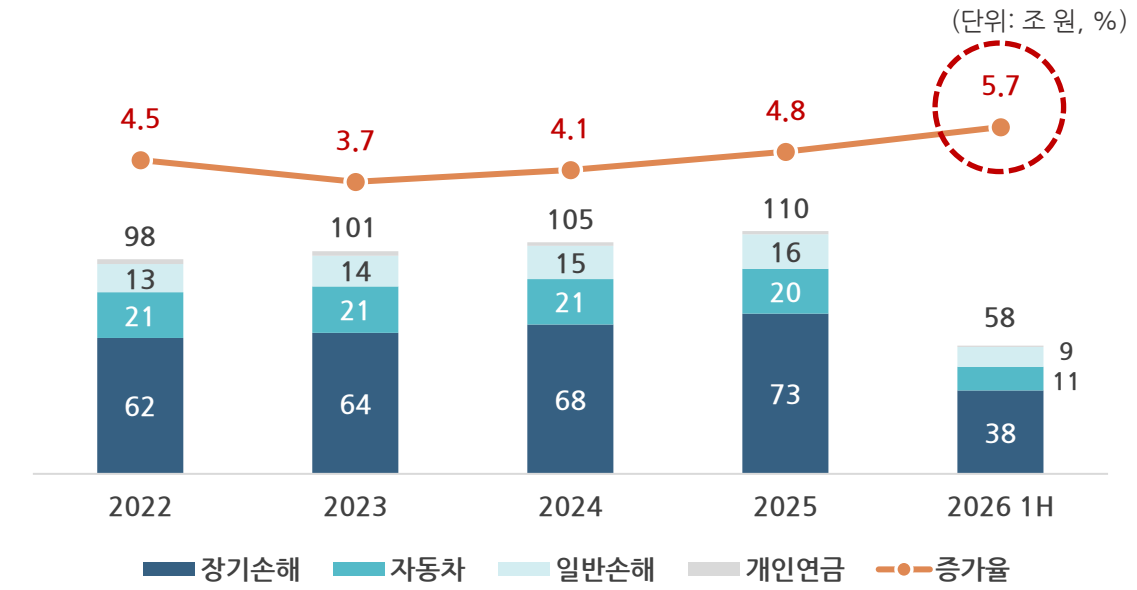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거래소

1. 성장성 ② 손해보험: 전체(퇴직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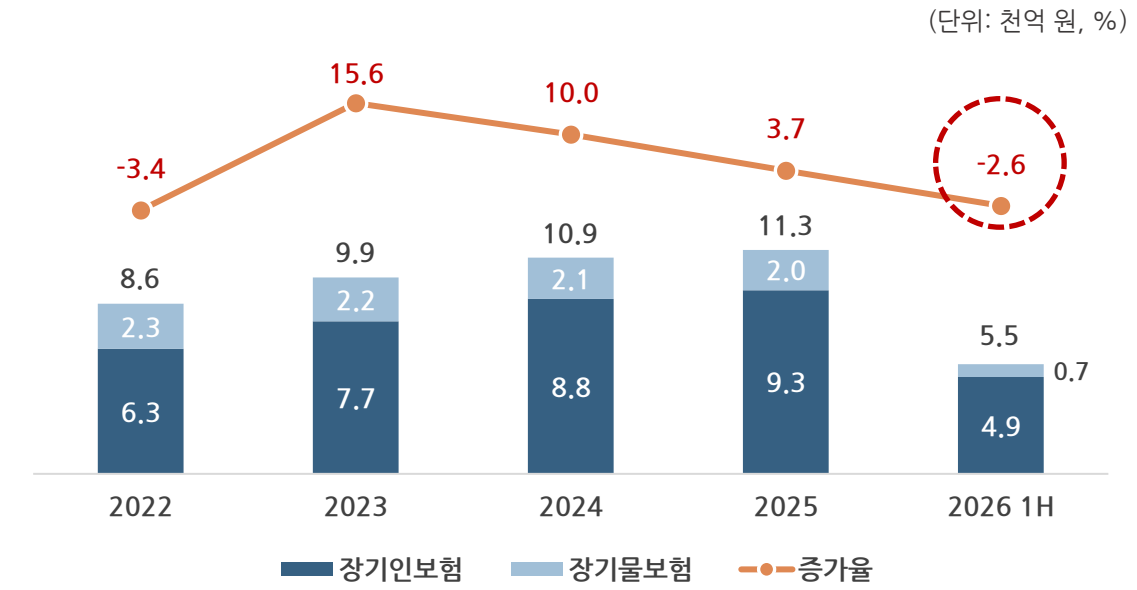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함**
  - 장기손해보험(+6.0%)과 일반손해보험(+8.0%)이 성장세를 이어갔고, 자동차보험도 4.2%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의 신규 판매 지표인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함**
  - 장기인보험 초회보험료는 2.9% 증가했으나, 장기물보험이 30.0% 감소함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주: 퇴직연금 제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주: 저축성보험 제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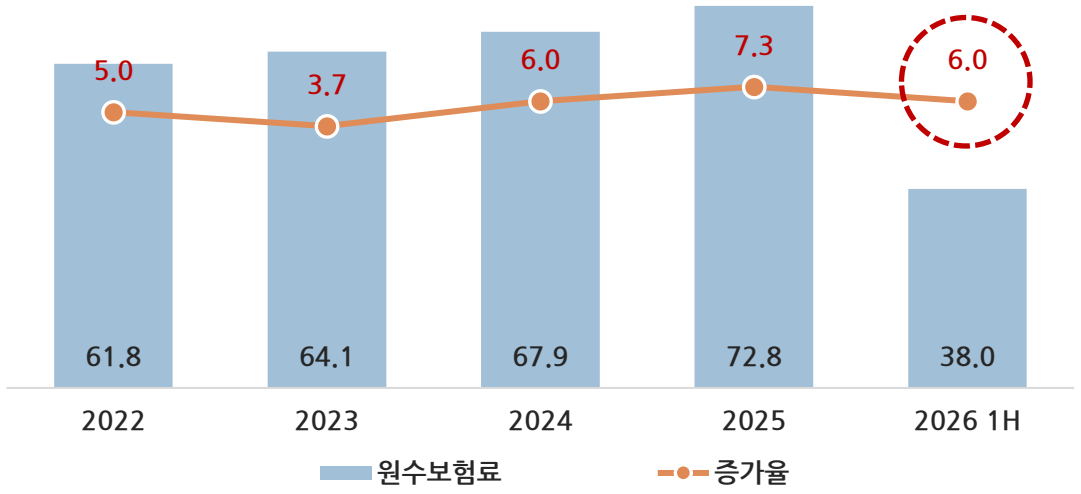
1. 성장성 ②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 2026년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함

- 계속보험료는 갱신 보험료 인상 등으로 5.9% 증가하며 원수보험료 증가분의 대부분(97%)을 차지함
- 초회보험료는 치매·간병(+256억 원)·상해(+150억 원)가 늘었으나, 질병·운전자가 줄며 2.6% 감소함
- 다만,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3~4월 판매 집중의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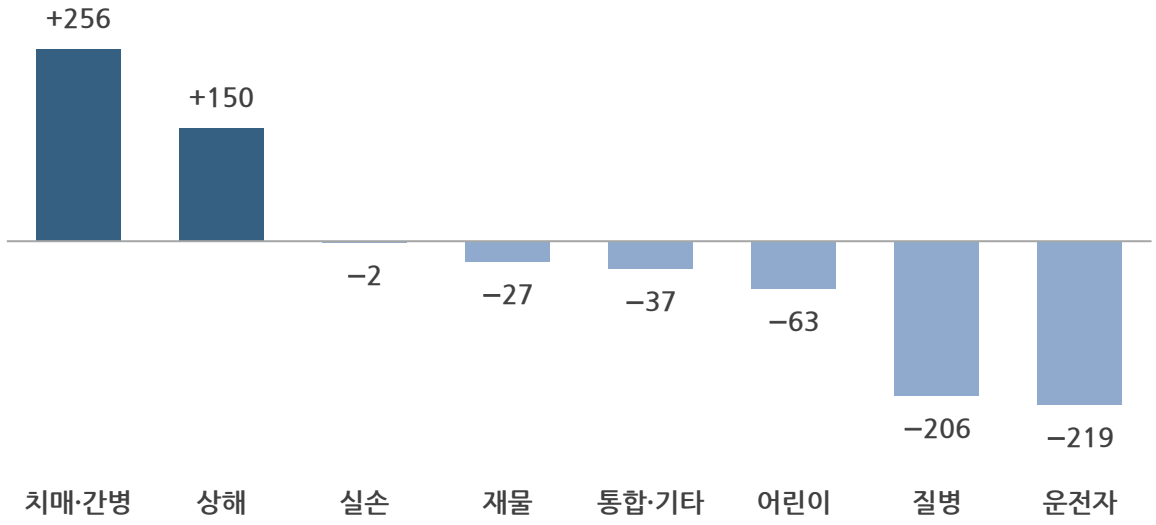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감(2026년 상반기)

(단위: 억 원)



주: 저축성보험 제외,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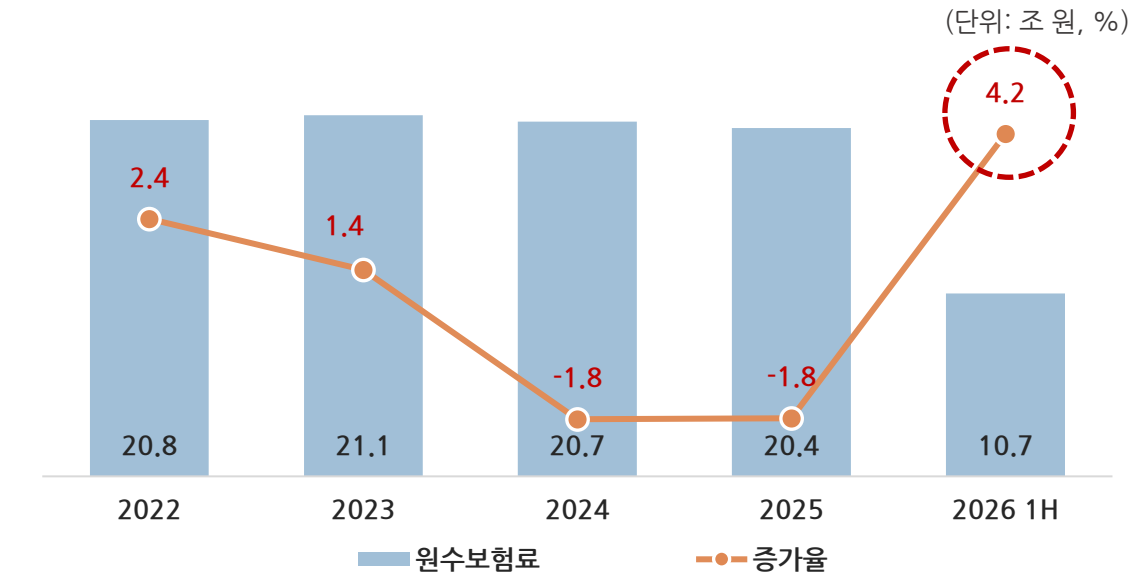
1. 성장성 ②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 영업손실 확대에 따라 2026년 초 자동차보험료가 1.3~1.4% 인상되면서 원수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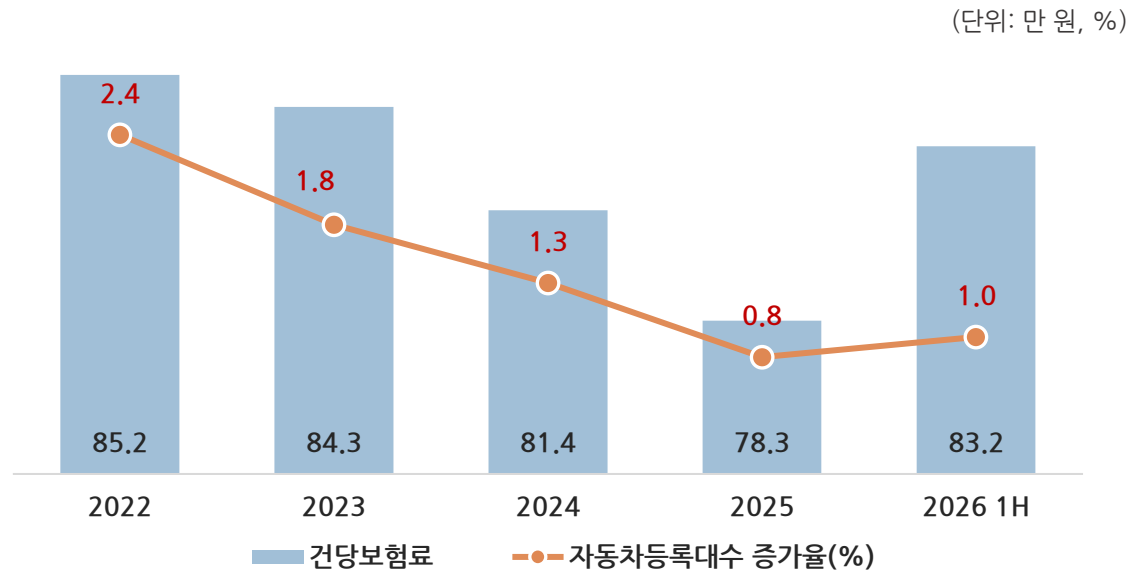
– 건당보험료는 2025년 78만 원에서 2026년 상반기(연환산 기준) 83만 원으로 상승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동차보험 등록대수 증가율 및 건당보험료



주: 누적 기준 손익과 손해율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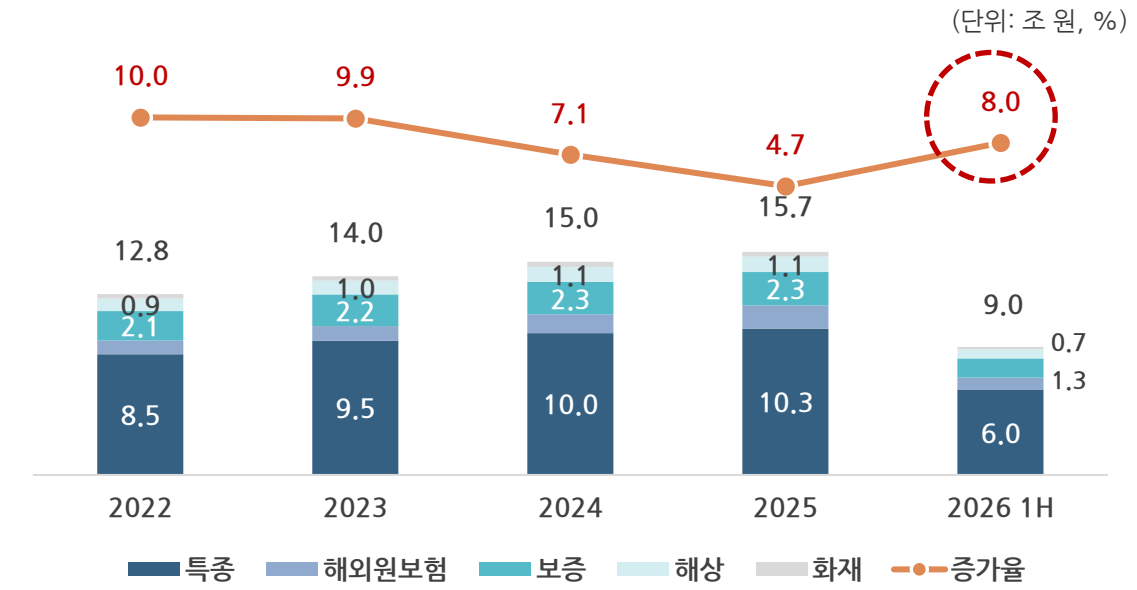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성장성 ②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 2026년 상반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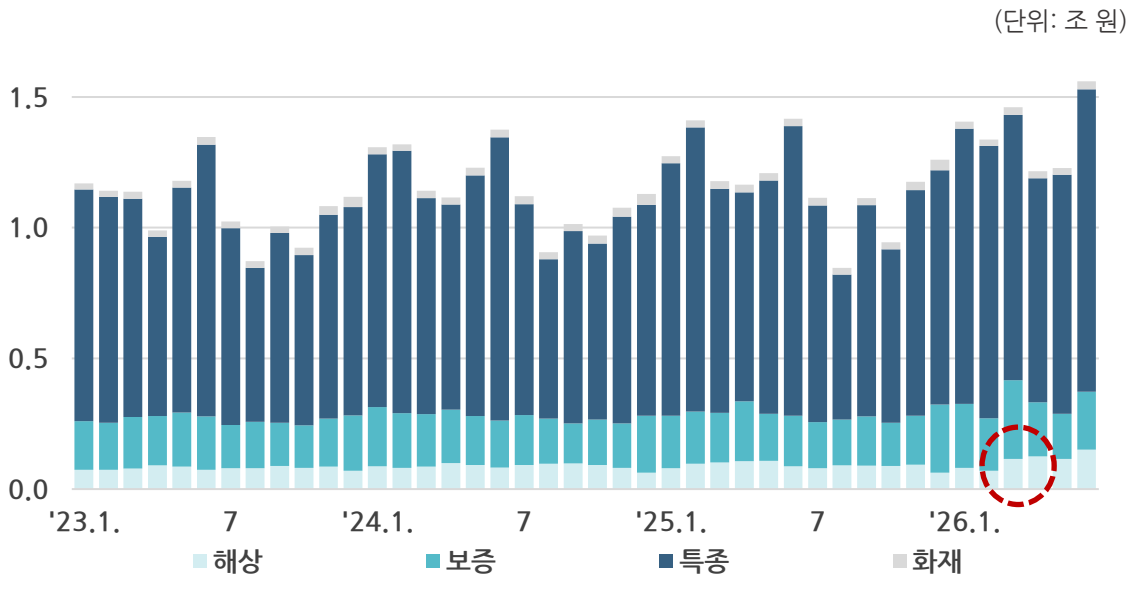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 및 기업성 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5.8% 증가하며 일반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함
- 해상보험(+13.6%)은 원화 약세와 전쟁위험 할증 등으로, 보증보험(+12.9%)도 크게 증가함
- 화재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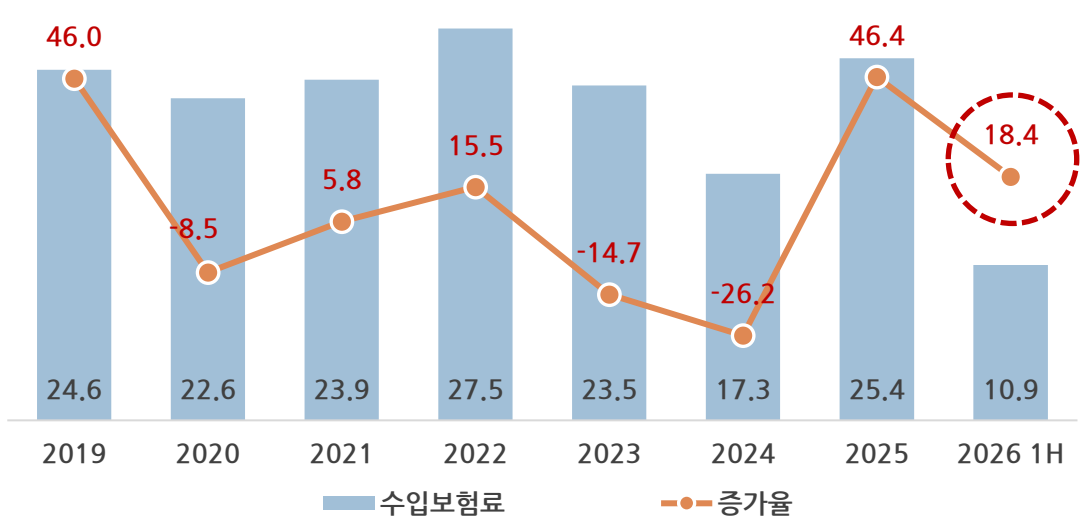
1. 성장성 ③ 퇴직연금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퇴직연금 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 24.1% 증가함

- 은퇴소득 확보 수요 증가 및 IRP 시장 확대 등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다만 실적배당형에 강점이 있는 증권업권의 적립금이 빠르게 늘면서 보험업권의 적립금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음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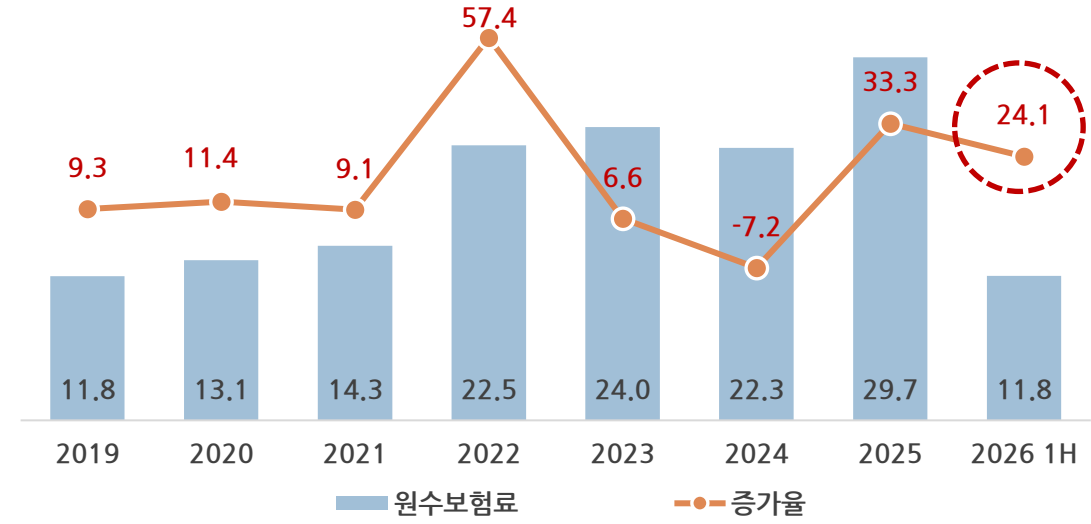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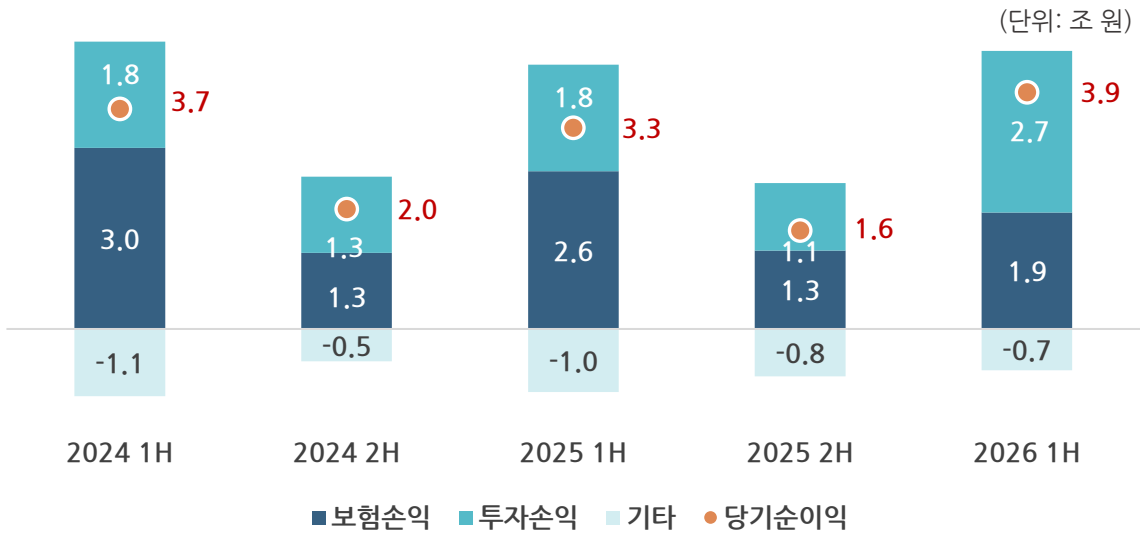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성 ①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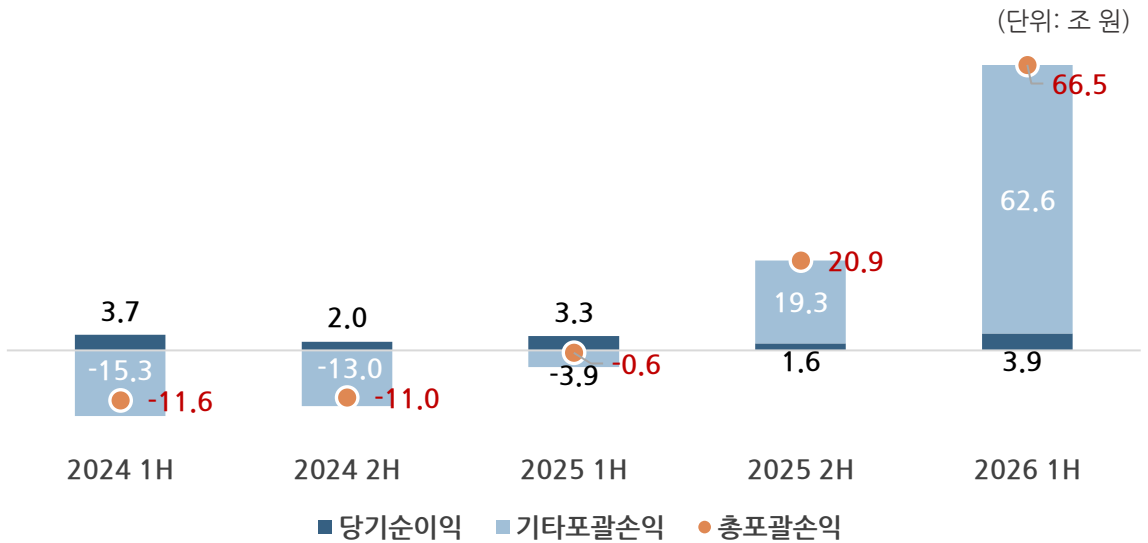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보험손익은 26% 감소하였으나, 투자손익이 52% 증가함
- **총포괄손익은 66.5조 원, 기타포괄손익이 62.6조 원을 기록함**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주: 기타는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비용의 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 총포괄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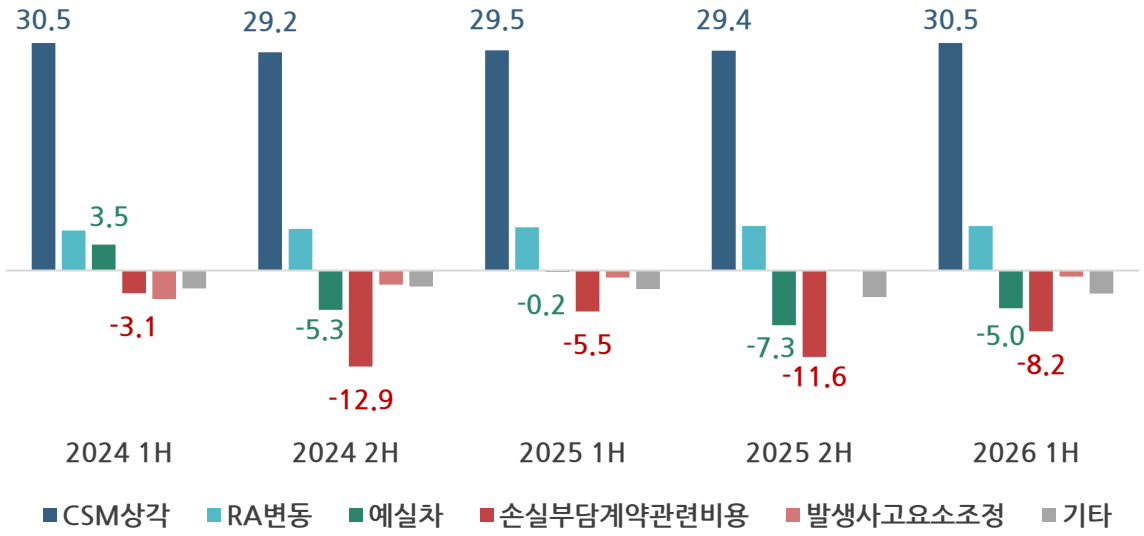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수익성 ① 생명보험: 보험손익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보험손익은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 원 감소함**
  - CSM 상각액은 0.1조 원 증가했으나, 예실차와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이 각각 0.5조 원, 0.3조 원 악화됨
- **2026년 6월 말 생명보험 CSM 규모는 6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생명보험 보험손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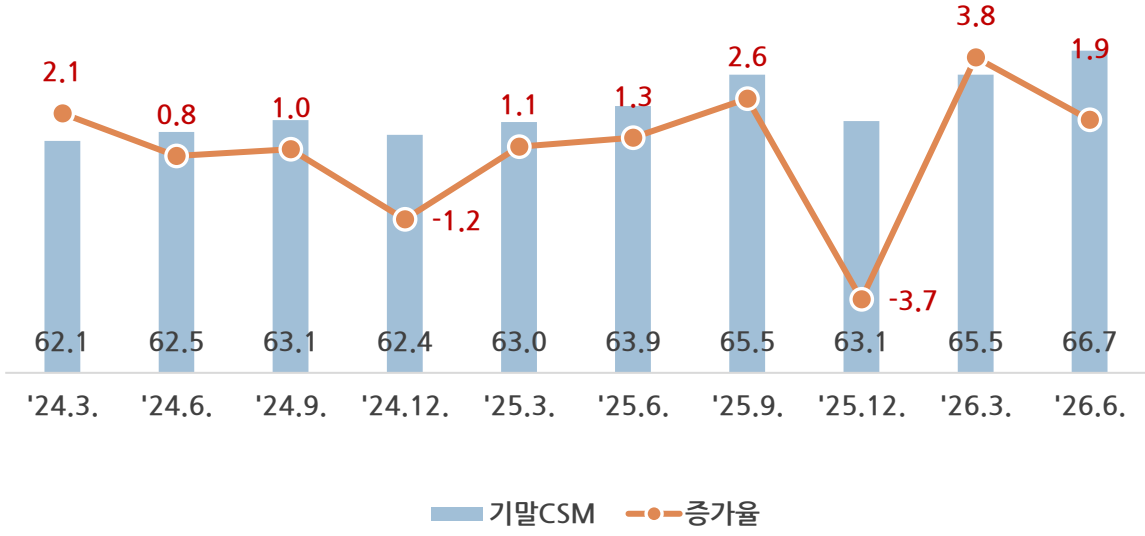
(단위: 천억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CSM 규모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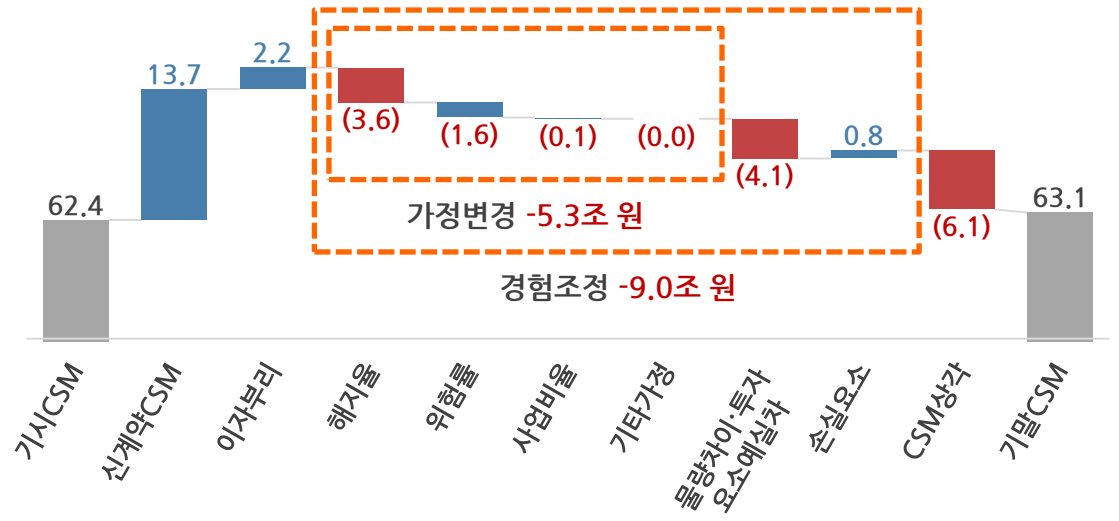
주: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성 ① 생명보험: CSM

- **생명보험 CSM 변동의 주요 요인은 신계약CSM(+), CSM상각(−), 가정변경(−), 물량차이(−)임**
  - 2025년 CSM 하락 변동에서 CSM상각, 가정변경, 물량차이는 각각 39%, 34%, 27%를 차지함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신계약 CSM 배수는 83.0%로, 전년 동기 대비 19.8%p 상승함**
  - 연납화초회보험료는 감소했으나 신계약 CSM은 증가함

생명보험 CSM 변동(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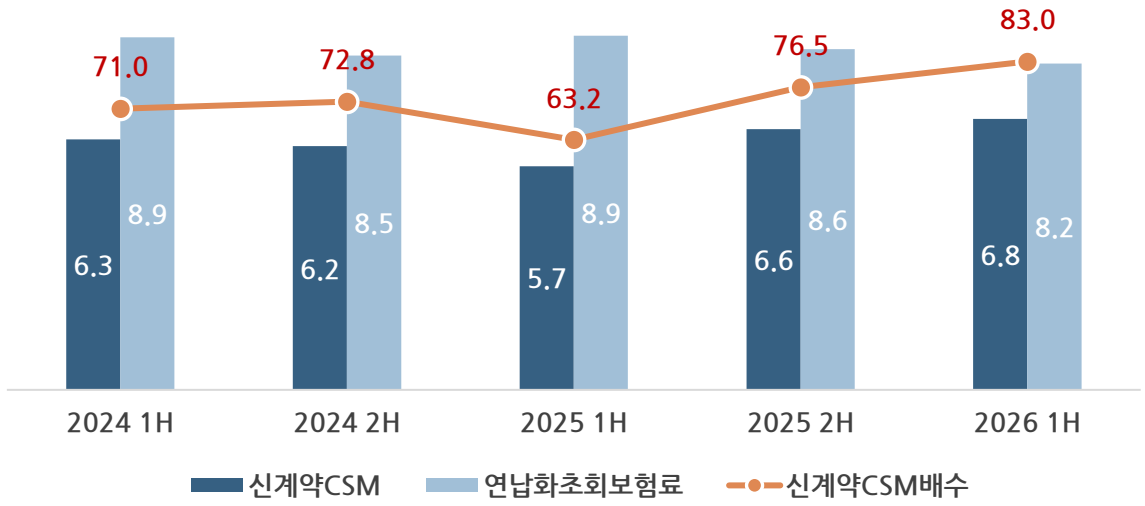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자료: 보험회사, 경영공시;「사업보고서」

생명보험 신계약 CSM 배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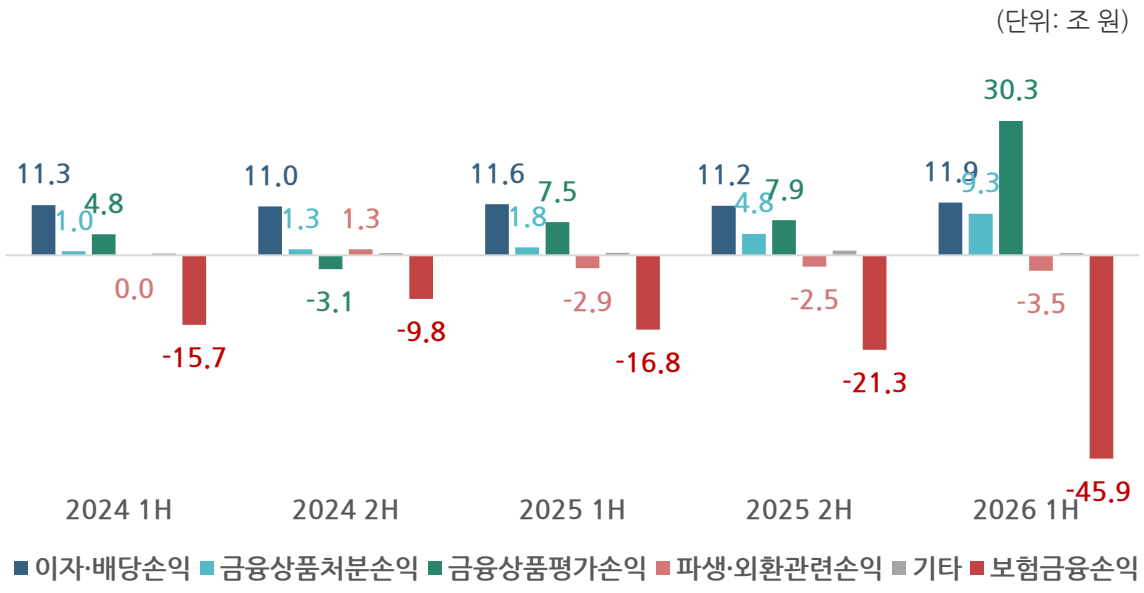


주: 사업보고서 분기 공시 보험회사 대상, 신계약CSM배수 = 신계약CSM/연납화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업무보고서」;「사업보고서」

2. 수익성 ① 생명보험: 투자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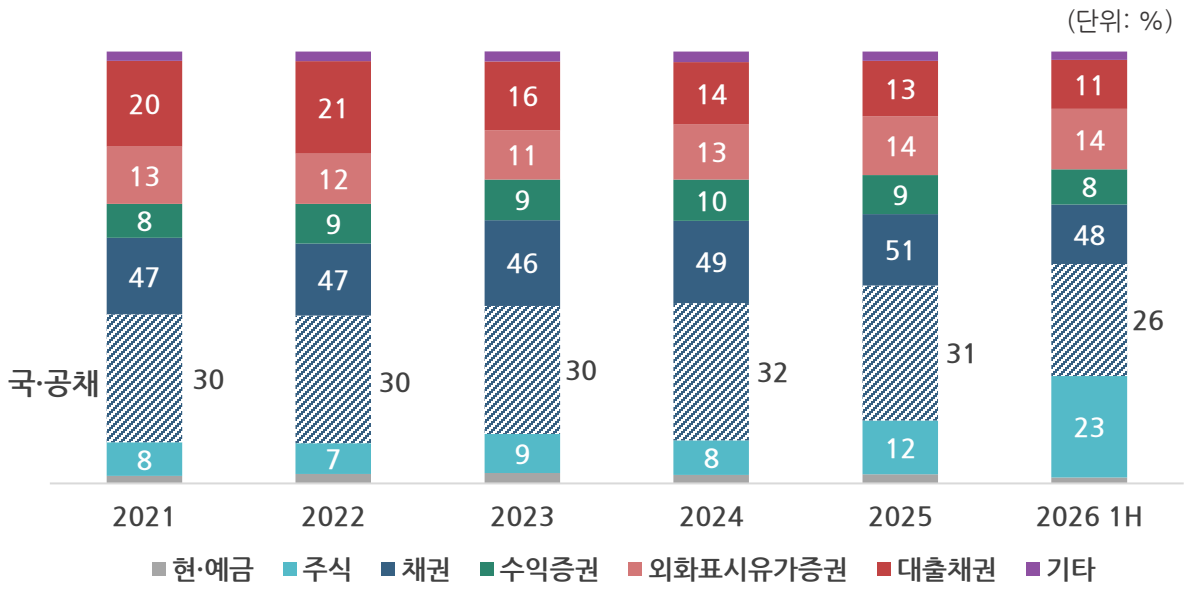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 투자손익은 2.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증가함**
  - 금융상품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이 각각 22.8조 원, 7.6조 원 증가한 반면, 보험금융손익이 29.1조 원 감소함
- **2026년 6월 말 생명보험 운용자산 비중은 채권(48%), 주식(23%), 외화표시유가증권(14%) 순임**
  - 주식 비중은 1년 전보다 확대된 반면, 채권 비중은 축소됨

생명보험 투자손익 구성



주: 금융상품평가손익은 금융상품손상차손을 포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운용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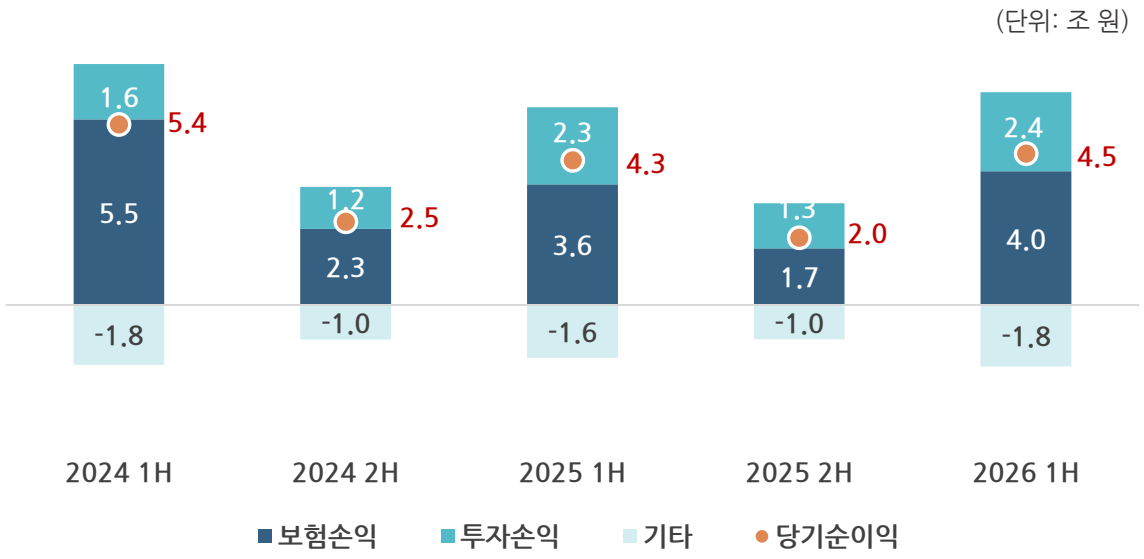


주: 2021~2022년은 IAS39/IFRS4 기준, 2023년 이후는 IFRS9/17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성 ②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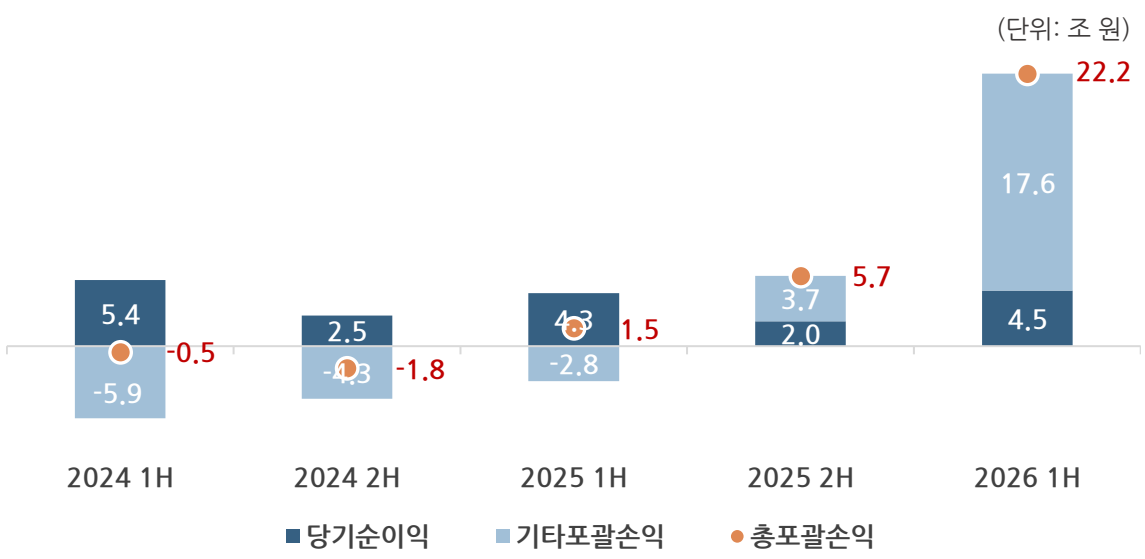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4.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함**
  -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각각 11%, 3% 증가함
- **총포괄손익은 22.2조 원이며, 기타포괄손익은 17.6조 원을 기록함**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기타는 영업외손익과 법인세비용의 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 총포괄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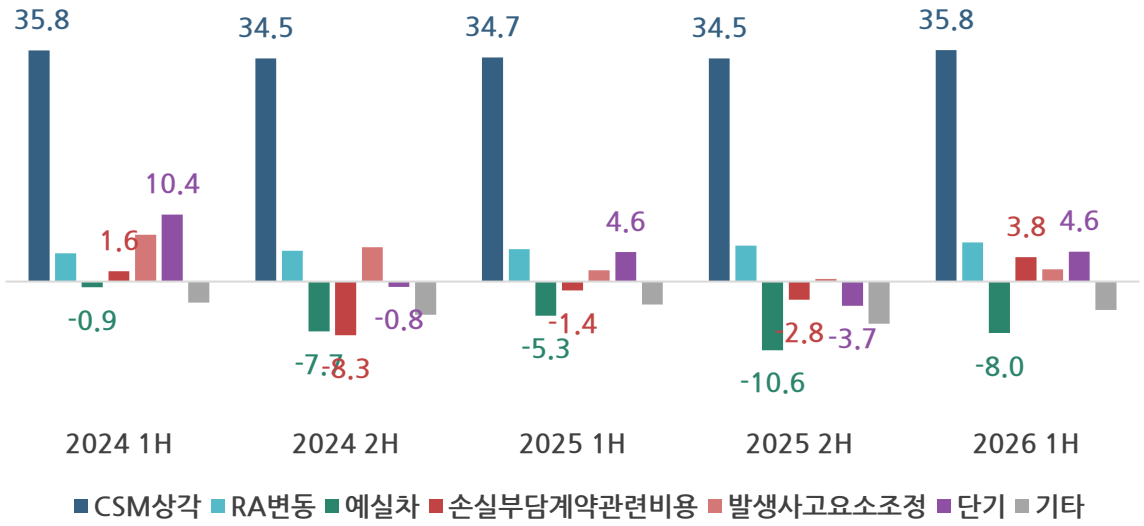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수익성 ② 손해보험: 보험손익

-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손익은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조 원 증가함**
  - 장기보험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이 환입으로 전환되며 0.5조 원 개선된 반면, 예실차는 0.3조 원 악화됨
  - CSM 상각액과 위험조정 변동이 0.2조 원 증가함
- **2026년 6월 말 손해보험 CSM 규모는 73.0조 원으로, 1년 전 대비 5.2% 증가함**

손해보험 보험손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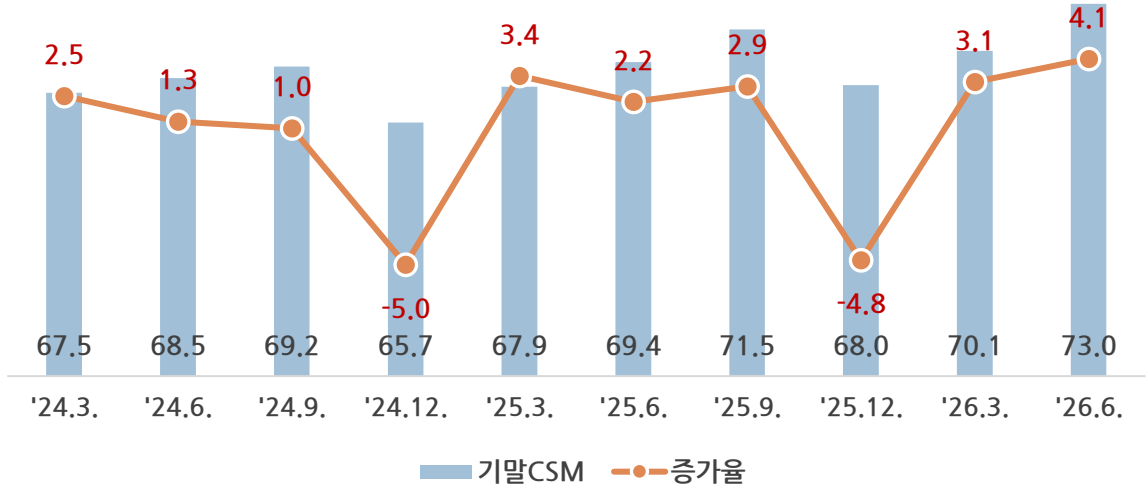
(단위: 천억 원)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CSM 규모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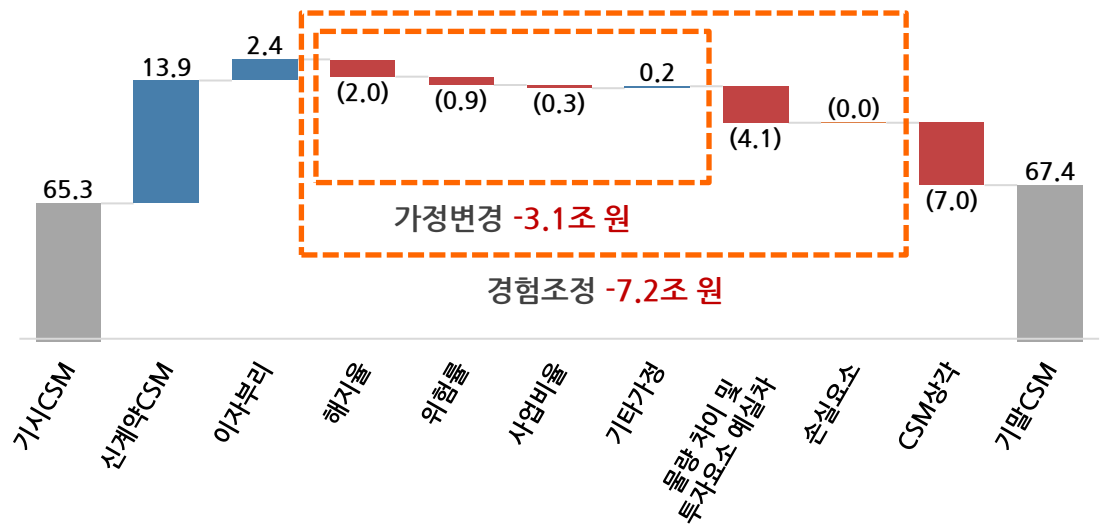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성 ② 손해보험: CSM

- **손해보험 CSM 변동의 주요 요인은 신계약CSM(+), CSM상각(−), 물량차이(−), 가정변경(−)임**
  - 2025년 CSM 하락 변동에서 CSM상각, 물량차이, 가정변경은 각각 49%, 29%, 22%를 차지함
-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신계약 CSM 배수는 14.3배로, 전년 동기 대비 1.2배 상승함**
  - 월납환산초회보험료는 9.8% 감소하였으며 신계약 CSM은 1.2% 감소함

손해보험 CSM 변동(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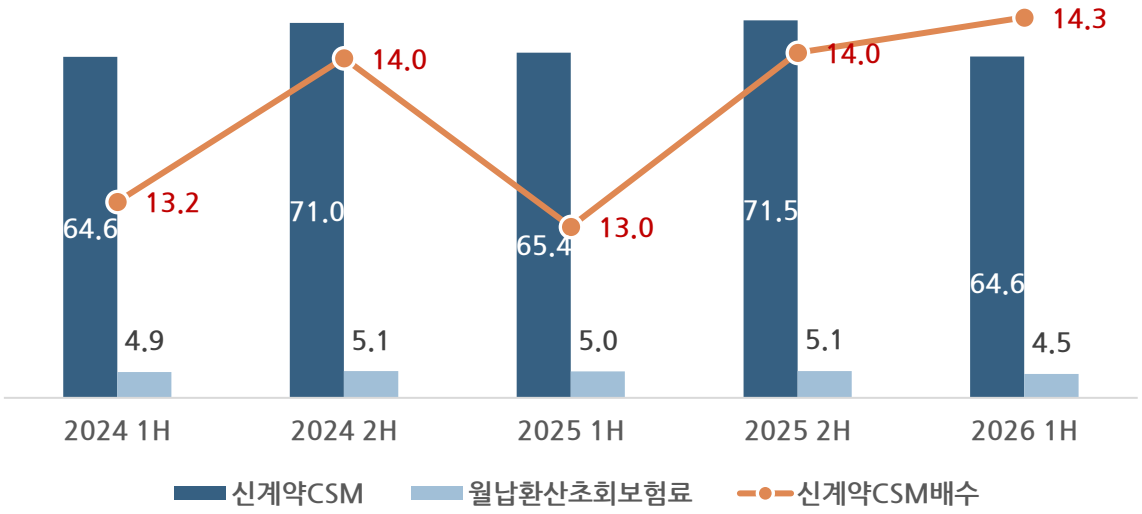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자료: 보험회사, 경영공시;「사업보고서」

손해보험 신계약 CSM 배수

(단위: 천억 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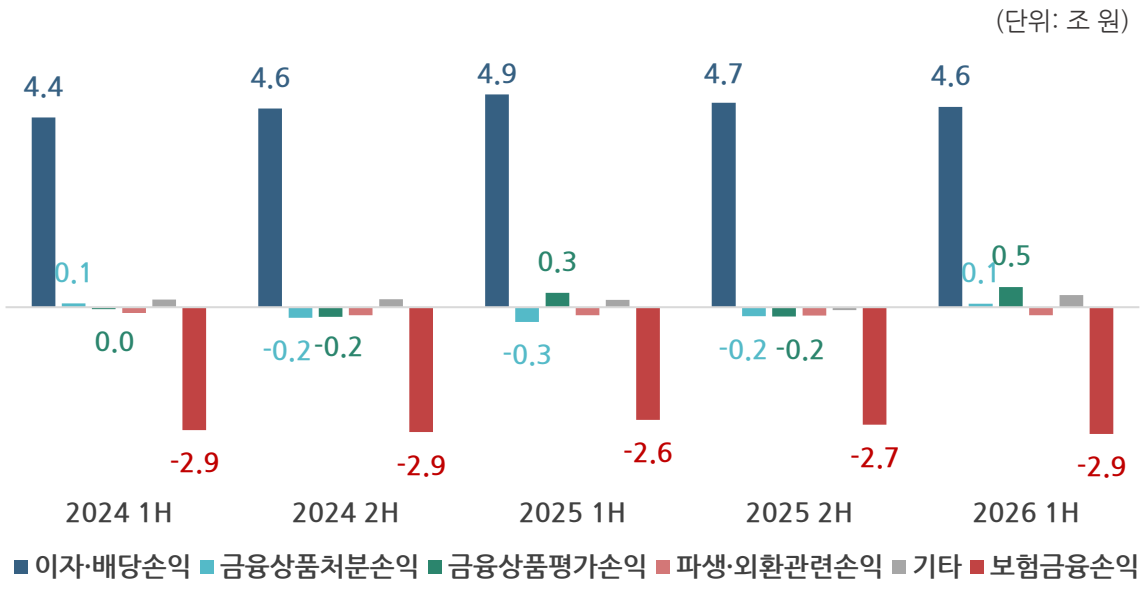


주: 사업보고서 분기 공시 보험회사 대상, 신계약CSM배수 = 신계약CSM/월납환산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업무보고서」;「사업보고서」

2. 수익성 ② 손해보험: 투자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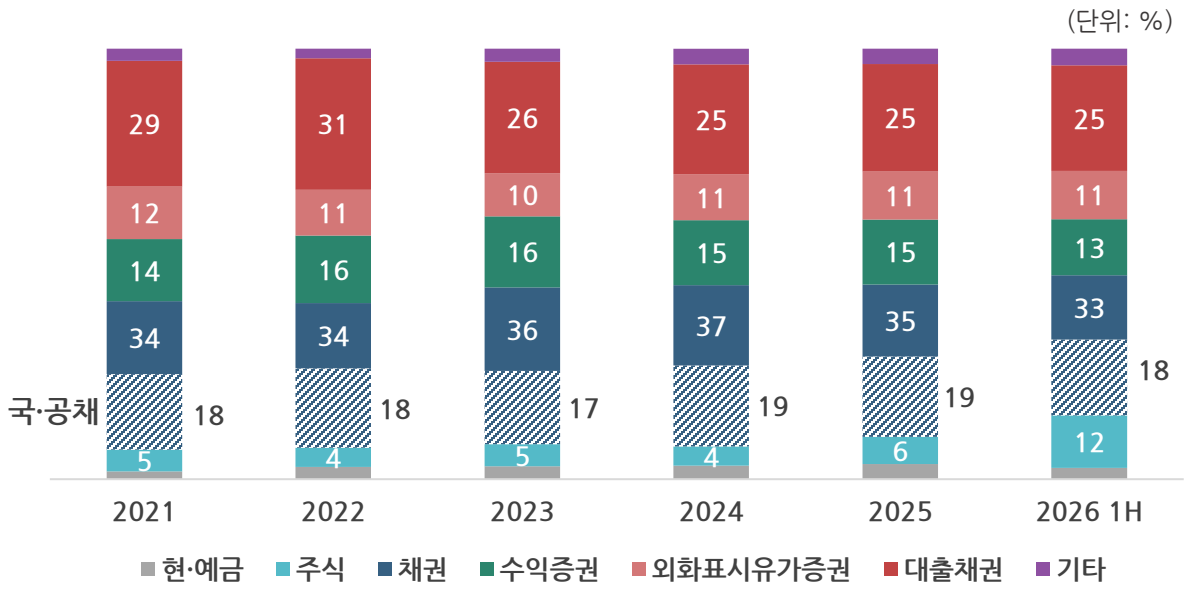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손해보험 투자손익은 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함**
  - 처분·평가손익이 0.6조 원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손익과 보험금융손익이 각각 0.3조 원 감소함
- **2026년 6월 말 손해보험 운용자산은 채권(33%), 대출채권(25%), 수익증권(13%)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주식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채권과 수익증권 비중은 감소함

손해보험 투자손익 구성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금융상품평가손익은 금융상품손상차손 포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운용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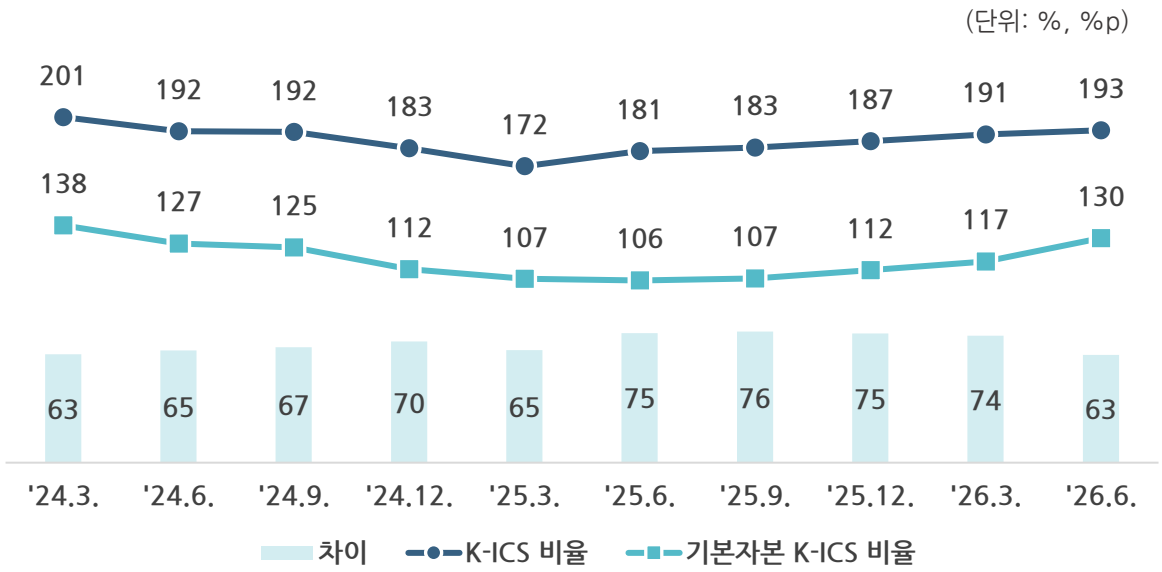
주: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2022년까지 IAS39/IFRS4 기준, 그 이후 IFRS9/17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건전성 ① 생명보험: K-ICS 비율

· 2026년 6월 말 생명보험 K-ICS 비율은 193%로, 전 분기 대비 2%p, 1년 전보다 1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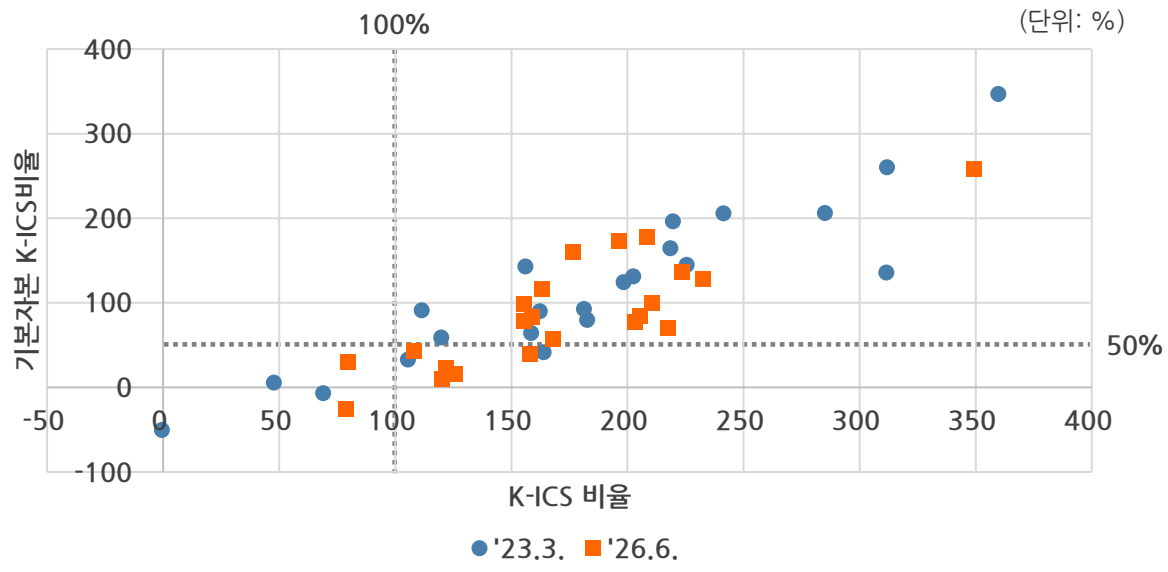
-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전 분기 대비 13%p, 1년 전보다 24%p 상승함
- 2023년 3월 말과 비교 시 22개사 중 13개사가 평균 46%p 하락함

생명보험 K-ICS 비율



주: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회사별 K-ICS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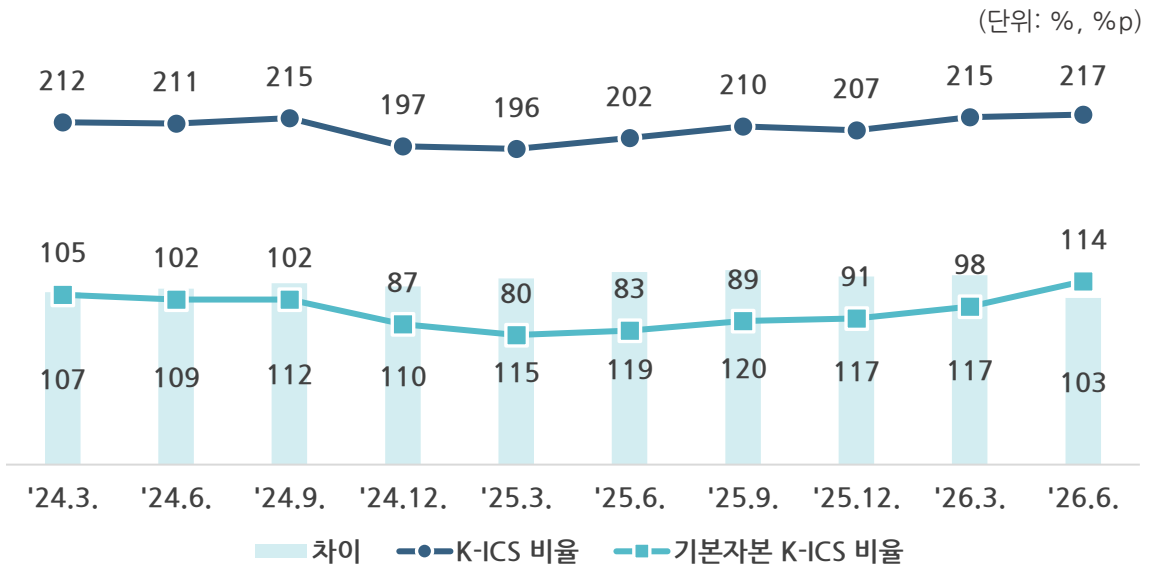
주: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건전성 ② 손해보험: K-ICS 비율

· 2026년 6월 말 손해보험 K-ICS 비율은 217%로, 전 분기 대비 2%p, 1년 전보다 14%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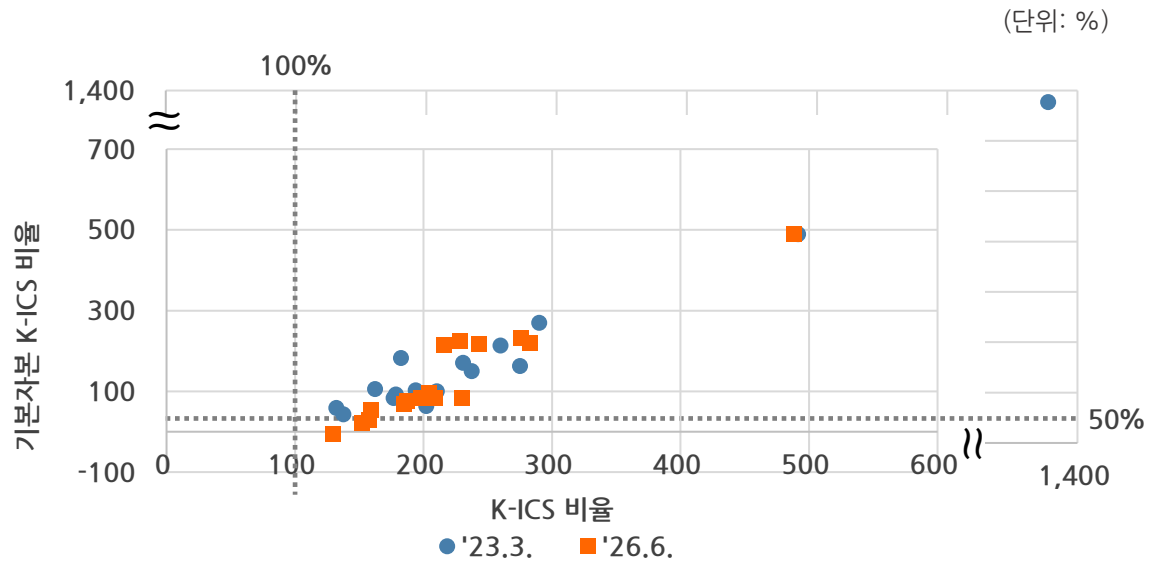
-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전 분기 대비 16%p, 1년 전보다 31%p 상승함
- 2023년 3월 말과 비교 시 16개사 중 10개사가 평균 53%p 하락함

손해보험 K-ICS 비율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회사별 K-ICS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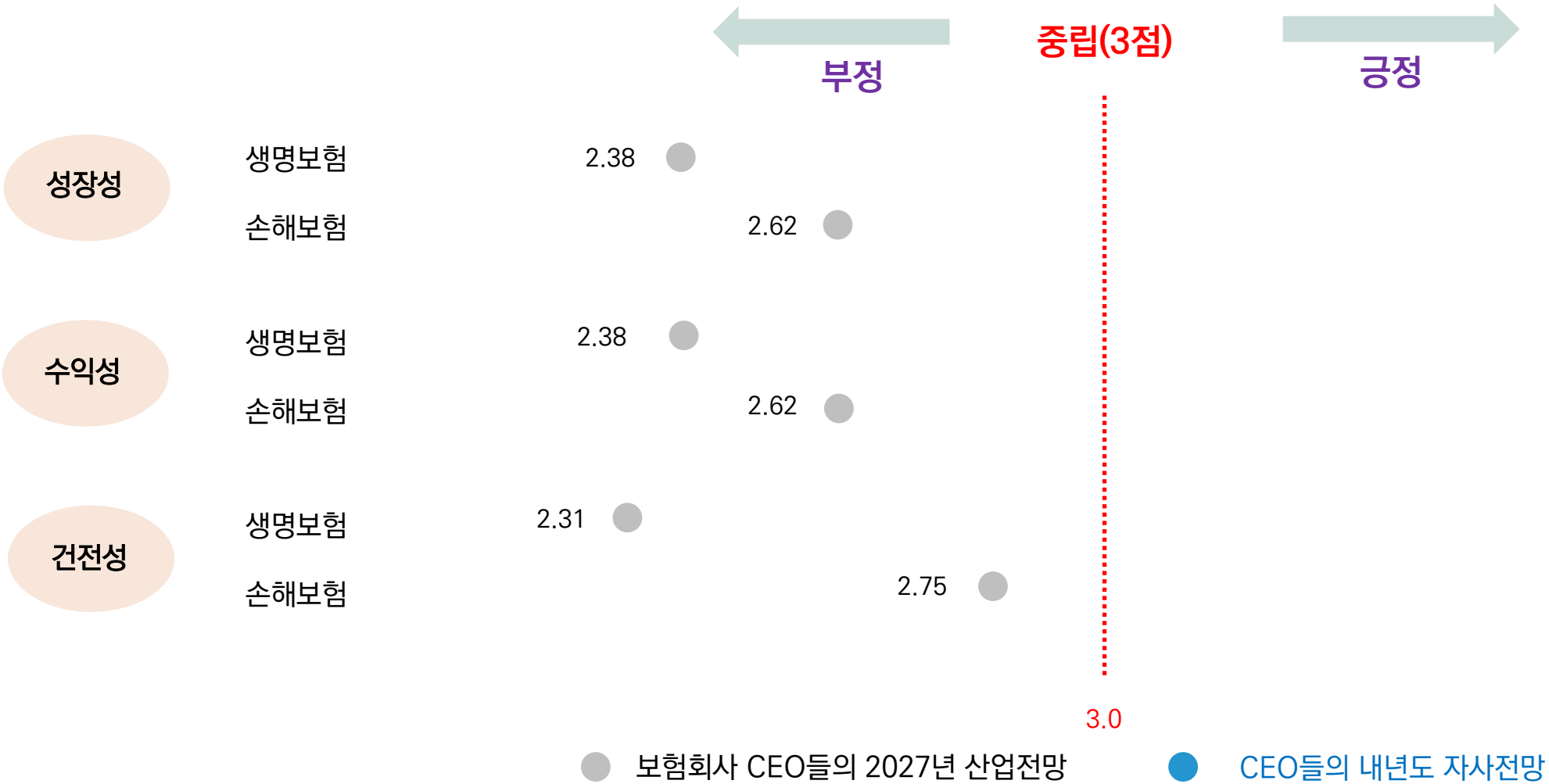
주: 2025년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기준,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Ⅲ

성장 제약요인

1. 영업구조
2. 수익구조
3. 자본구조
4. 효율성
5. 내부제약과 제도변화

국내 보험회사 CEO들의 2027년 전망



주: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산업전망과 자사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임(N=29)

최근 보험산업의 성과

· **보험산업의 최종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구성 항목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남**

- 당기순이익 증가는 보험손익이 아니라 투자손익(평가이익)에서 발생함
-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위험률차는 양 업권 음(-)으로 고착됨
- 자본 증가분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이며, 이익잉여금 증가는 미미함



당기순이익 ↑	CSM ↑	K-ICS비율 ↑
투자손익	신계약CSM	가용자본(평가이익)
보험손익	위험률차	이익잉여금

1. 영업구조: ① 상품 획일화 -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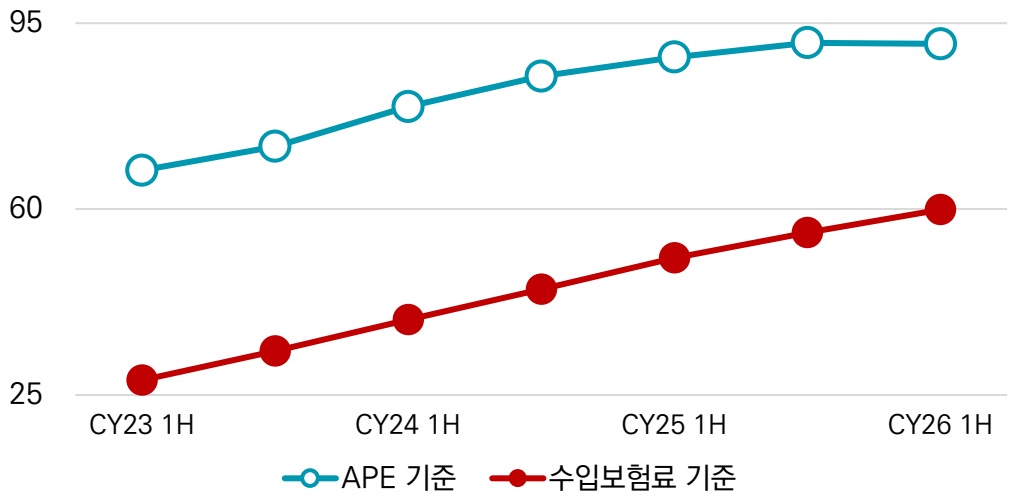
· 보험회사 매출이 CSM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집중됨

– 생명보험 매출은 보장성보험, 그중에서도 무저해지환급형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함

– 무저해지환급형은 해지 가정에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연동되어 가정 변동에 민감함

생명보험: 보장성상품 중 무 · 저해지환급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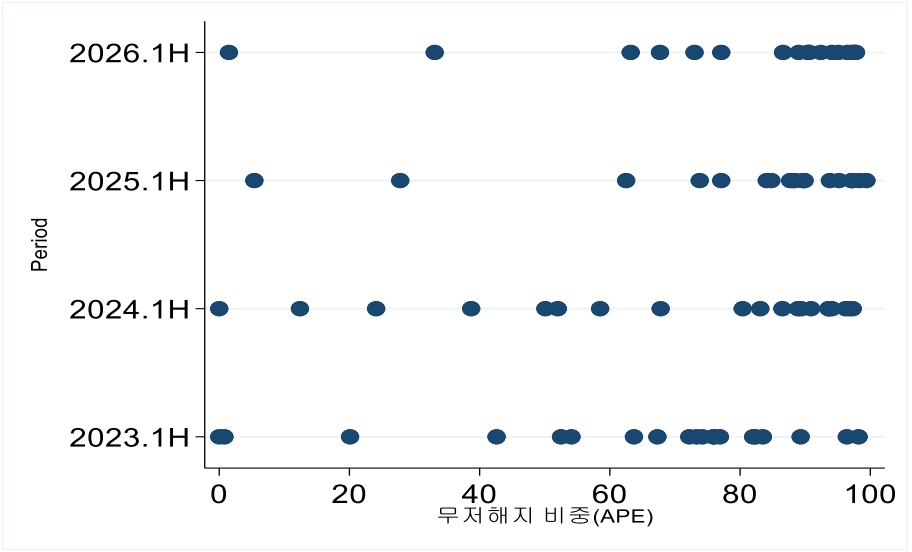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비중의 회사별 분포 변화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영업구조: ① 상품 획일화 - 손해보험

· 손해보험 매출은 장기보험으로 이동한 뒤 질병과 상해 두 담보로 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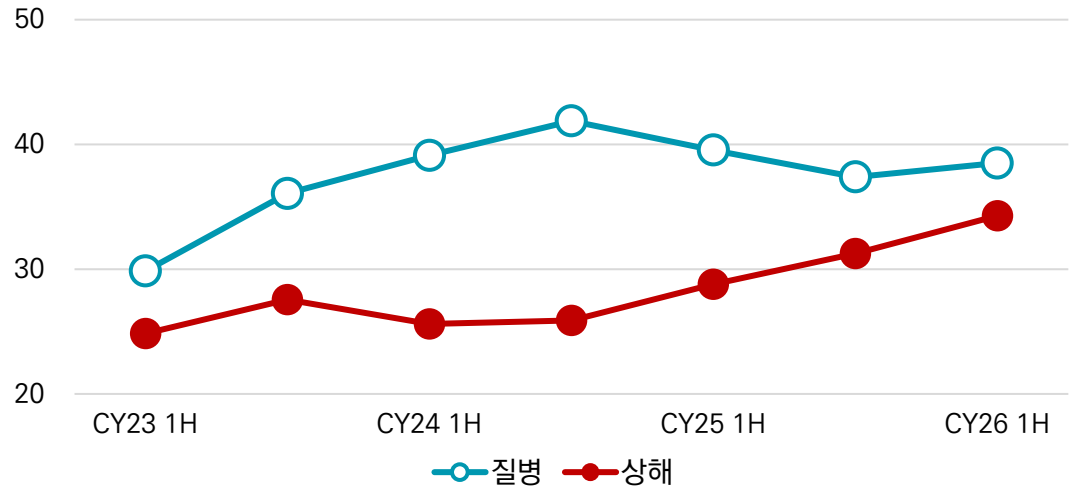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이 축소되고 장기보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질병·상해보험 집중도는 높아짐

– 질병보험에 쏠린 회사군과 상해보험에 쏠린 회사군 두 집단으로 나뉨

– 질병·상해보험은 위험률차 악화가 집중된 담보임

보장성상품 중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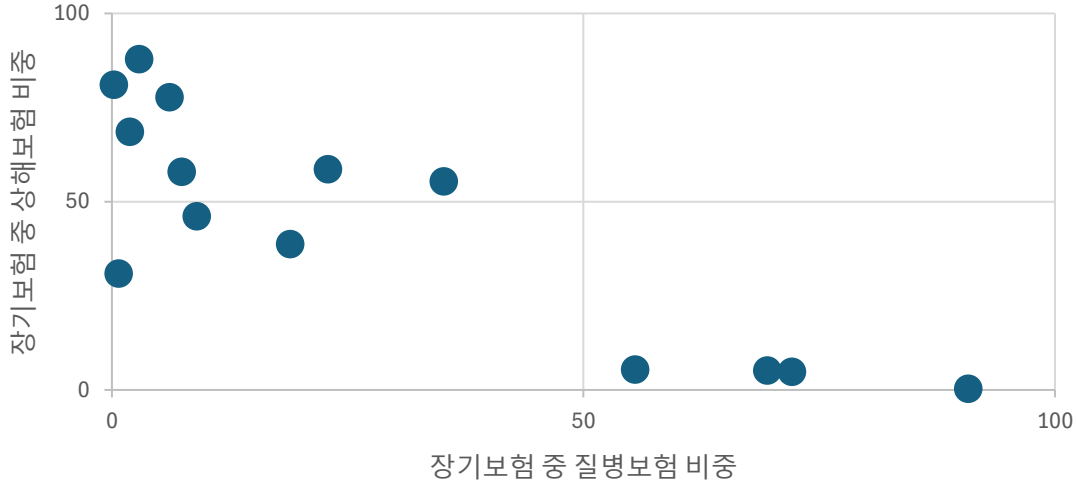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회사별 상품포트폴리오: 질병보험 vs. 상해보험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영업구조: ② 채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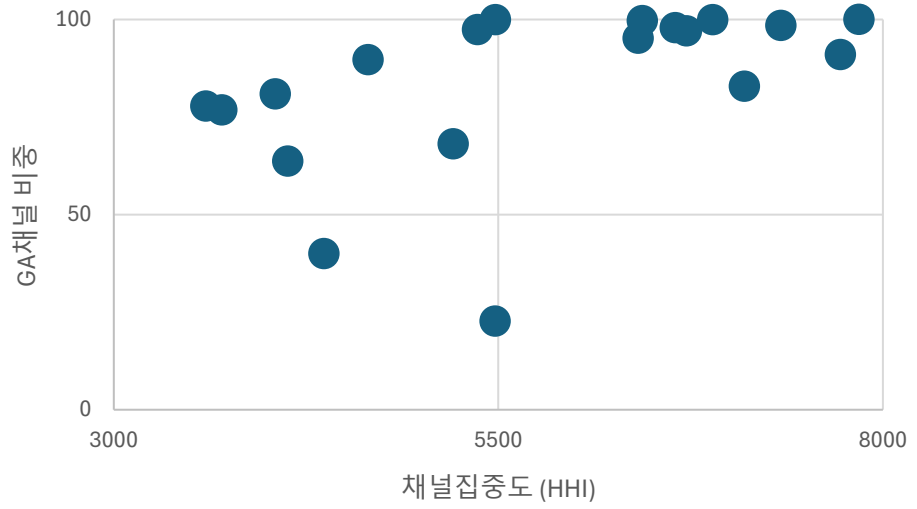
· 대면·GA채널 중심의 모집시장 구조 형성

– CM채널 비중은 미미하여 디지털 전환이 지연됨

– 보험 모집이 단일경로로 집중된 회사일수록 그 경로가 GA 채널로 나타남

채널 집중도 vs. GA채널 비중: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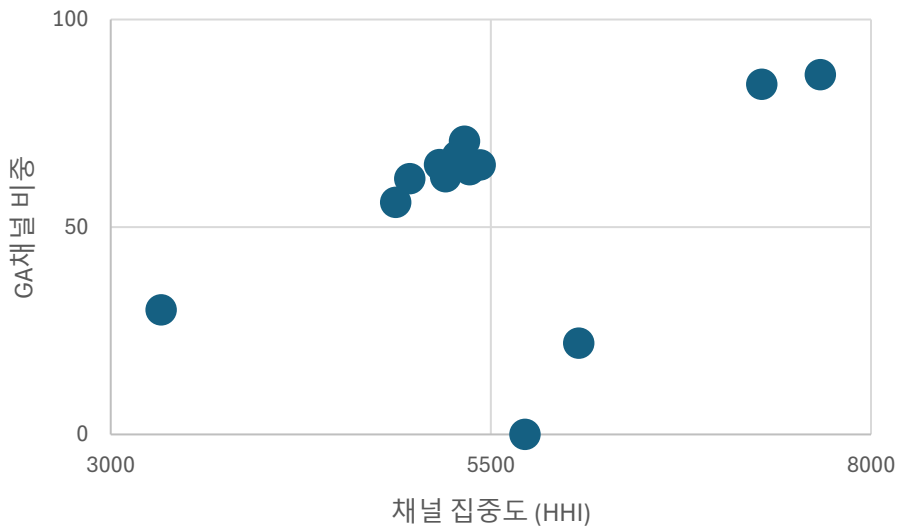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APE 기준임

채널 집중도 vs. GA채널 비중: 손해보험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APE 기준임

1. 영업구조: ③ 성장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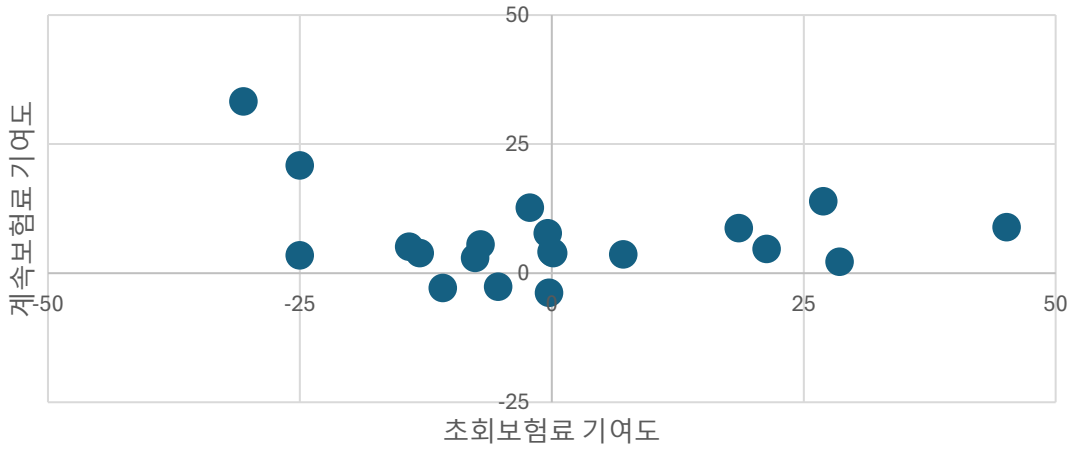
· 대다수 회사의 성장이 신규 계약(초회보험료)보다는 보유 계약(계속보험료)에서 발생

– 분포가 좌상단에 집중되어 신계약 기여는 작고 계속보험료 기여가 큰 회사가 다수임

– 생명보험 성장에서 초회보험료 기여도는 줄어들고 있음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여도 vs. 계속보험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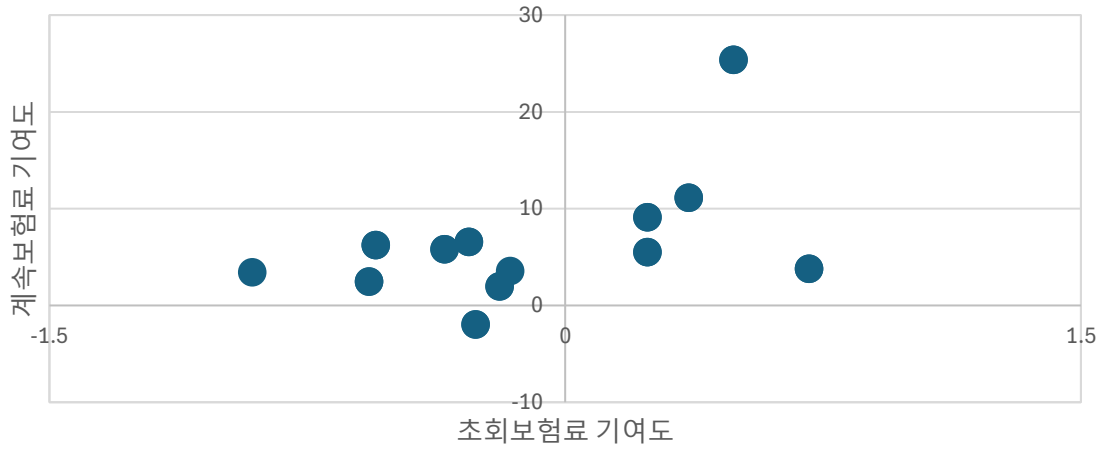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여도 vs. 계속보험료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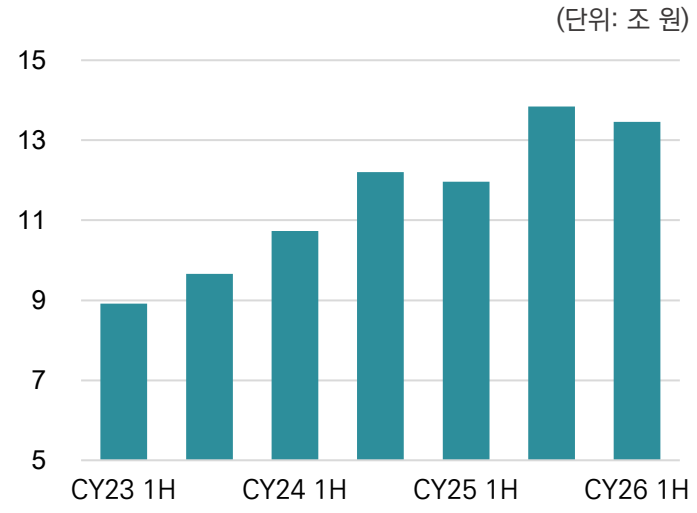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1. 영업구조: ④ 비용성격 변화 - 생명보험

· **생명보험산업은 사업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성과 분포가 함께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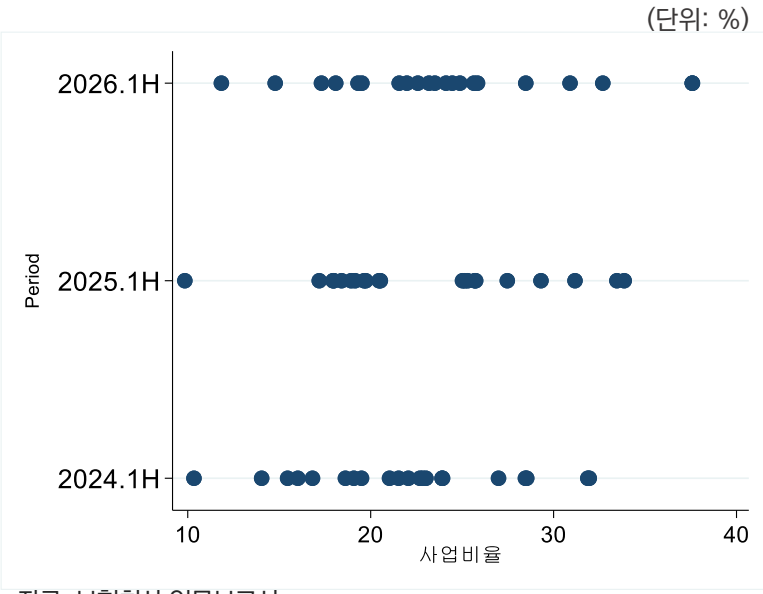
- 전체 사업비 증가율은 매출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판매촉진비 증가율이 이를 크게 웃돎
- 비례수당 비중은 하락하여, 성과연동 보상에서 선지급·시책성 지출로 성격이 변화함
- 사업비율은 중위값보다 상위 25% 구간에서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비용증가가 일부 회사군에 집중됨

생명보험 실제사업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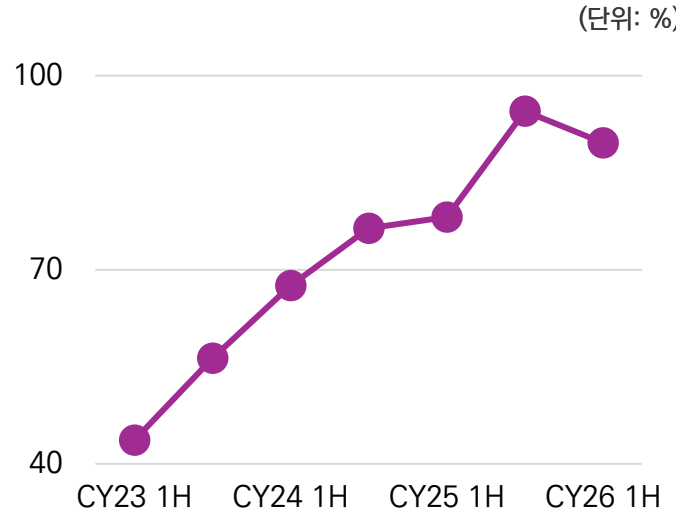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사업비율 회사별 분포 변화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사업비 항목의 변화: 판촉비



주: 비례수당 대비 판촉비 비중임

1. 영업구조: ④ 비용성격 변화 -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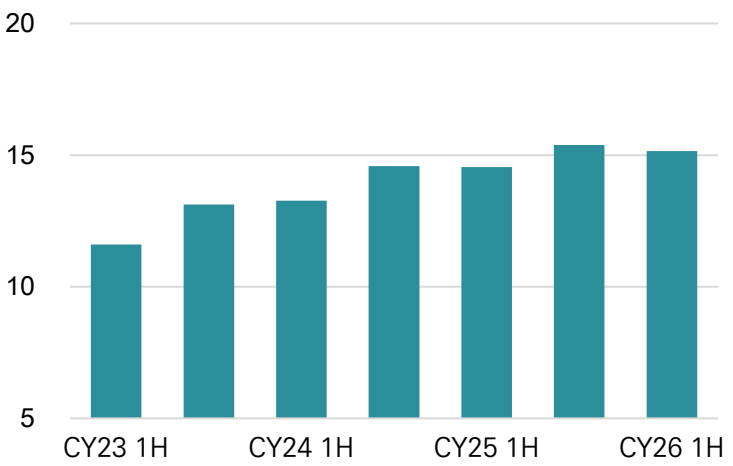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은 사업비 총량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나, 분포의 분화는 뚜렷함**

– 사업비율 중위값보다 상위 25% 구간에서의 변화가 두 배가량 빠르게 상승함

– 판매촉진비 비중은 하위 25% 구간에서는 변화가 미미하나, 상위 25% 구간에서는 크게 상승함

손해보험 실제사업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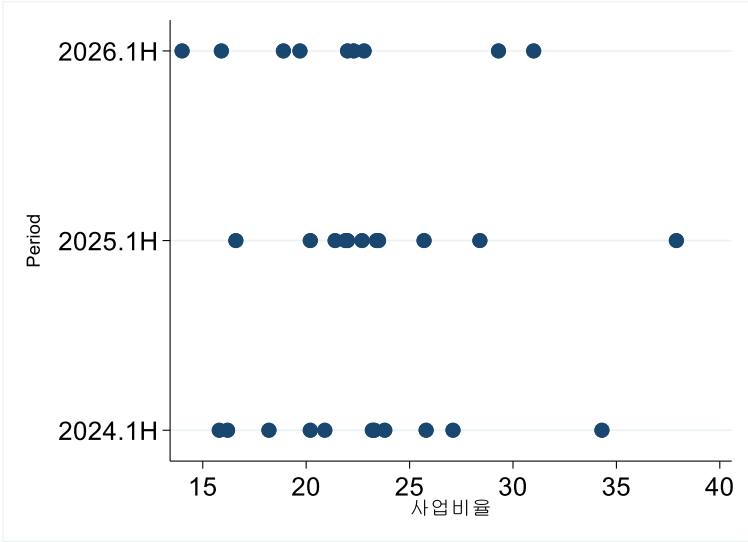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사업비율 회사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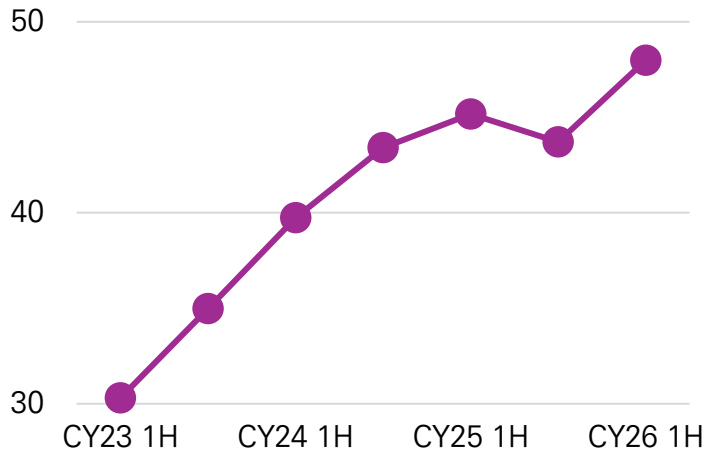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사업비 항목의 변화: 판촉비

(단위: %)



주: 비례수당 대비 판촉비 비중임

2. 수익구조: ① 본업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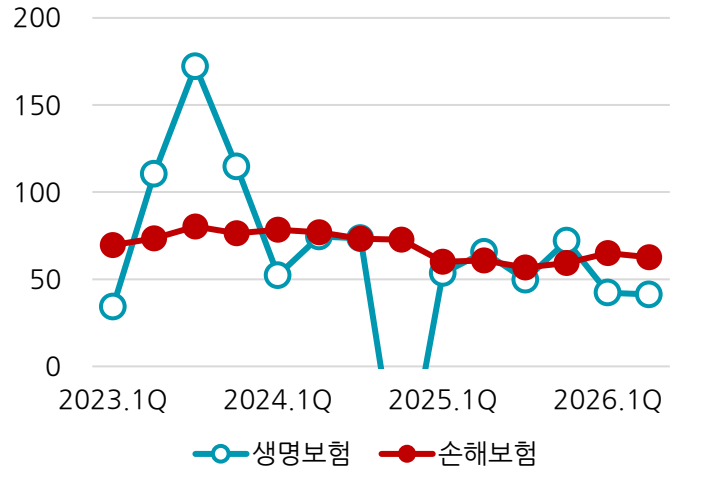
· 영업이익에서 보험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권별로 크게 대비됨

– 손해보험이 61.5%, 생명보험이 40.1%이며, 추세와 변동폭은 업권별로 차이를 보임

– 생명보험은 산점도가 특정 방향으로 모이지 않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상호 보완 기능이 미미함

영업이익 대비 보험손익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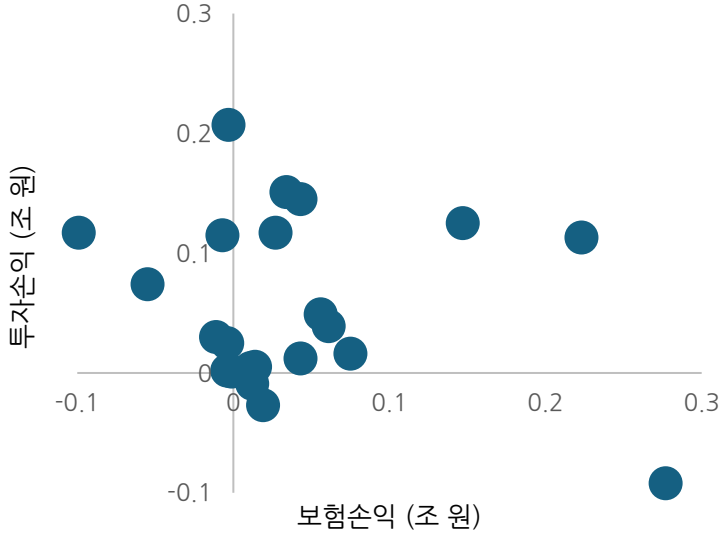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보험손익 vs. 투자손익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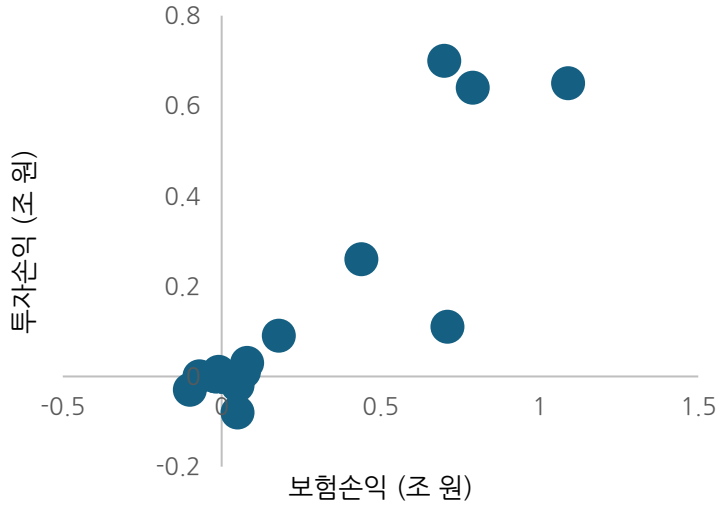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보험손익 vs. 투자손익

(단위: 조 원)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구조: ② 가정의 이탈

· **보험손익 감소의 원인은 가정에 놓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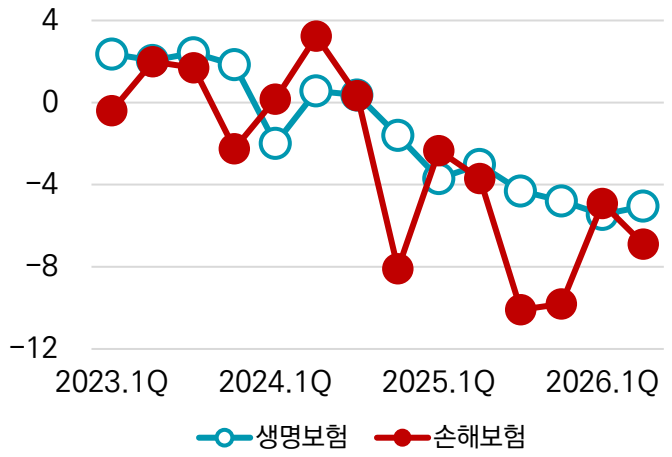
– 양 업권 모두 위험률차는 악화 추세이며, 2024년 4분기 이후 음(–)의 위험률차율이 고착됨

– 생명보험은 분포가 전반적으로 하향 이동하여 산업 공통의 악화 양상을 보임

– 손해보험은 분포가 하향 이동하는 동시에 좌우로 확대되어 회사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임

위험률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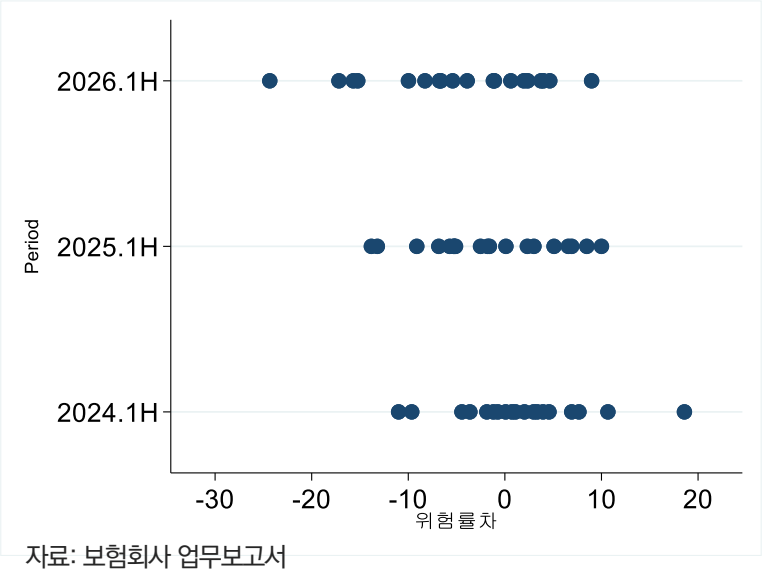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위험률차율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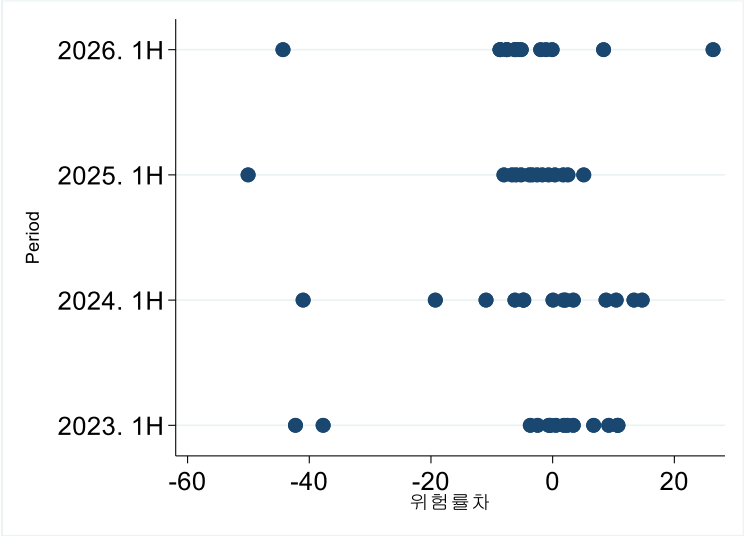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위험률차율 분포 변화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구조: ③ CSM 축적의 한계

· CSM 잔액은 증가하나 축적의 질은 악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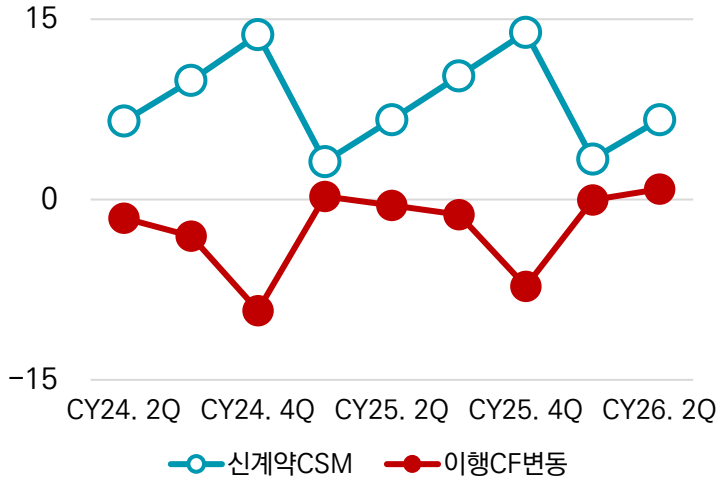
– 성장의 딜레마: 신규 판매가 많은 분기일수록 가정·경험조정에 따른 CSM 감소폭이 확대됨

– 성장과 자본의 상충: CSM 증가는 보험위험액 증가를 거쳐 요구자본 부담으로 이어짐

– 다만 상품별 이행현금흐름 추세는 차이를 보임

신계약CSM과 이행CF: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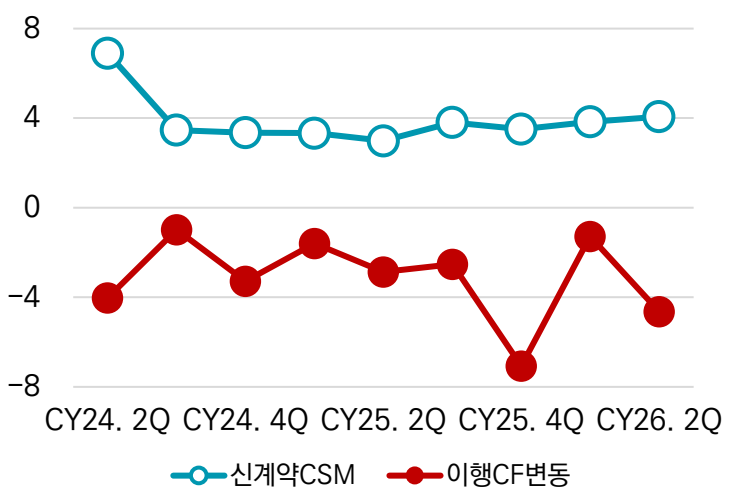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신계약CSM과 이행CF: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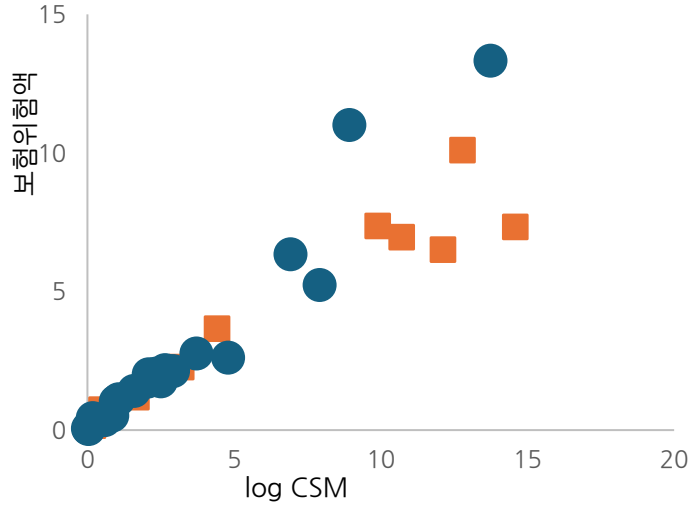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CSM과 보험 위험액

(단위: 조 원)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수익구조: ④ 자산 대응력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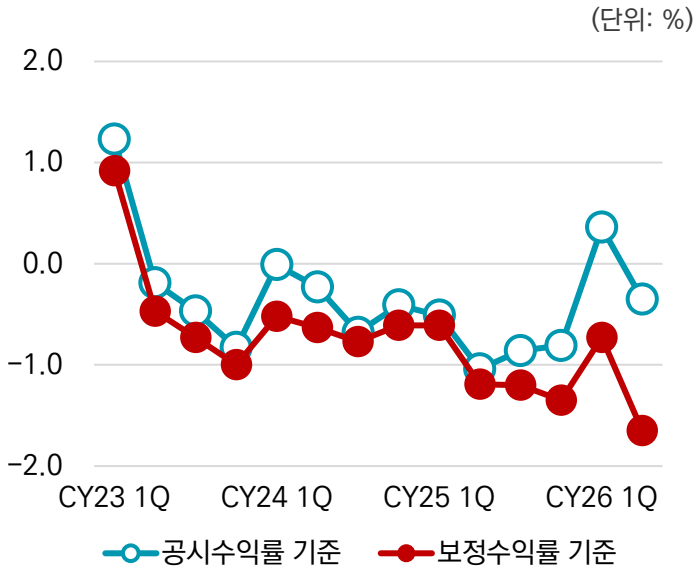
· **보험손익 부진 시 투자손익이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기준 흑자이나 고금리 계약군은 적자이며 해당 계약의 66%가 잔존만기 20년 이상임

– 손해보험은 대출채권이 운용자산의 20%대이며, 그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대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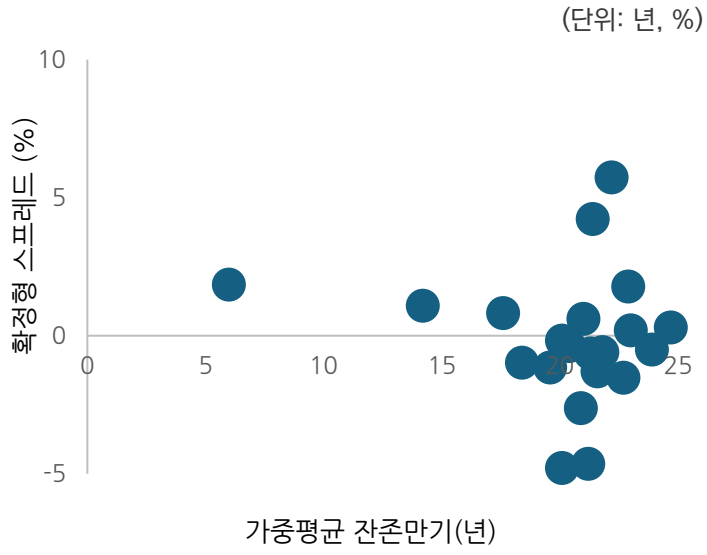
– 중소기업 대출비중의 회사별 편차가 크고 상위회사는 운용자산의 1/3을 상회함

생명보험: 스프레드 (수익률-적립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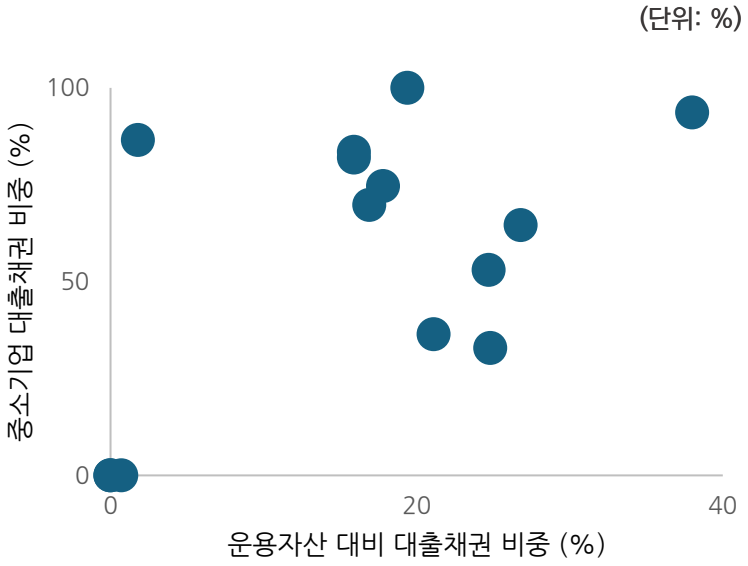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보 역마진: 잔존만기·확정형스프레드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중소기업 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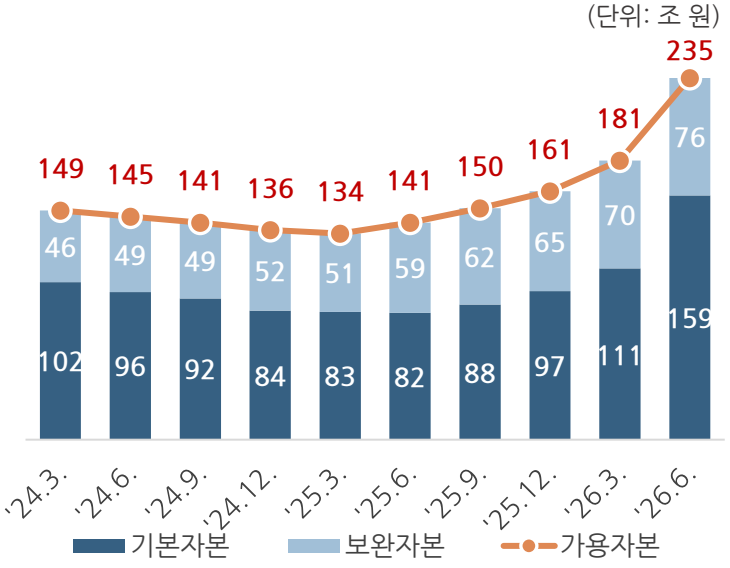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자본구조: ① 자본의 양과 질 - 생명보험

· 생명보험산업의 가용자본은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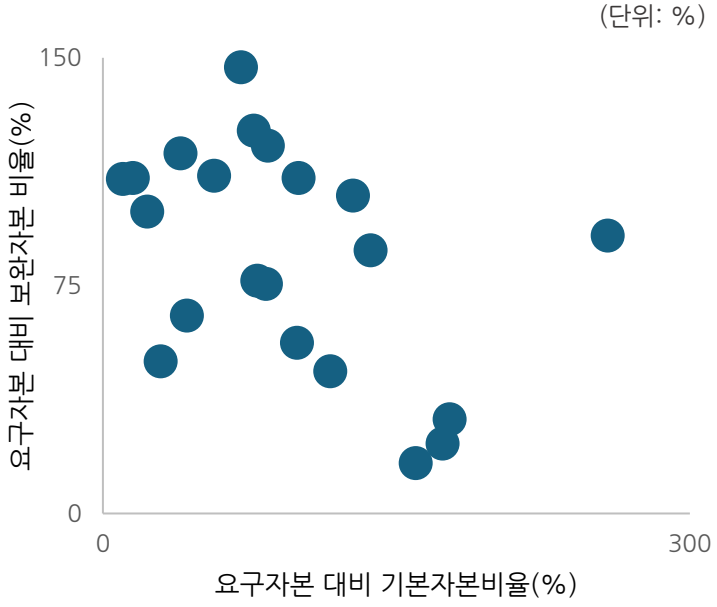
- 가용자본은 235조 원으로 전년 대비 94조 원 증가하였으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비중은 7:3 수준임
- 기본자본 비중 상승은 평가이익이 기본자본에 산입된 결과이며, 영업을 통한 자본 축적은 제한적임
- 회사별 분포에서 기본자본비율의 편차가 확대되어 자본 구성의 회사 간 차이가 커짐

생명보험 가용자본 계층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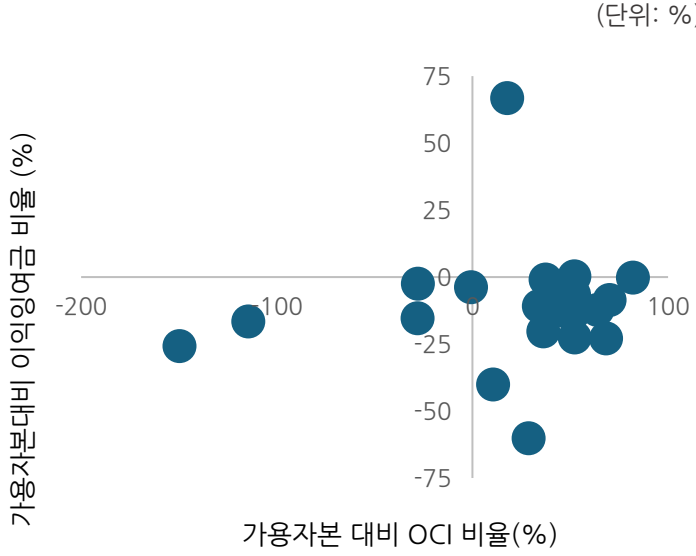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기본자본비율 vs. 보완자본비율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이익잉여금 비중 vs. OCI 비중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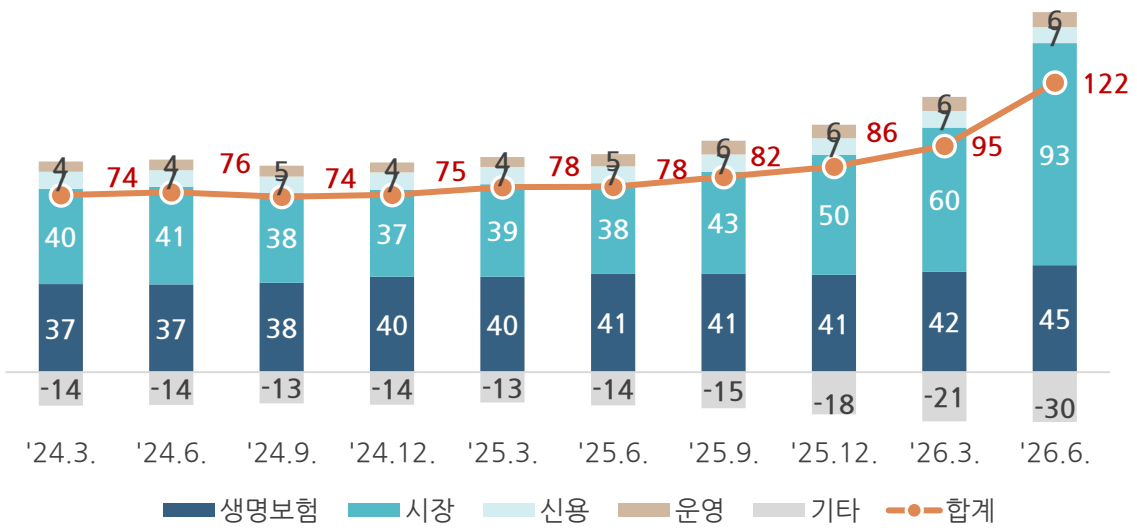
3. 자본구조: ② 위험의 이동 - 생명보험

· 요구자본 증가는 보험위험이 아닌 시장위험이 주도

- 요구자본은 전년 대비 44조 원 증가하였으며, 시장위험액이 전체의 62%를 차지함
-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위험구성 자체가 이동하고 있음
- 주가 상승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동시에 증가시켜 K-ICS 순효과는 상쇄되고 민감도만 상승함

생명보험 요구자본 세부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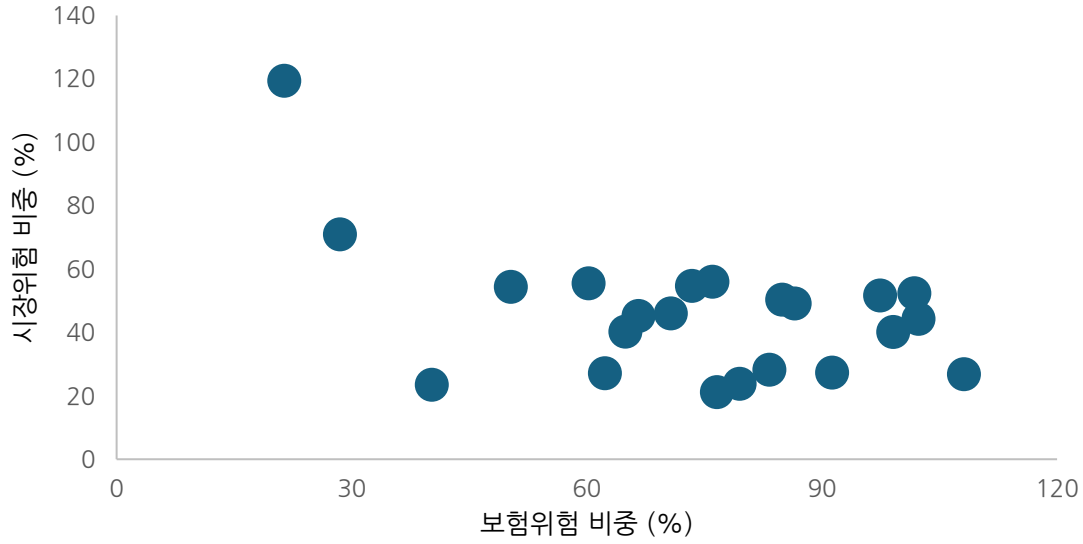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분산효과 반영, 기타는 법인세조정액과 기타요구자본의 합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3. 자본구조: ③ 자본의 양과 질 -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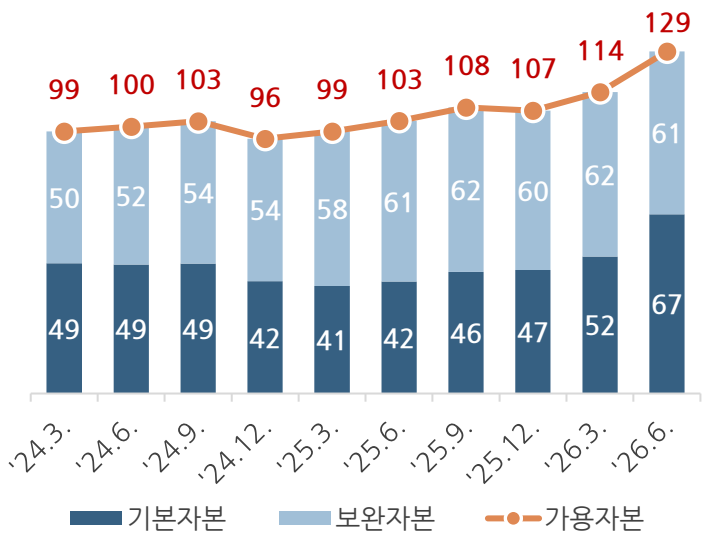
· 손해보험 가용자본도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원천 역시 평가이익임

– 가용자본은 1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기본자본 비중이 11%p 상승함

– 회사별 분포에서 이익잉여금 비중이 낮고 기타포괄손익(OCI)이 음수인 회사들의 경우 자본의 질이 가장 취약함

손해보험 가용자본 계층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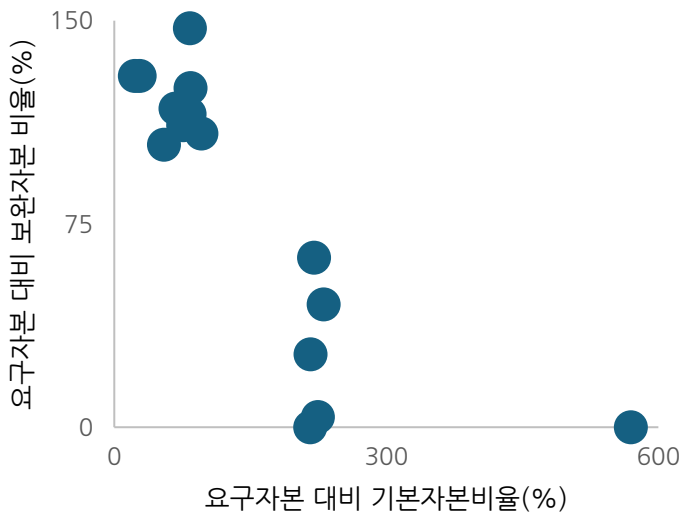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요구자본 대비 기본·보완자본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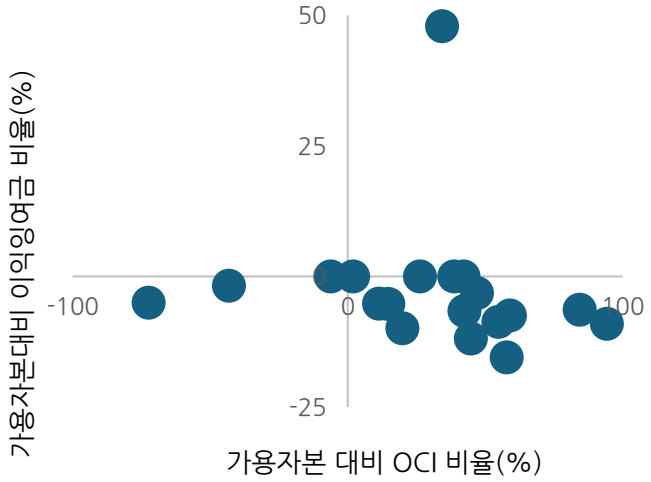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이익잉여금 비중 vs. OCI 비중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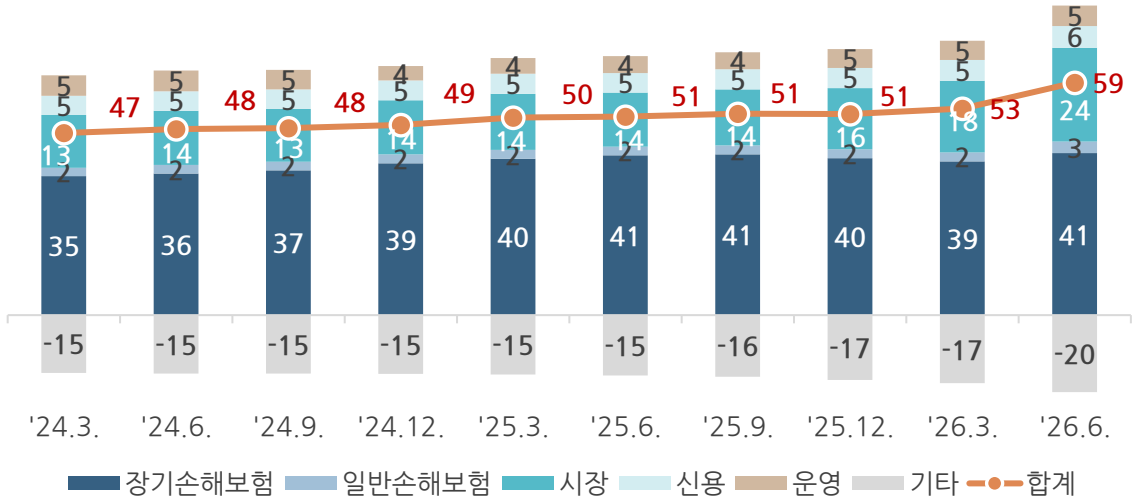
3. 자본구조: ④ 위험의 이동 - 손해보험

· 손해보험 요구자본 증가의 경우 시장위험이 주도함

- 요구자본 구성은 장기손해보험위험 52%, 시장위험 30%, 신용·운영위험 각 7%, 일반손해보험위험 4%임
- 주식위험액 확대로 시장위험액이 1년 전보다 10조 원 증가하며 요구자본 증가를 주도함
-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이 상승하여 위험 구성의 이동이 양 업권에 공통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요구자본 세부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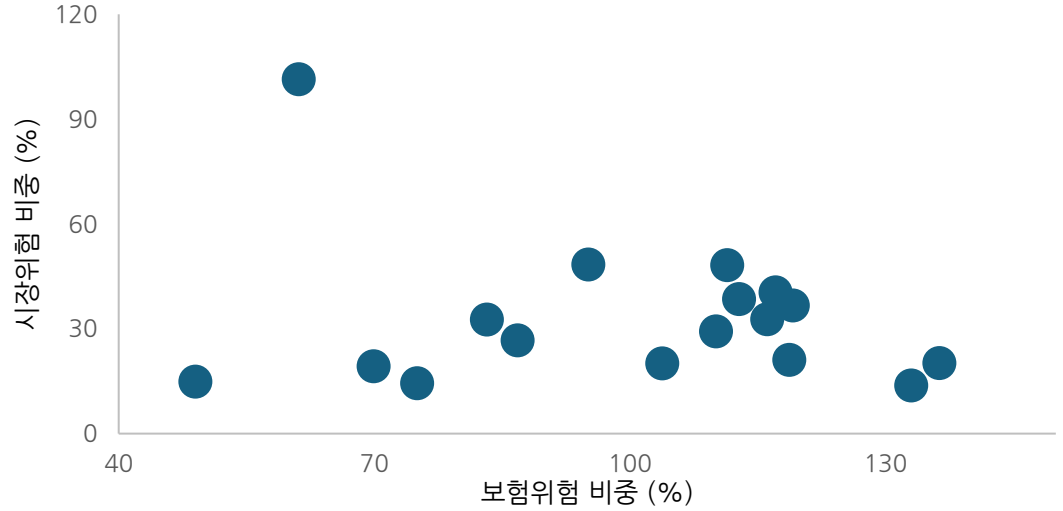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보증·재보험회사는 분석 제외,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분산효과 반영, 기타는 법인세조정액과 기타요구자본의 합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 보험위험 대비 시장위험 비율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 사업보고서 분기 공시 보험회사 대상, 보험위험액은 분산효과 반영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효율성: 투입과 산출 연계 약화 - 생명보험

· **투입 증가가 산출로 연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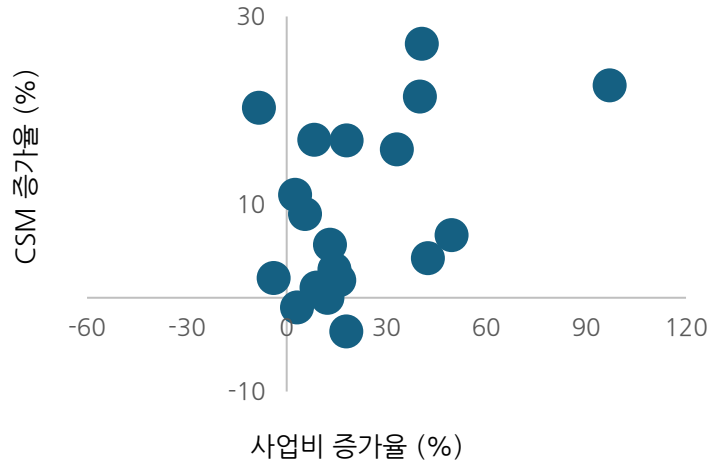
– 비용 증가(모집비)가 이익창출(신계약 CSM)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모집비가 유사한 회사 간에도 신계약 CSM 격차가 크게 발생함

– 자산회전(운용자산 대비 보험료)은 늘어나고 있으나 질적 수익(운용자산 대비 투자이익)은 감소

판매비용 증가와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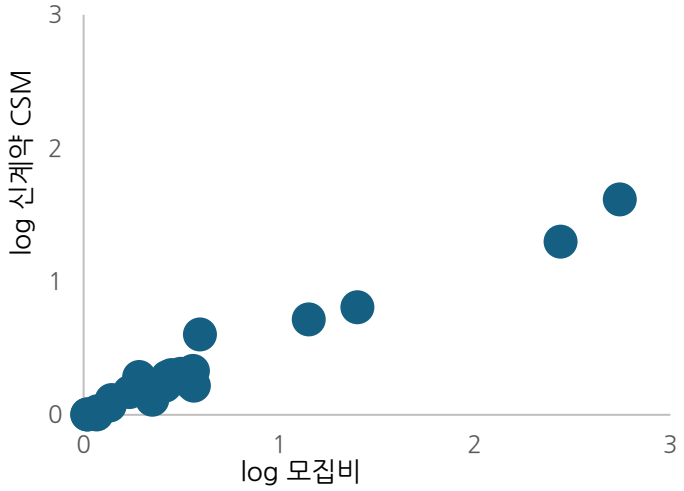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모집비 vs. 신계약 C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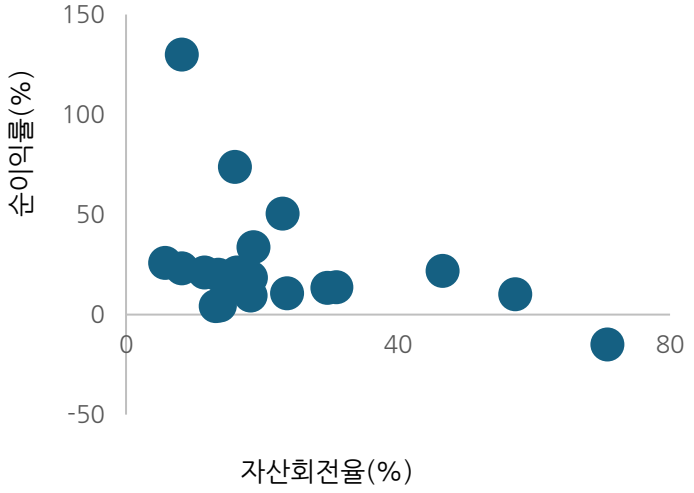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산운용 효율

(단위: %)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효율성: 투입과 산출 연계 약화 -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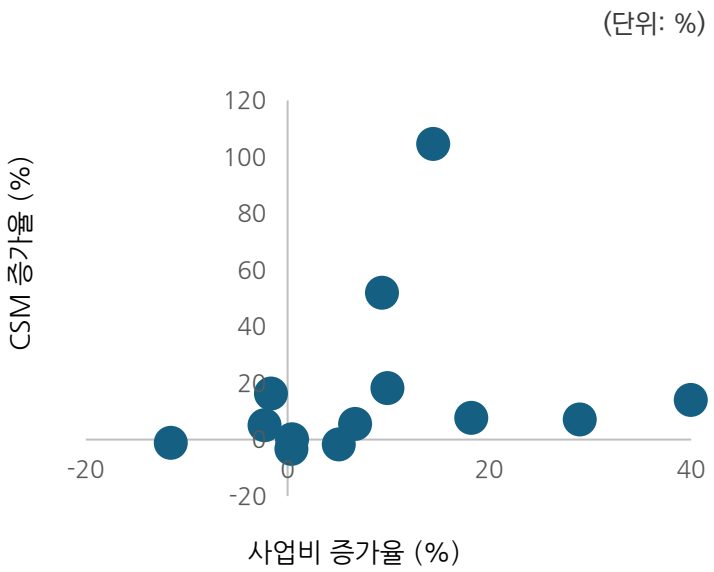
· **투입 증가가 산출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양 업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 사업비 증가와 이익창출(CSM 증가)과의 연계성이 낮음

– 모집원가(신계약CSM 대비 모집비) 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반면 자본생산성(요구자본 대비 순이익)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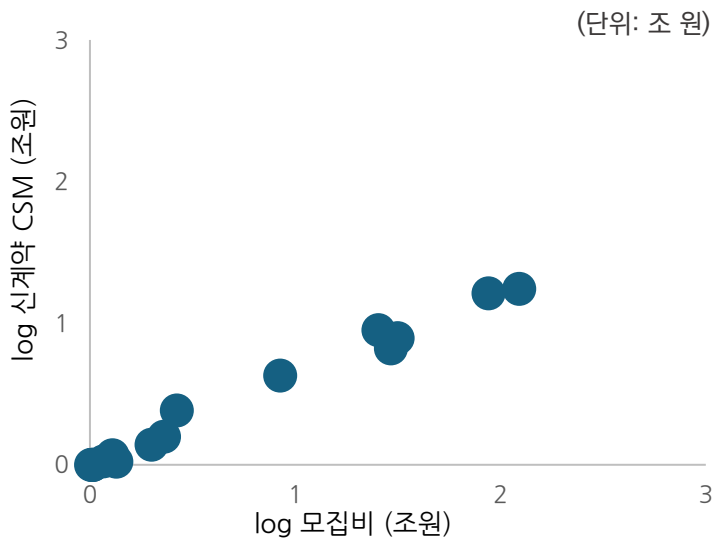
– 자산회전(운용자산 대비 보험료) 상승과 질적 수익(이익률) 개선이 동반되는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움

판매비용 증가와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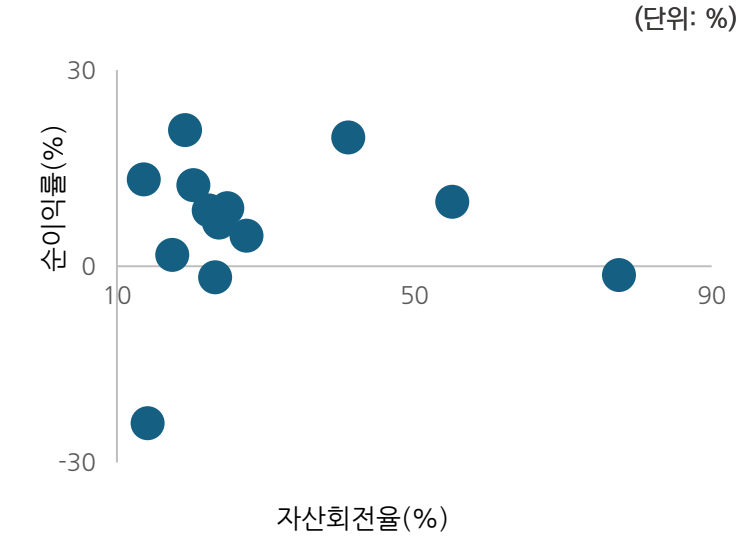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모집비 vs. 신계약 CSM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산운용 효율: 회전율 vs. 이익률



주: 2026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5. 내부 제약과 제도 변화

· 보험산업의 성장·비용·이익·자본의 질이 저하되는 가운데, 2027년 시행 예정 규제는 단기적으로 성장 여력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채널 쏠림이 비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정이탈과 평가이익 의존으로 이익·자본의 질이 저하됨

– 영업규제는 모집비용 조정을, 건전성 규제는 자본확충을 요구함으로써 신계약 유인과 영업여력에 영향을 미침

내부 구조의 취약성

영업구조	수익구조	자산·자본구조
상품 쏠림 현상 수수료 경쟁	보험손익 하락 위험률차 확대	역마진 신용집중
↓	↓	↓
해지가정 영향 비용관리 한계	본업경쟁력 취약	리스크 노출

효율성: 투입 대비 가치창출 약화, 자본생산성 저하

제도 변화

영업규제	건전성규제
수수료체계 개편 GA운영위험 평가제도	기본자본비율 제도 계리가정 선진화
↓	↓

영업전략, 내부통제, 가격체계, 언더라이팅

Ⅳ

2027년 보험산업 전망

1. 개요
2. 성장성

1. 개요: ① 전망 체계

- **경영환경 전망, 시계열 자료(수입보험료 구성 분해),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장성을 전망함**
  -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제도변경 이후 시계열 정보의 한계 등으로 전망값에 대한 보수적 해석이 요구됨

종목별 구성 요소 분해

종목별

저축성, 보장성, 변액, 퇴직

장기, 자동차, 일반손해, 개인연금, 퇴직

보험료 구성

초회, 계속(초년도, 초년도 이후)

납입방법 모집형태별

설계사, GA, 은행, 직판(TM, CM) 등

CY2026(E)

구성요소별

상반기 대비 연간환산배율

적용

“종목별

환산배율 적용 차등”

(퇴직연금)

CY2027(E): 이월 추정

초회보험료

증가율·계속배수(신규 수요)

계속보험료

갱신계수(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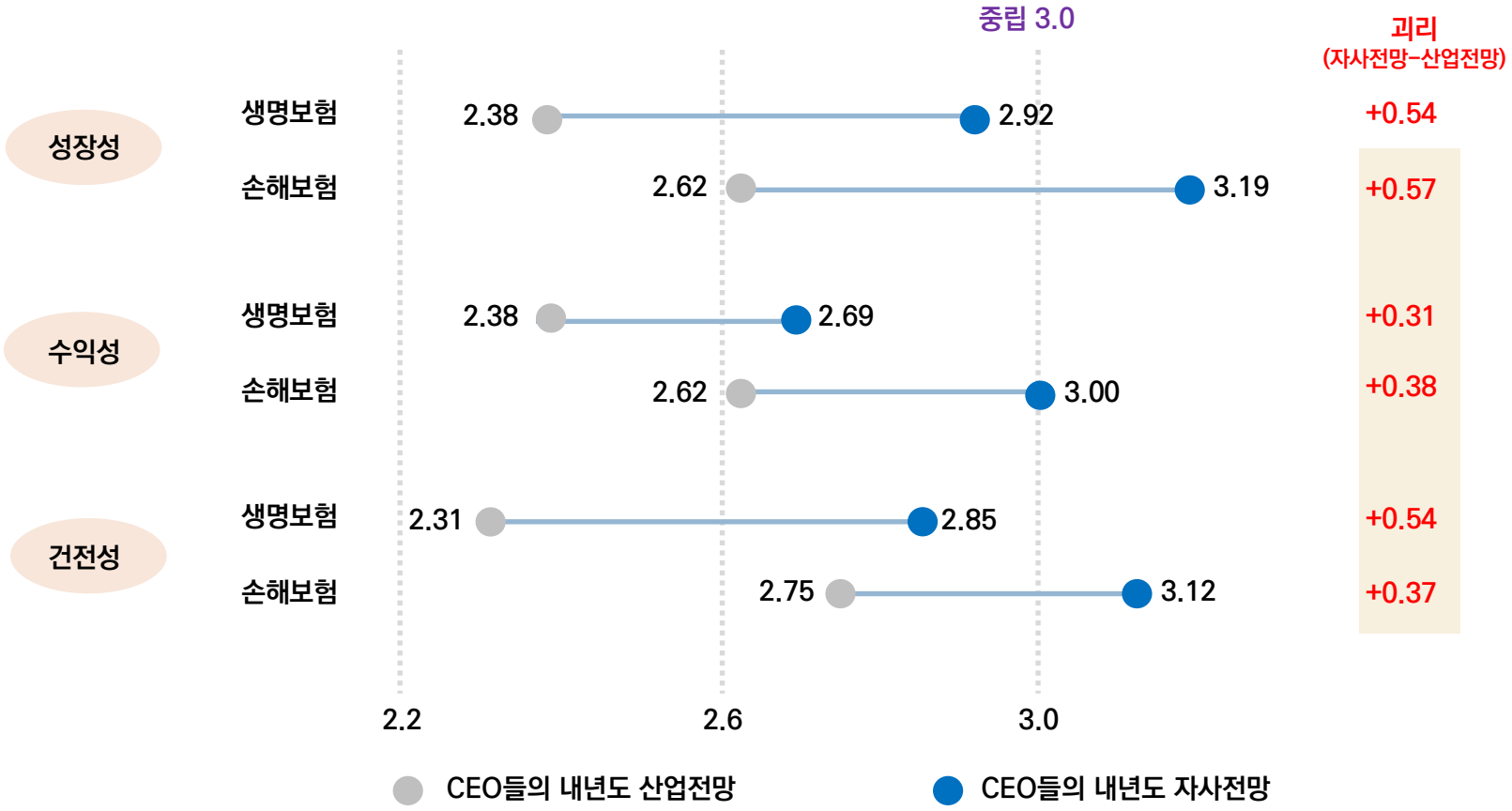
종목별 고유특성 요인

제도변화, 회사별 자본관리전략,

외부 환경요인 등

1. 개요: ② CEO의 2027년 전망

•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대한 산업 전망은 중립을 하회하는 반면 자사 전망은 이를 상회함



주: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산업전망과 자사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임(N=29)

1. 개요: ③ 주요 결과

·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3.5%로, 2026년 성장률의 절반 이하로 둔화 예상

–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생명보험 4.0%, 손해보험 5.0%임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 포함: 2.3% (142 조 원)	퇴직연금 포함: 4.5% (157조 원)
퇴직연금 제외: 4.0% (112 조 원)	퇴직연금 제외: 5.0% (122조 원)

2. 성장성 ①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 2027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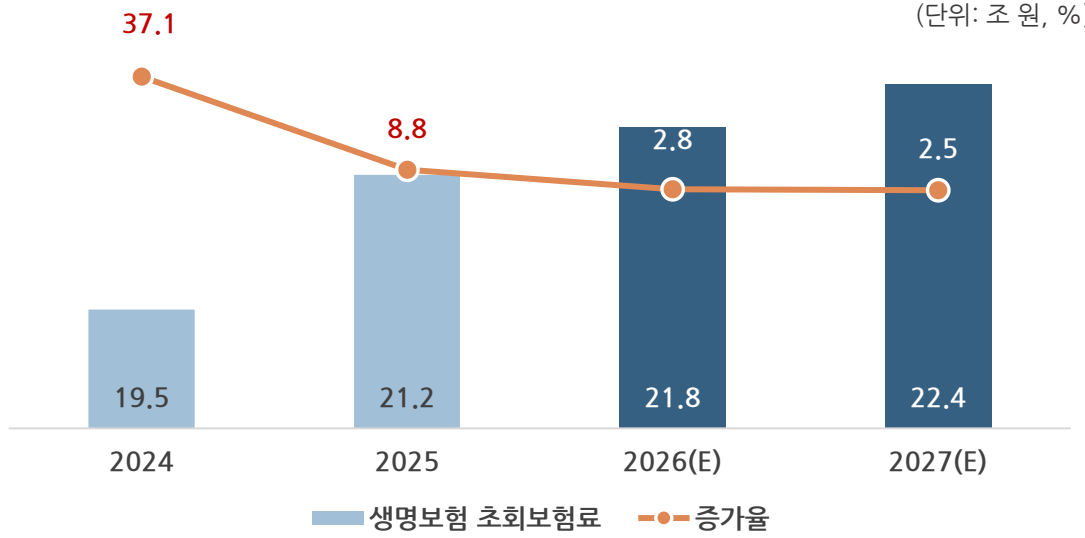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일시납 연금 증가세 둔화로 2.5% 증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인보험 중심으로 5.4% 증가가 예상됨

* 생명보험은 퇴직연금, 손해보험은 장기 저축성보험 제외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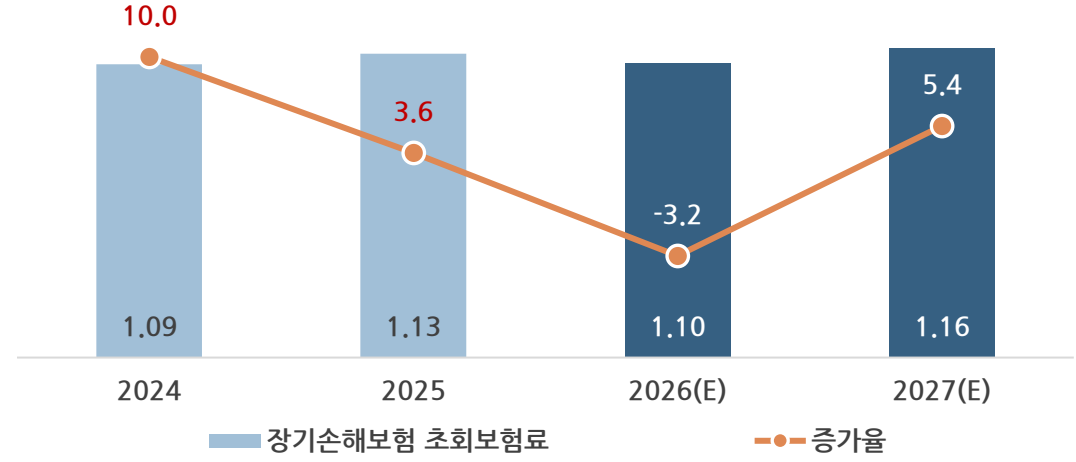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퇴직연금 제외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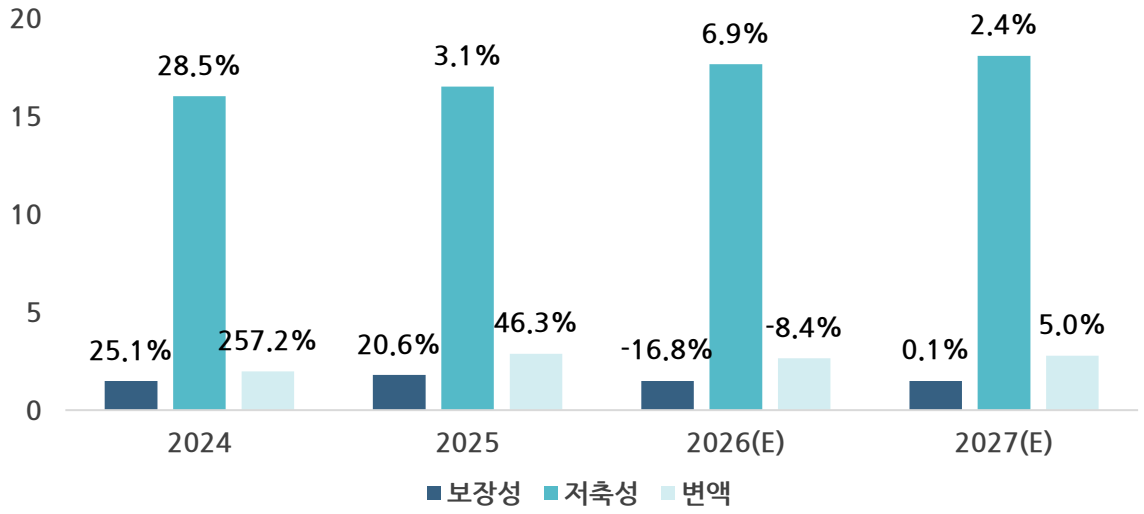
주: 저축성보험 제외

2. 성장성 ① 보험산업: 종목별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전년 급증의 기저효과로 2026년 16.8% 감소 후 2027년 0.1% 증가할 전망임**
  -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연금 증가세 둔화로 2.4% 증가, 변액보험은 주가 회복으로 5.0% 증가할 전망임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인보험이 5.9%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물보험은 2026년 급감(-34.4%) 후 소폭 회복(+1.9%)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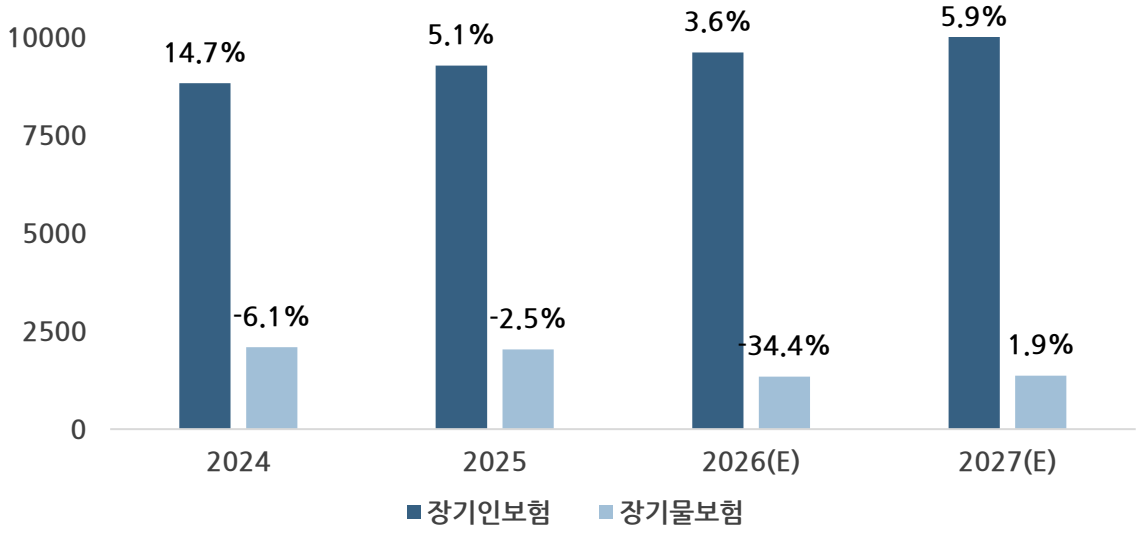
생명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조 원, %)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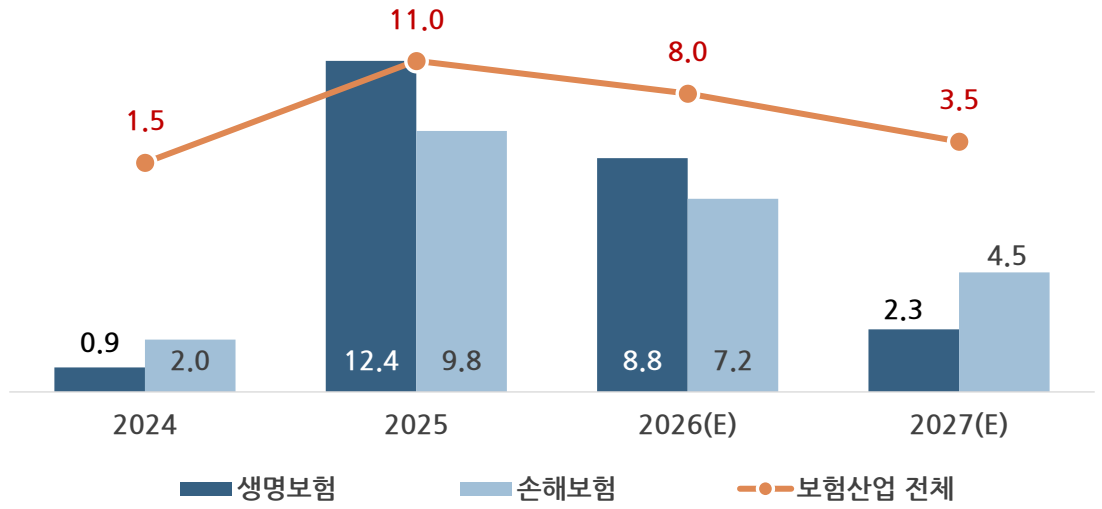


2. 성장성 ①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3.5%로 2026년(8.0%)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5%로 예상됨
-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규모는 2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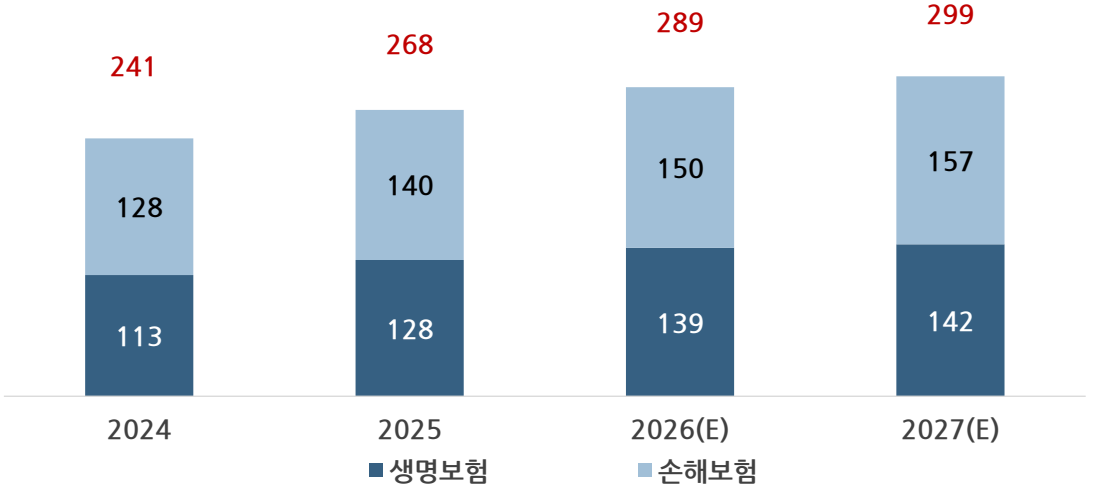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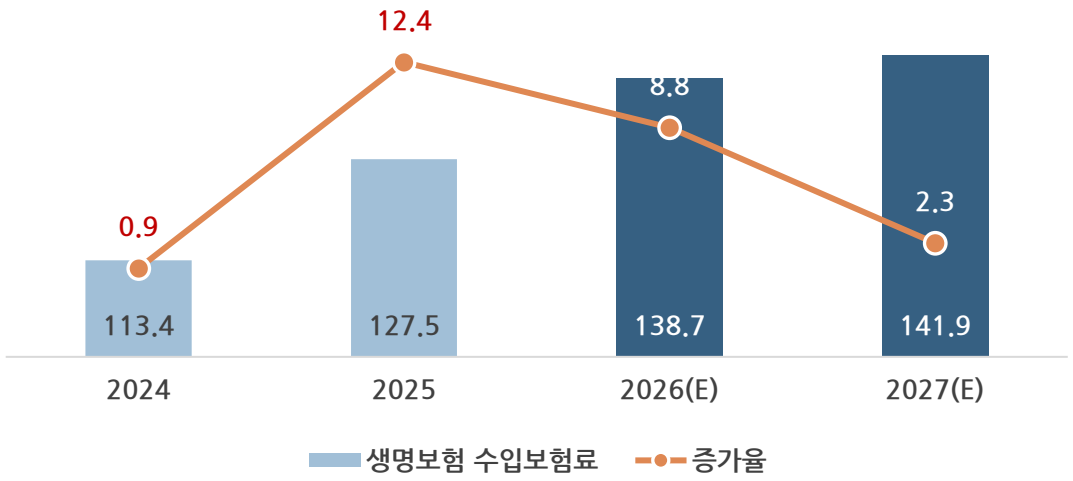
2. 성장성 ② 생명보험

· 202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신계약 둔화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성장세는 지속될 것임
- 저축성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일시납 연금 수요가 둔화되며 0.5% 감소가 예상됨
- 변액보험은 주가 회복에도 계속보험료 감소로 1.0% 감소, 퇴직연금은 2026년 급증의 기저효과로 3.6% 감소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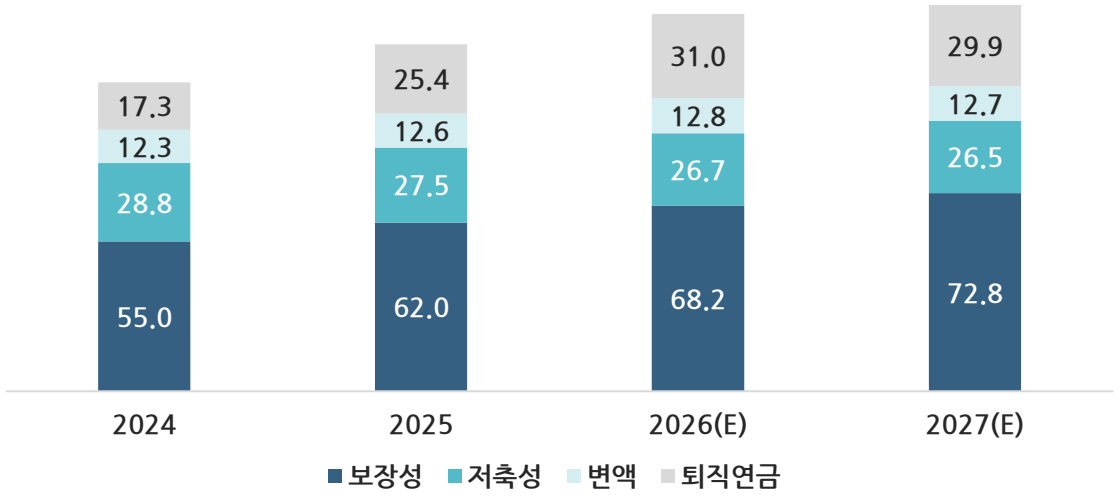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조 원, %)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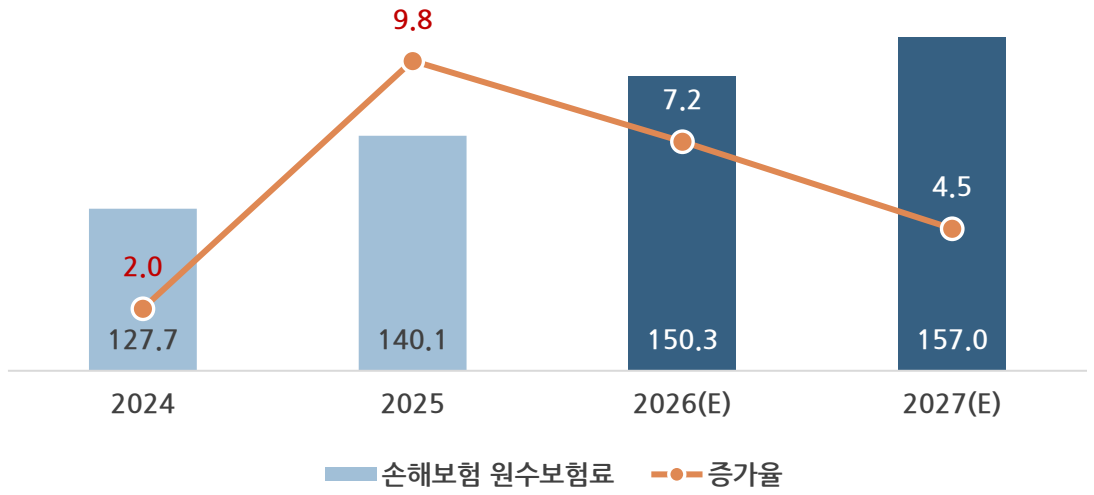
2. 성장성 ③ 손해보험

· 202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26년(7.2%)보다 둔화된 4.5%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인보험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5.5% 성장하나 증가율은 2026년(5.7%)보다 소폭 둔화됨
- 자동차보험은 2026년 보험료 인상 효과 약화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 중심으로 6.2% 증가, 퇴직연금은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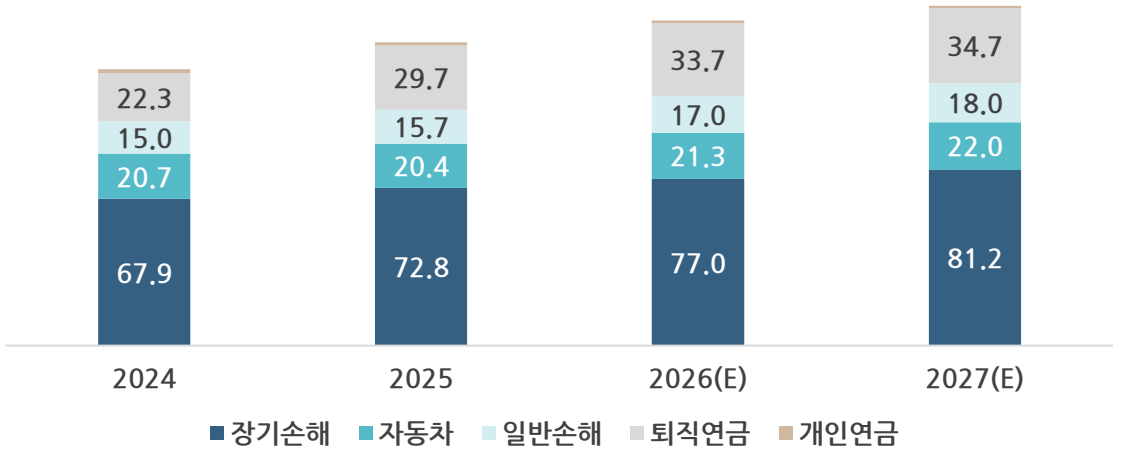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조 원, %)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참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조 원, %)

구분	2024		2025		2026 상반기		2026(E)		2027(E)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3.4	0.9	127.5	12.4	65.2	8.4	138.7	8.8	141.9	2.3
보장성보험	55.0	13.1	62.0	12.7	33.6	10.8	68.2	9.9	72.8	6.8
저축성보험	28.8	2.7	27.5	-4.6	14.2	-1.3	26.7	-3.0	26.5	-0.5
변액보험	12.3	0.4	12.6	2.8	6.5	3.9	12.8	1.8	12.7	-1.0
퇴직연금	17.3	-26.2	25.4	46.4	10.9	18.4	31.0	22.1	29.9	-3.6
퇴직연금 제외	96.1	8.1	102.1	6.3	54.3	6.6	107.7	5.4	112.0	4.0

[참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조 원, %)

구분	2024		2025		2026 상반기		2026(E)		2027(E)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127.7	2.0	140.1	9.8	70.2	8.4	150.3	7.2	157.0	4.5
장기손해보험	67.9	6.0	72.8	7.3	38.0	6.0	77.0	5.7	81.2	5.5
개인연금	1.7	–13.2	1.5	–13.6	0.6	–13.0	1.3	–13.7	1.1	–13.3
자동차보험	20.7	–1.8	20.4	–1.8	10.7	4.2	21.3	4.8	22.0	3.0
일반손해보험	15.0	7.1	15.7	4.7	9.0	8.0	17.0	7.8	18.0	6.2
퇴직연금	22.3	–7.2	29.7	33.3	11.8	24.1	33.7	13.5	34.7	2.8
퇴직연금 제외	105.4	4.1	110.4	4.8	58.3	5.7	116.5	5.5	122.3	5.0

[2] 2027년 보험산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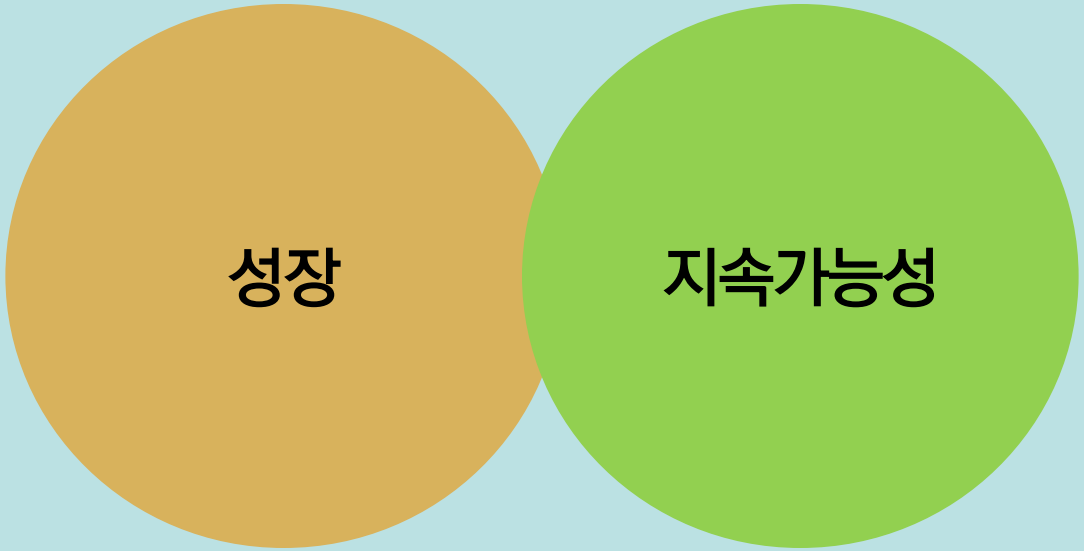
연구조정실

KiRi 보험연구원

Ⅰ

2027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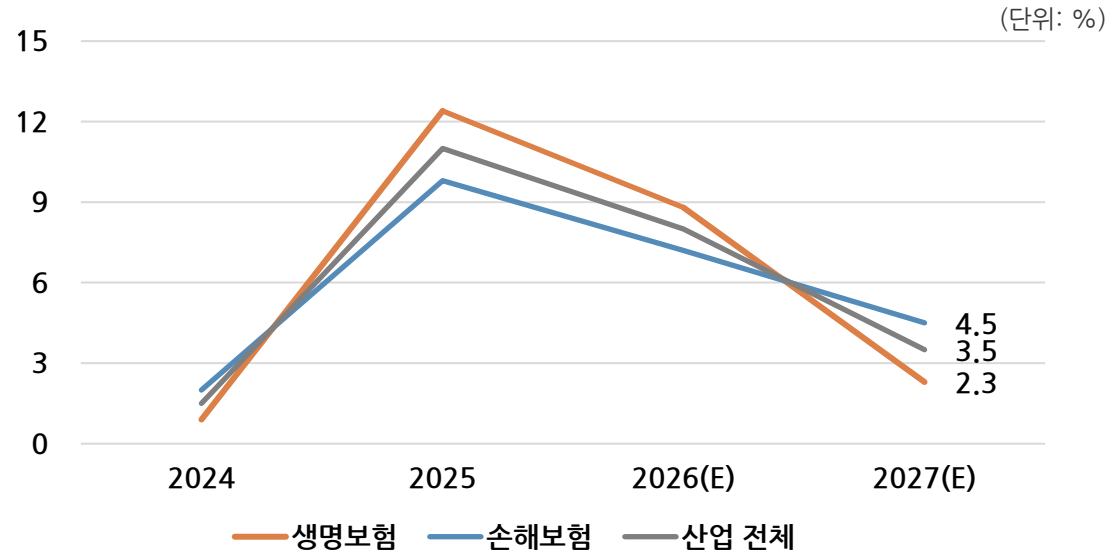
2027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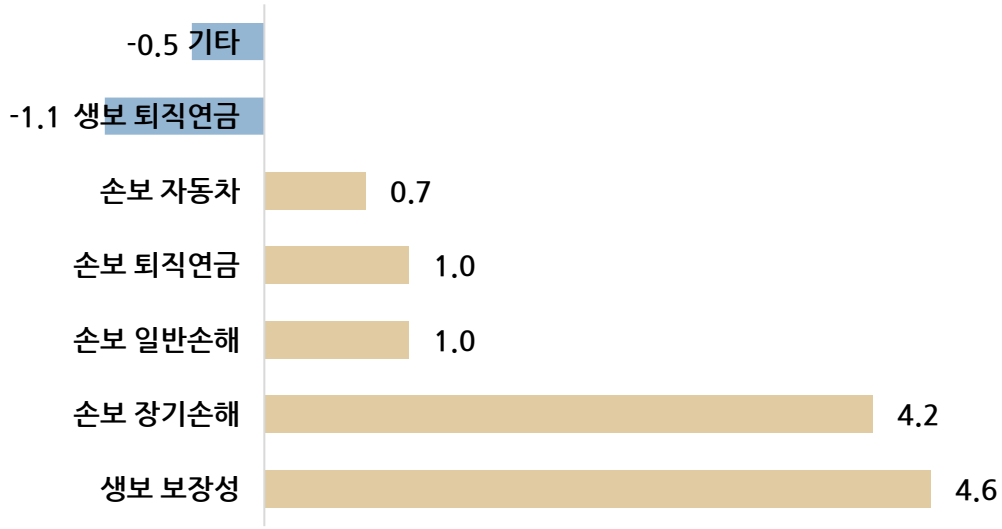
성장 구조

- **총보험료 299조 원, 전년 대비 9.9조 원 증가한 3.5% 성장**
  - 보험료 증가액의 **89%**가 생명보험 **보장성**과 손해보험의 **장기손해**에 집중

수입보험료 성장률 - 성장세 지속과 증가율 둔화



2027 보험 종목별 보험료 순증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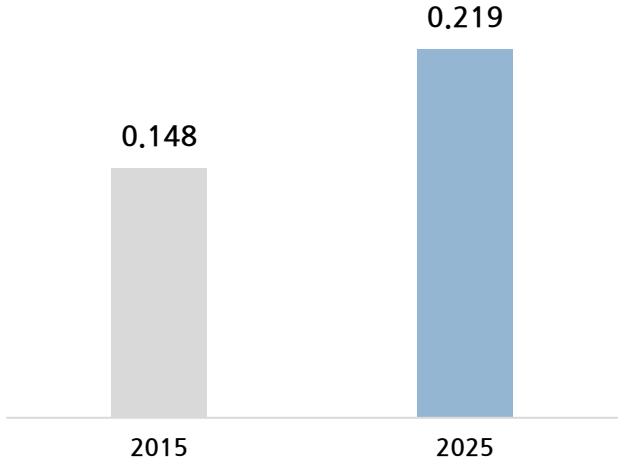


자료: 2027 보험산업 전망, 보험연구원

환경 변화와 성장 기회

AI 주도 성장

▪ 수출품목 집중도(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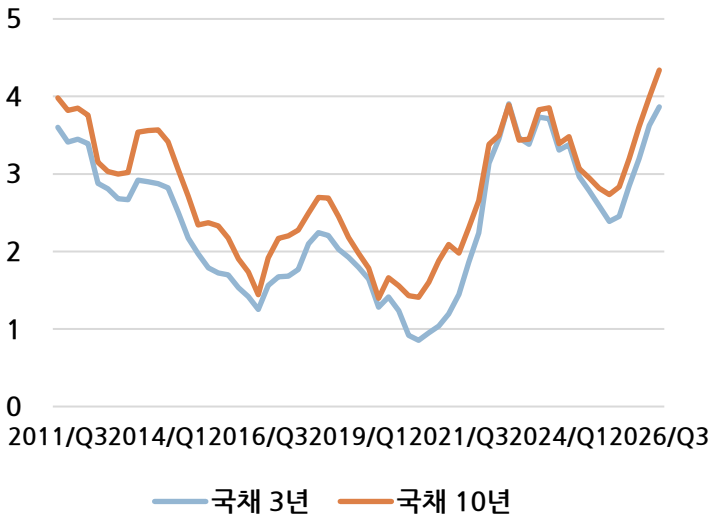


▪ 생산증가율: 전자산업 +6.32% vs. 제조업 +2.23%

기회	①기업위험, ②인프라투자, ③내부 생산성
위험	①동일 위험 집중, ②기술, 위탁 의존

장기금리, 장기자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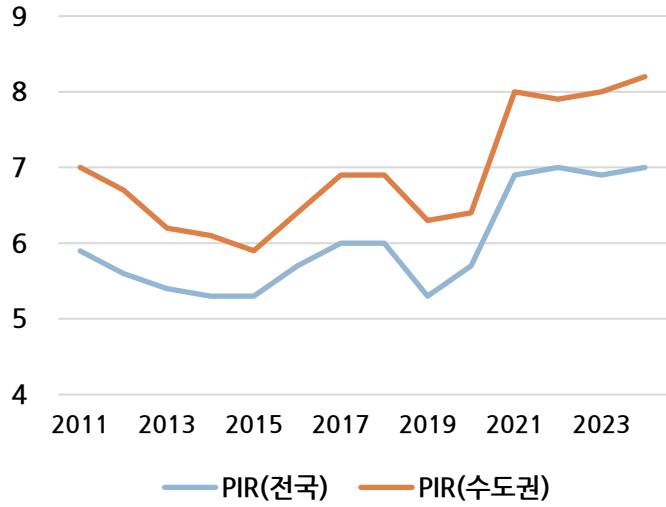
▪ 국채 시장금리 추이



기회	①신규투자 수익, ②보장상품·연금 재설계
위험	①ALM 불일치, ②신용, 유동성

불균형 성장

▪ 주택가격-소득지수(PIR) 추이



▪ 주택가격(26. 9.,전월대비) 수도권 0.7%, 전국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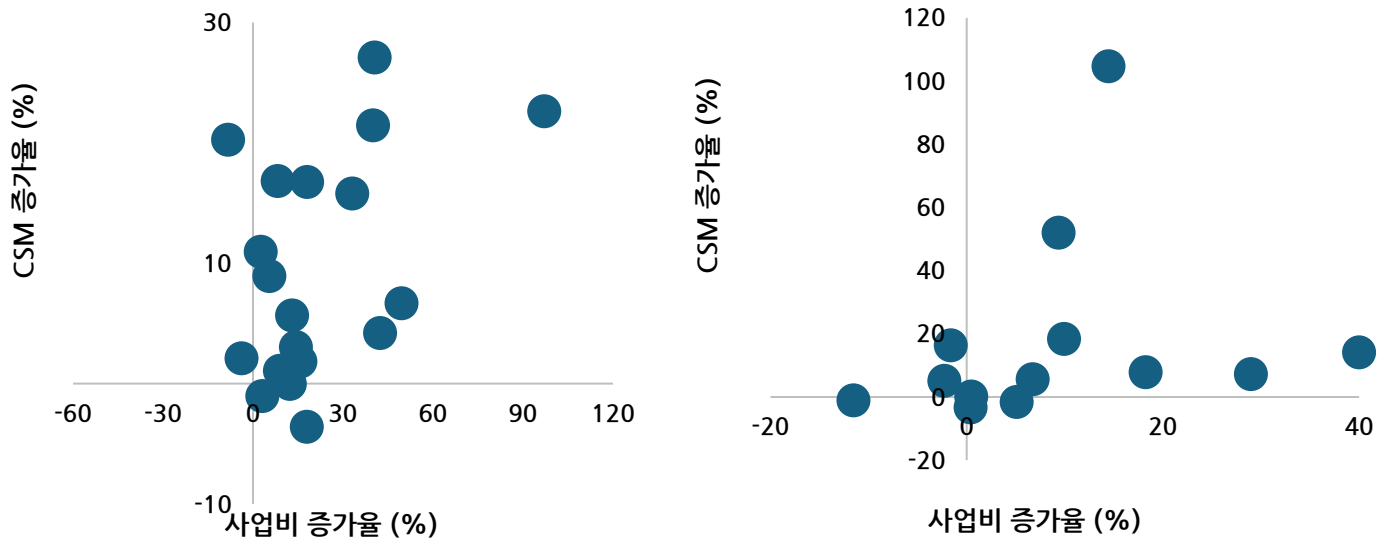
▪ 반도체 중심 성장의 소득·소비 확산 지연

기회	고객·산업·지역별 맞춤 보장과 서비스
위험	①보장공백 확대 가능성, ②해지

성장과 가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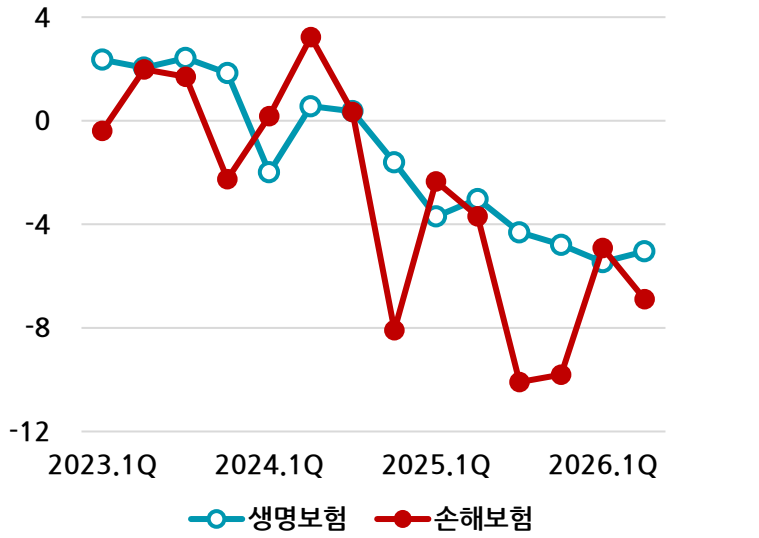
- **외형성장과 경제적 성과의 괴리**
  - 판매부터 지급과 자본관리까지 가치 실현 경로를 점검할 필요

사업비 지출과 신계약 CSM - 생명보험(좌), 손해보험(우)



위험률차 추이

(단위: %)



주: 사업비차와 위험률차는 예상 대 실제 차이
자료: 2027 보험산업 전망, 보험연구원

Ⅱ

2027 과제

2027 과제

AI 주도 성장

장기금리, 장기자산 수급

불균형 성장

상품과 채널 쏠림

예·실차와 비용 부담

ALM, 자본 부담

성장

지속
가능성

① 어디에서 성장할 것인가?

② 어떤 위험까지 인수할 것인가?

③ 보장 약속을 무엇으로 이행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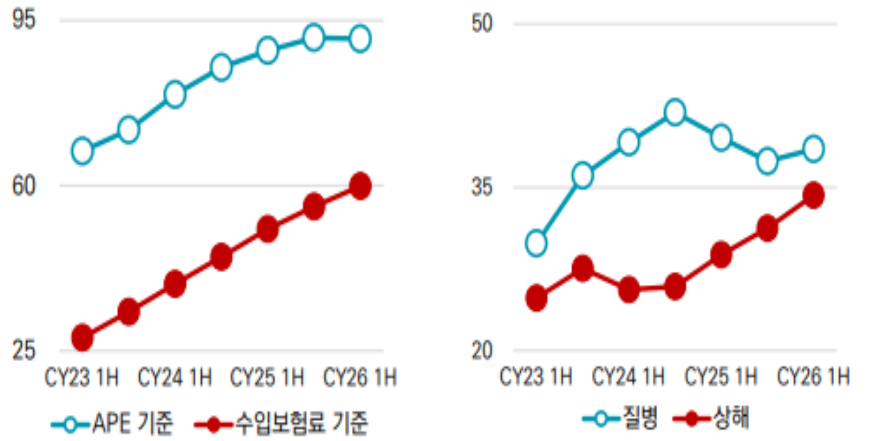
④ 어떤 비용과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판단하고 고칠 것인가?

① 성장구조와 포트폴리오 전환

- **기존 계약 기반을 토대로 보험회사별 강점에 맞춰 보장 기능을 확대**
  - 서비스 수행 범위와 품질 기준, 데이터 활용, 이해 상충 관리가 정책과제

포트폴리오 쏠림 - 무저해지 보장성(좌), 질병, 상해보험(우)



성장 구조 전환

건강 사업모형

- 예방·회복·돌봄 서비스
- 서비스 효과와 품질, 유지와 지급 성과 검증

연금 사업모형

- 퇴직연금 + 장수연금
- 유동성과 소득보장 선택 구조 설계

신 위험 사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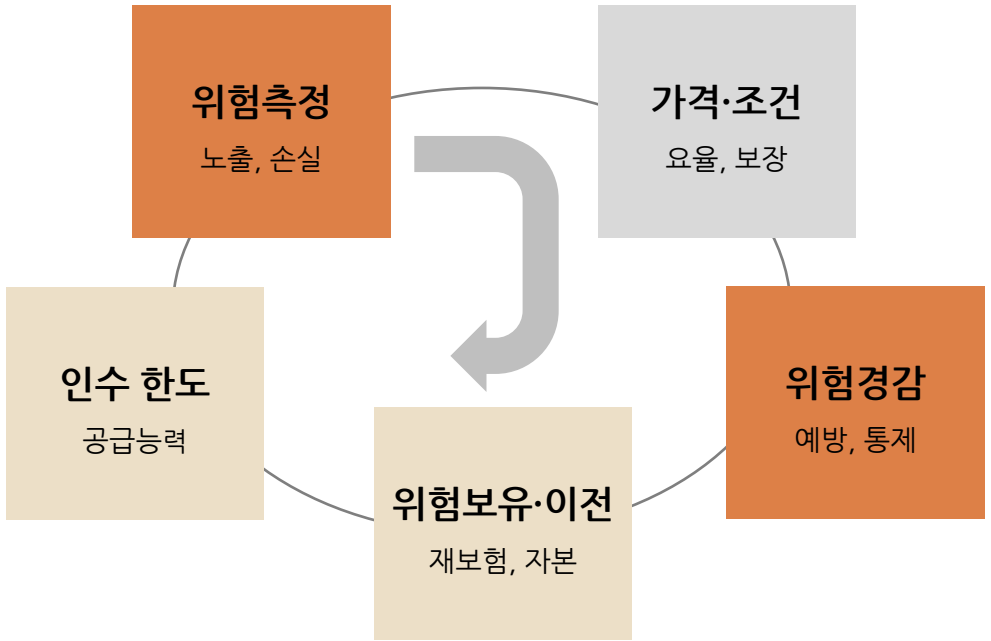
- 위험진단과 예방 산업별 위험자료와 전문인력 확보
- 인수체계 구축

주 : 생명보험은 보장성 중 무저해지환급형 비중,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질병, 상해 비중
자료: 2027 보험산업 전망, 보험연구원

② 성장 영역의 보험가능성과 위험인수여력

- **위험감내능력과 자본여력을 고려하여 위험별 보험료와 인수규모, 보유·이전 비율을 결정**
  - 노출 데이터와 실제 손실을 연결하는 공동 위험데이터 기반 확충이 정책 과제

신 위험 인수의 연결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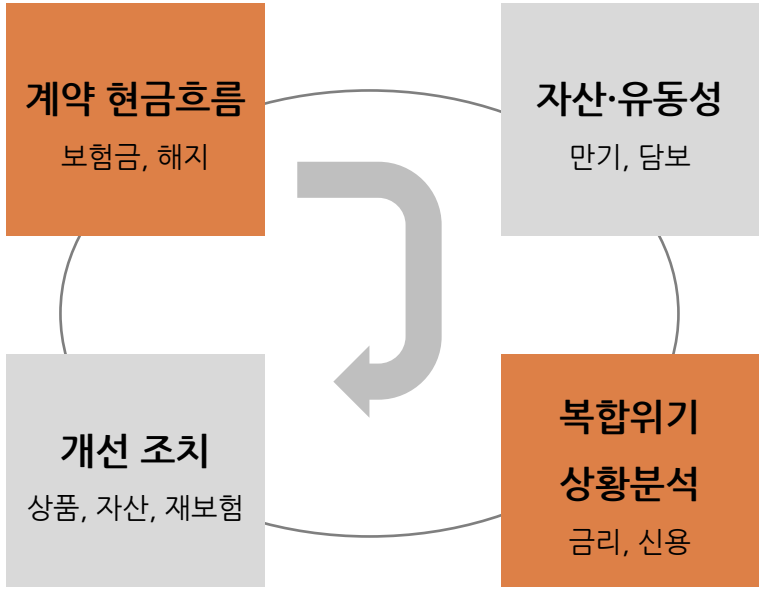
신 위험의 보험가능성

성장 영역	공급 제약
건강·돌봄	장기 위험률과 보험금 원가, 서비스 이용행태, 보장조건의 지속가능성
연금과 종신소득	장수와 해지 경험, 장기 보증, 재보험
AI·사이버, 기후, 기업위험	위험노출과 손실의 연결, 동시다발적 손실, 인수한도, 재보험

③ 장기보장과 자본, ALM

- **계약의 이행과 새로운 보장 공급을 뒷받침할 자산, 유동성, 자본을 확보**
  - ORSA의 취약성 진단을 개선조치, 책임자, 이행기한과 재점검 연계가 정책과제

장기보장 유지의 연결고리



장기보장 공급

구분	재무적 지속가능성
부채	고금리 보증, 장기 보험금 원가, 해지와 갱신 민감도
자산, 유동성	만기별 불일치, 신용집중, 보험금과 해지 지급, 담보와 지급 재원
자본	가용자본의 증가 원인, 요구자본의 위험 구성, 충격 이후 흡수력, 재보험의 실질 위험이전

④ 비용, 위험률과 생산성

· 보험료 인상만으로 비용 증가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 보험금, 판매, 운영 비용을 동시에 재설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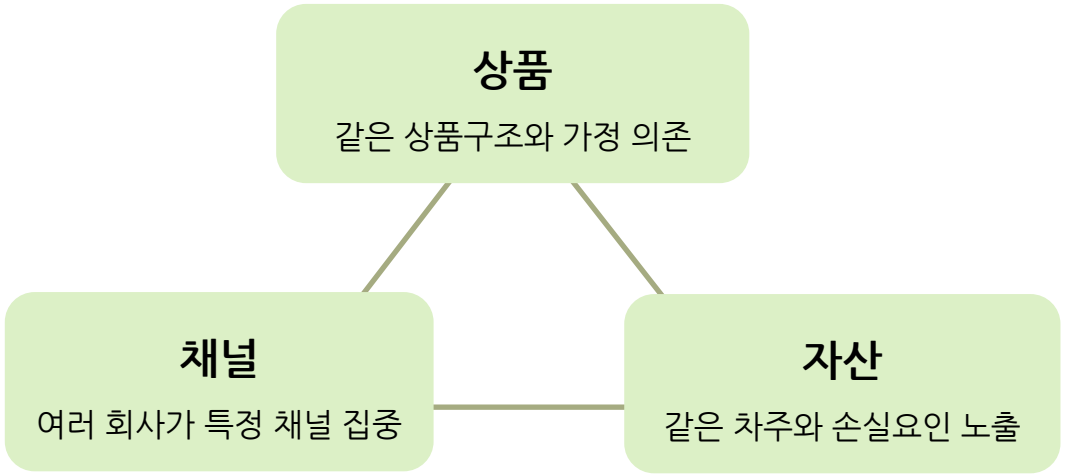
– 필요한 비용은 반영하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발생 원인별 우선 개선이 정책 과제

보험금 원가	판매 비용	운영 비용	성과 기준
▪ 예정과 실적 차이 ▪ 지급 속도 ▪ 손해율	▪ 유지율 ▪ 계약 전환 ▪ 민원	▪ 완결비용 ▪ 처리 시간 ▪ 오류	▪ 적정 가격 ▪ 지급 품질 ▪ 위험조정 수익성
원가 상승의 원인 구분	유지와 사후관리에도 보상	AI 재작업과 복구비용도 계산	

⑤ 시장질서와 신뢰

- **상품, 채널, 자산의 집중위험을 동시에 관리**
  - 다양한 공급경로와 질서 있는 계약이전, 정리의 조건 마련이 정책 과제

시장 차원의 점검



정보 생산 - 판단 수정 - 손실 부담

정보 생산	판단 수정	손실 부담
CSM, 예실차, 해지·지급, 자본과 유동성의 변동 원인 파악	상품, 판매, 자산, 재보험, AI와 위탁 구조를 수정할 권한과 기한을 명시	주주의 위험부담, 채널과 위탁업체의 귀책책임, 재보험계약에 따른 분담을 구분

2027 도전과제

· 보험회사는 선택하고, 정책은 그 선택의 조건을 설정

도전 과제	경영과제	정책과제
성장구조 전환	보유계약 가치 유지, 강점에 맞춰 인력과 자원을 재배분	서비스 범위, 품질과 이해상충 기준 정비
보험가능성 확보	위험 데이터, 요율, 인수 한도와 재보험을 동시 설계	공동 데이터와 위험분담 기반, 보장공백 대응
장기보장 유지	계약군별 현금흐름과 복합 충격 기준으로 자산, 자본을 관리	ORSA 진단과 개선조치 연결, 건전성 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비용과 생산성 개선	보험금, 판매, 운영의 비용구조를 재설계	원가 정보, 판매보수 유인, 업무처리 기준 개선
시장질서와 신뢰	상품, 채널, 자산의 집중위험을 통합 관리	공통 쏠림 점검, 대체 공급과 질서 있는 정리 조건 마련

[참고]

정책의 효과는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정책 변화	시장참여자 행태 변화	성과 부작용
▪ 사례 분석 ▪ 설문 조사 ▪ 실증 분석	▪ 행태 가정	▪ 모의 실험,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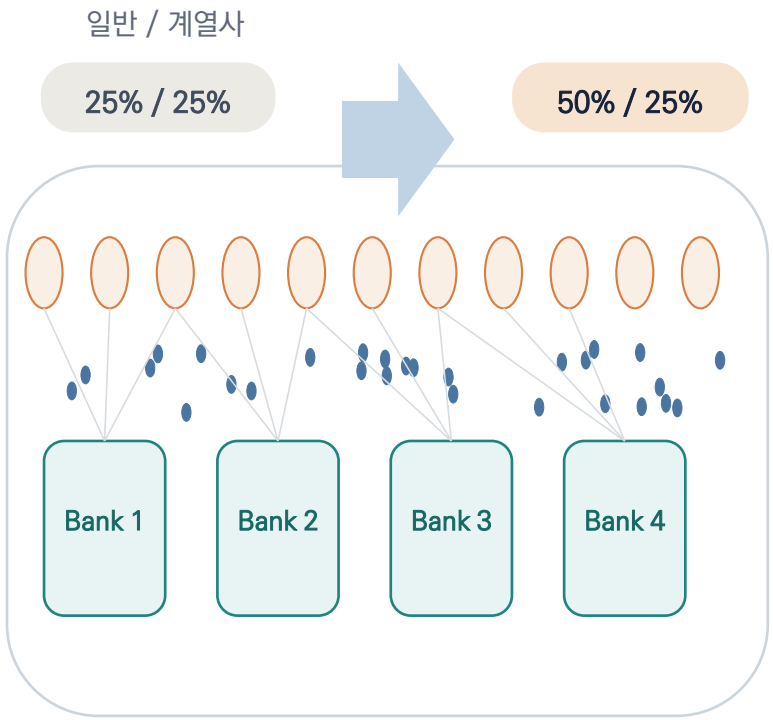
[참고] 행태기반 시뮬레이션 예시

- **판매한도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 제약을 줄이고 시장집중도를 높임**

  * 실제 정책효과의 예측치가 아니고, 가상 모형의 결과임

모형 흐름

0	가상 소비자 2만 명 생성
1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
2	은행 판매가능 확인
3	**판매비중 한도 적용**
4	한도제한 시 대체 제안
5	계약 체결 / 유지계약 해지
6	성과지표 산출



모형 결과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최초 선택을 변경한 사례 **약 80% 감소**

소비자 후생 80% 개선을 의미하지 않음

시장집중도(HHI) 상승 **1,316 → 1,423**

상위 보험회사 실적 확대

총 신계약 **변화 미미**

시장 확대 효과는 제한적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 행 일 2026년 11월
발 행 인 김 헌 수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ISSN 3022-3628